

욥기 1 장

1. 욥은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을 만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1, 8). 이 네 가지 덕목을 두 종류로 분류해보자.

바탕 - 하나님 경외, 결과 - 순전함, 정직함, 악에서 떠남: 욥의 모든 행동의 바탕은 하나님 경외다. 이것 없이 사람이 온전해질 수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노라고 하면서 순전하고 정직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는 욥의 두려움이 곧 하나님 경외이며 그가 모든 시련을 이겨내게 되는 원동력이다.

2. 자식들의 있을지 모르는 죄를 사할 받으려고 아버지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되는가?

욥의 방식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다. 오늘의 잣대나 방식으로 율법이나 은혜가 주어지기 훨씬 이전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욥의 마음 자세에 주목해야 한다.

3. 사탄이 심통을 부리기 전 욥의 모습에서 가장 부러운 것은 무엇인가?

엄청난 부자면서 경건하게 사는 것: 특히 자식들마저 경건함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어려울 때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도 잘 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의 간증이 한 둘이 아님데, 더구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는데...

4.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 왜 사탄이 끼여 있는가?

참소자의 자격인가? 일정한 역할이 잠정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 모임에 참석할 자격이 있다? 장차 심판을 받게지만 참석할 자격이 있는 경우?

5. 욥의 엄청난 고난이 시작된 시발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랑(8): 욥은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을 만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것도 엄청난 감격이거늘 하물며 하나님에게서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할 말이 없다.

6. 사탄의 말은 '까닭 없이?(=아무 것도 바라지 않고)'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 욥은 정말 까닭 없이 그런가?

욥은 그랬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순종한다는 말이다. 그것은 '까닭 없이 그럴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주는 것이 없어도, 이해가 가지 않아도, 돈이 되지 않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오늘날 기복신앙으로 흐르는 교회와 교인들은 욥의 신앙을 통해서 차원 높은 본래의 신앙을 되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사탄이 생각하는 '까닭'이란 소유물을 많이 주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말로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욥이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오해를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돈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돈 벌자고 하는 짓 아니냐?'고 한다면?

사탄의 생각일 뿐: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사례를 받는다고 해도 사례가 주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선후가 바뀌지 않도록 평생 경계해야 하는 일이다.

8. 세상에 악한 일이나 비극적인 일이 왜 이렇게 많으냐는 질문에 완벽한 답은 아닐지라도 본문을 근거로 답을 한다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탄이 활동하기 때문: 그렇다고 해도 사탄이 욥을 마음대로 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12, 2:6). 악으로 가득 차 보이는 세상일지라도, 홍수가 온 세상을 뒤덮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

9. 사탄이 시비를 걸어왔더라도 하나님께서 응하심으로 욥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 때문이지 사탄의 시비에 하나님께서 말린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꺼내셨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고, 욥이 넘어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확신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10. 한꺼번에 모든 소유물이 사라지고 자식마저 몰사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충격을 받아서 기절을 하든지 해야지 욥은 정신이 말짱하다. 이렇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서 욥이 생각하고 있는 것 두 가지는 무엇인가?

자신이 적신으로 태어난 것과 주시거나 거두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과연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욥이다.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는 부자,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도 복되거늘...

옴기 2 장

1. 사단이 하나님에게 시비를 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단의 악을 올린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단을 유혹한 것(1:7, 2:1-3): 명백하게 말을 먼저 꺼낸 분은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사단으로 말미암은 질병이나 고통이 임할지라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끝내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자.
2. 한번 하나님과 겨루어서 졌으면 포기해야지 또 다른 말을 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줄까?
사단이 하는 짓: 졌으면 깨끗이 졌다고 해야지 다른 얘기를 꺼내는 것은 보기 흉하다. 그래서 또 지려고?
3. 가족으로 가족을 바꾼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같은 값어치가 되어야 바꾸는 법 아니냐는 말이다. 그러면 처음에 모든 소유물을 치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을 할 것이라고 한 자신의 말(1:11)을 뒤엎는 셈이다. 사단의 특징이 바로 상황에 따라 이렇게 말을 뒤집는 것이다.
4. 악창이 났는데 왜 재 가운데 앉았을까?
고름이나 진물을 굳게 하느라고: 재를 발라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때 옴에게 필요한 것은 재와 토기조각 뿐이다. 잡도 자지 못하고 먹을 것도 먹지 못했을 터이다.
5.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부인의 이 말이 심한가?
 옴의 수준이면 몰라도 상식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 말 아닐까? 문제는 상식 수준이라는 것이 때로는 사단의 수준이라는 점이다.
6. 부인의 말에 대한 옴의 답변 태도가 어떤가?
여유롭다: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도 할 말이 없을 텐데...
7. 언제부터 옴기에서 사단이 등장하지 않는가?
 이유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옴의 믿음을 확인한 후(2:10)
8. 할 말이 없고 하지만 말없이 일주일이나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려면 친구들도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런데 어떻게 이제부터 옴을 비판할까?
 본인이 당하는 고통에 비하면 어림도 없다. 그래도 남의 고통이니까 이런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옴기 3 장

1. 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닌가?

원망이기보다는 슬픔의 표현이다: 이런 슬픔도, 고통도 없다면 옴은 인간이 아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옴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원망할 수도, 그럴 마음도 없으니 대신 원망하는 것이 생일이다. 군복무 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고참도, 장교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하고나니 욕은 나오는데 퍼부를 대상이 없어서 숲에 들어가서 고향을 질렀던 일이 있다. 대타는 필요하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도 다른 동료도 아니라면 복이다.

7일이나 침묵하면서 지냈지만 침묵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은 아프다고 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면 벌써 입을 열었을 것이다. 이런 슬픔을 표현하는 것조차 막으면 안 된다. 울고 싶을 때에는 울어야 한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어설픈 위로나 설교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통의 의미, 고통 후에 올 기쁨, 하나님의 뜻). 함께 아파해 주어야 하고, 아픔을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

2. '생일이 없었더라면'이라는 한 마디를 몇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3-9)?

16번: 헤아리기도 쉽지 않다. 같은 내용을 표현방식만 바꾸어 가면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문학적인 재능이다. 거의 모든 경우가 '어두움'과 관련이 있다(암암함, 유암, 사망, 그늘, 구름, 적막). 8절의 '날을 저주(詛呪)하는 자(者)' 곧 큰 악어(鱈魚)를 격동(激動)시키기에 익숙한 자(者)'는 하나님을 가리킨다(41 장 참고). 이방 종교의 색채가 물씬 나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옴에게서 이방신이 이런 일을 한다는 사상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3.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인데(3-9) 누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10): 자신에게 빛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옴이 모르는 것은 빛을 주시고선 왜 길을 막으시냐는 말이다.

4. 생일을 저주한 다음에는 무엇이라고 원망하는가(11-12)?

출생 후 왜 죽지 않았던가? 원망하는 것도 출생의 과정을 잘 따라가면서 한다. 9절에서도 해가 뜨는 과정을 따라가며 생일을 저주했다.

5. 태어나더라도 곧 죽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쯤 평안하게 쉬고 있을 텐데...: 옴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6. 옴이 생각하는 죽은 자의 세계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14-19)?

평등한 세상: 왕과 고관(=議士), 부자와 사산아조차 자유로운 곳 아니냐? 뒤집어 생각해 보면 현실의 부귀영화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곳이 죽은 자의 세계라는 것이다. 어쨌든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옴은 지금 낙태한 아이조차 부러울 지경이다.

7. 하나님의 어떤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가(20-23)?

죽기를 바라는 자에게 죽지 않게 하시는가(21)? 놔두면 금방 죽을 것이고 그러면 고통도 끝나는데 왜 죽지 못하게 하시는가? 길을 막아놓고 어찌하여 빛을 주시는가(20, 23)? 고통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란 것을 우리는 알지만 옴은 하나님의 처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죽으려는 의도는 없다. 죽기를 바란다는 말이 자살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8. 옴의 현실은?

죽은 자가 누리는 안식이 전혀 없다. 오직 탄식, 앓는 소리, 두려움, 고난만 있다.

9. 옴의 생각에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유일한 도피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죽음(22): 얼마나 고통이 극심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

10. 하나님에게 둘러싸인 것(23)은 복인가? 산울로 두르심(1:10)은 보호인데?

겉보기에는 고통이지만 결국은 복으로 바뀔 것: 여기서 하나님에게 둘러싸인 것은 길이 아득함을 의미한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데 빛은 왜 주시는가?' 이것이 옴의 부르짖음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그가 부르짖을 감격을 알고 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옴 42:3).

욥기 4 장

1. 2절의 '누가'는 실제로 누구를 의미하는가?

자기(예만 사람 엘리바스): 첫타자 엘리바스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자네는 듣기가 싫겠지만 그렇다고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없지 않느냐?'라는 말이다. 조금 거북하겠지만 그래도 마땅히 해야 할 말이니 참고 들어달라는 정중한 서두이다.

2. 불우한 이웃을 잘 돕던 사람이 갑자기 불우하게 되었다.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 엘리바스의 방식과 비교해보자.

이전에 네가 하던 말들을 생각해 보라(우리도 별반 다를 것 같지는 않다): 자기가 그런 입장이 되었다고 답답해하고 놀라면 안 되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듯 대로 네 자신이 이제 실천해 보라는 뜻 같다.

3. 엘리바스의 첫번째 충고(6-8)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이고, 온전하게 행동해야 소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충고다. 바탕에 깔린 사상은 무엇인가?

인과응보, 혹은 권선징악: 심는 대로 거둔다. 아니 뎨 굴뚝에 연기 나랴?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지만(갈 6:7, 시 37:25-26) 하나님은 때로는 자연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창 21:2-23)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일반계시가 있고 특별계시가 있음을 모르는 것과 같다.

4.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9-11)?

예외 없음(9절의 '다'): 사자의 종류는 다 나온 것 같다(사나운 사자, 젊은 사자, 늙은 사자, 암사자의 새끼). 심판의 능력보다는 남녀노소 모든 악한 자에게 예외가 없음을 말한다.

5. 엘리바스가 체험한 신비한 경험(4:12-21)에 문제가 있는가?

신비한 체험이 다른 성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라면 무익하다.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정죄하기 위한 말의 정당한 근거를 대기 위해서 자신의 체험을 이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6.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이 말이 옳은가? 옳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지극히 당연하다: 욥도 아는 사실이다(9:2). 문제는 엘리바스의 이 말이 욥의 고난을 설명하는 말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점이다(=욥의 고민은 '그런데 왜 유독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라는 것이다). 이 말대로라면 선하게 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예 선하게 살려는 노력조차 필요 없다. 충성하는 성도에게 이런 말을 해서 기를 꺾을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명제도 어떤 경우에 써야 할 것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 죄를 지적하는 설교는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말이고 하지만 성도를 항상 출발점에 끌어다 놓는 우를 범하기 쉽다.

7. 예전 우스개에 티코 운전자는 펌과 장갑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면? 펌은 주차시킬 때 필요하고 장갑은 회전할 때 필요하다(마치 쇼트트랙 경기처럼). 작은 차라고 이렇게 늘렸는데 하나님과 비교하면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의롭지 않다(17)

우매하다(18)

연약하다(19): 티끌 위에 흙으로 집을 지어 살다가 하루살이에게 눌러 죽을 인생이다. 인생의 연약함을 이보다 더 잘 묘사할 수 있을까?

유한하다(20): 아침에 낫다가 저녁에 죽는 판에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 줄을 뽑으면 한 순간에 쓰러지는 장막 같다.

8. 엘리바스의 주장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적용에 문제가 있다: 일반론으로는 당연히 옳은 말이다. 욥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인삼이 좋은 음식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 눈에 핀 장미는 잡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경우에 맞지 않으면 틀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냉정한 권면보다는 뜨거운 사랑이 먼저여야 한다(고전 13:1-3)

욥기 5 장

1.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할 자가 없다(1)니 왜 그럴까?

엘리바스의 생각에 욥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너를 도울 자가 없으니 빨리 회개하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욥을 가리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는 셈이다.

2. 미련한 자가 뿌리박는다는 것은 비유다. 미련한 자를 나무로 바꾸어 보면 이 문장은 무슨 뜻이 되는가?

변성한다는 뜻: 나무가 뿌리를 박듯이 악인이 변성하는 것을 보았지만 곧 망하고 말더라(4-5)는 자신의 경험을 말한다.

3. 악인이 망할 때 왜 하필이면 성문에서 놀릴까(4)? 공동 번역이 '성문에서 놀리나'를 '성문에서 물매를 맞아도'라고 번역을 한 것을 참고로 생각해보자. 추수한 것이 왜 가시나무 가운데 있을까?

성문은 사람이 많은 곳이다. 그런 곳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 해야지! 농민이 도착때가 되어 들이닥쳤을 때에도 경주의 최부자 집은 피해를 입지 않았단다. 평소에 도움을 많이 받은 농민들이 스스로 지켜주었기 때문이었다.

추수한 것 중 일부는 가시나무로 짐승의 침입을 막거나 위장한 셈인데 그것마저 빼앗긴다는 것은 살살이 다 빼앗긴다는 말이다.

4. 불이 타면 불티가 위로 나는 것처럼 인생에게는 고난이 필연적이다. 이런 고난이 티끌이나 흙(자연발생이나 우연을 의미함)에서 나는 것이 아니란다. 그럼 어디서 나는 것인데?

인생의 우매함 때문에(2-5): 현재의 세상에 고난이 있는 것은 인생의 범죄함 때문이다. 그러니 엘리바스의 말이 근원적으로는 맞다. 문제는 욥의 경우는 좀 다르다는 점이다.

5. 직접 욥의 죄를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하게 말하면 엘리바스가 단도직입적으로 '고집부리지 말고 빨리 이실직고 하라'고 말하는 구절은 몇 절인가?

8절

6. 하나님께서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9)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그러면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는 것'(10)은 무엇이라고 제목을 붙일까?

시종여일하신 하나님의 통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일반은총이라고 해도 되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맞겠지만 변덕 없이 은혜를 내리신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제일 좋아 보인다.

7.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어떤 자에게 임하는가?

낮은 자, 슬퍼하는 자, 곤비한 자, 가난한 자(11-16): 관교한 자와 사특한 자와 대비되는 의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지금 욥이야말로 바로 이런 사람 아닌가? 엘리바스의 의도는 욥이 이런 사람이 아니니 이런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8. '아버지가 매를 드는 것도 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표현과 가장 가까운 표현은 몇 절인가?

17절: 징계도 복이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것(교육을 위한 채찍질)이야.

9. 하나님께 이실직고하면 어떻게 될까?

상처를 싸매시며 고치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셔서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하시며, 죽음에서 구속하실 것(18-20): 그런데 왜 너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은근한 질책이다.

10.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는 것은 아프게 하는 것이 심판이나 형벌의 선고가 아니란 뜻이다. 형벌이 아니면 무엇인가?

연단, 훈련: 형벌이라면 두들겨 패고 끝이다.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관심 밖이다. 욥의 고난은 그런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이니 불평하지 말고 참고 견디라는 말이다. 회개하라는 말보다 조금 부드러운 셈이다. 여섯 가지 환난이나 일곱 가지 환난이라는 표현은 각각 '모든', '어떤'을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다.

11. 재앙을 당하거나(19), 기근이나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전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사람인가(20)?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쓰신 재앙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참고 렘 5:1, 창 18:23-32). 그러나 대부분의 기근이나 전쟁은 사람들의 무모한 욕심이나 이기심으로 말미암으므로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때로는 의로운 자의 죽음도 있을 수 있다(히 11:35, 모세, 요나단).

12. 멸망과 기근을 초래하는 주범이 밭의 풀과 들짐승이다(22-23). 들짐승과 화친하면 멸망(죽음)을 피

할 수 있고 밭의 풀과 화친하면 기근을 피할 수 있다. 밭의 풀이 무슨 짓을 하길래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밭의 풀이 농사에 장애를 많이 주었기 때문: 풀이 많아서 농사지을 땅이 부족한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사람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이나 땅은, 서로 화친하며 사는 관계라기보다는 약육강식하는 관계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생겨난 변화다. 언젠가 모두가 화친하는 관계로 돌아갈 것이다(사 11:6-8, 호 2:18)

13. 옴이 엘리바스의 충고를 받아들이면(하나님께 이실직고 하고, 회개하고 인내하면) 재산, 자손,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말은 옳은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맞지만 옴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서 옴이 할 말이 있다. 그 정도는 나도 안다고 말할 것 같다. 상대방의 특별한 상황을 잘 배려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래서 위험하다.

옵기 6 장

1. 처음으로 보초를 서려고 나간 날이었다. 1시간 30분이면 교대해 준다고 했다. 시계가 없어서 시간을 몰랐지만 졸잡아 세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교대를 해주지 않았다. 별별 생각이 다 스쳐갔다. 졸병이라고 말뚝 보초를 세우는 건가? 욕이 나왔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몇 명이 건너뛰었는지도 모르겠다. 고참이 와서 교대를 해주었다. 내무반에 와서 보니 1시간 30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즉시 집으로 연락해서 시계를 보내달라고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옵이 견디기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인가?

고통의 크기나 끝을 알 수 없는 점: 고통도 크기나 기간을 미리 알면 견디기 쉽다. 어떤 사람이 밥 중에 바닥이 보이지 않는 절벽에 매달려서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줄을 놓았더니 바로 10cm 아래가 바닥이더라. 알았더라면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 일인데... 옵에게는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래서 좀 그랬다고 그렇게 핀잔이냐?(5:2)

2. 왜 하필이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워?

본래 모래는 많음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가끔은 무거움의 상징으로도 쓰였단다(잠 27:3).

3. 옵은 스스로 경솔했단다(3). 그래서 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달라지지 않는다(8-9 = 3:11-12): 달라지지 않는 것은 친구의 책망에 대한 동의라기보다는 비꼬는 표현 아닐까? 그래 니 잘 냈다?

4.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독화살을 쏘아댄다. 몸에 박힌 화살의 독이 영혼까지 집어 삼킨다.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온다(4).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죽고 싶다(8-9):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옵도 결국은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는 셈이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인간미가 없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은가! 중요한 것은 죽고 싶어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인다고 해도 전혀 원망이 없다(10). 다만 이유를 모를 뿐이다.

5.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옵이 또 무엇을 잃을 게 있다고 두려움에 떠는가(4)? 단순히 육체의 고통 때문일까?

재산과 자녀를 잃을 때도 답답했던 옵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제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옵 자신을 징계의 대상으로 삼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다. 재산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을 잃을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셈이다. 겐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가며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두려움이기도 하다.

6. 들나귀가 운다면 풀이 없는 것이고, 소가 운다면 풀이 없는 것이다(5) 그래서 어쨌다는 말인가?

나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러한 줄 아느냐? 하나님의 화살이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아프다. 이런 나를 미련하다고(5:2)?

7. 느닷없이 맛없는 음식 얘기를 왜 할까(6-7)? 문맥을 보면 아무래도 비유같은데...

엘리바스의 충고를 가리키는 말: 4:5절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라면 이어서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반박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다음 다시 자신의 심경을 표현하는 말 '죽고 싶다'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밥맛이 없어서 죽겠다는 뜻은 아니다.

8. 옵의 한탄을 듣고 있던 친구들이 '옳거니' 하고 꼬리를 잡았다면?

10절의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옵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다(9:2).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 11:1)고 말한 것과 같은 믿음이라고 본다. 자만심이 아니다. 그러나 친구들에게는 견방지게 들렸을지도 모른다. 엘리바스의 주장(4:7)에 대한 반론이기도 하다. 29절에도 반복된다!

9. 내가 풀이냐, 놋쇠냐? 그러면 원대?

넌들 별 수 없는 인간 아니냐? 힘도 없고 소망(=나의 마지막)도 없다. 나를 도와줄 자도 없고 지혜도 없다(13)! 그런데 친구라는 자식들이...

10. 어려움에 빠져 신앙마저 버린 자에게 우선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14)? 신앙부터 회복하라?

같이 아파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 괜히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지 말자. (갈 6:1)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11. 친구들의 변덕이 시냇물을 닦았다고? 시냇물이 어떻길래?

쉽게 말랐다가 쉽게 넘쳐 흐른다: 비가 오면 넘쳐 흐르다가도 비가 그치면 즉시 말라버리는 팔레스틴의 시내를 말하는 것이다. 사시사철 흐르는 우리나라의 강물과는 달리 팔레스틴의 강물은 변덕스럽다.

12. 15-20은 시냇물의 번덕을 말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눈이 그 속에 감취었을지라도’라는 표현은 물이 말랐다는 말인가, 물이 넘친다는 말인가?

눈이 시냇물 속에 감취었다니까 눈이 녹아서 시냇물이 되었다는 뜻이다. 결국 눈이 녹아서 넘쳐흐르는 시냇물을 가리킨다. 얼음이 녹는 것과는 같은 의미의 반복이고(검어진다 = 흙탕물을 의미함) 17절과는 대조를 이룬다. 옴의 친구들이 그렇더라는 말이다. 옴의 친구만 그럴까?

13. 때를 지은 껍들(=대상들)이 왜 시냇가로 다니다가(=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을까?

물을 찾으려고 길에서 벗어나 헤매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는다는 뜻이다. 자신들의 그런 행위가 부끄럽고 낙심스럽다(20). ‘데마의 때들’이나 ‘스바의 행인들’도 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다.

14. 허망한 자(21 = 아무 것도 아닌 자)란 쉬 마르는 개울과 같은 자를 의미한다. 그런 자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겉이 많다: 겉이 많으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다. 옴을 위로하려고 왔지만 옴의 고난이 상상 외로 극심한 것을 보고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징계라면 여차하면 자신들도 그런 꼴이 되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15. 드디어 옴이 친구들을 향해서 포문을 열었다. 22-30절을 요약하면 ‘내가 이런 것들을 친구라고...’ 정도가 될 것이다. 부분적으로 다음 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22-24: 내가 잘못된 게 뭐고?

25-26: 죽을 놈이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266, 대부분의 영역본은 ‘절망한 자의 말을 바람처럼 취급하려는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느냐?)

27: 친구를 팔아먹을 놈! 고아(아버지가 없는 자)를 제비뽑아 팔아먹을 놈들!

28: 나를 쳐다보라. 똑바로 쳐다보면서 거짓말 하겠냐?

29-30: 너희가 반성해라, 내가 언제 불의한 말을 했으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더냐?

엘리바스의 은근한 질책에 옴이 속이 썩 상했음이 틀림없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조금 과한 것 같다.

16. 25절의 ‘유력한지’(powerful)는 ‘고통스럽다’(painful)는 뜻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다. 어느 쪽이 옳을지 생각해보자.

전자로 해석하면 ‘진심으로 하는 말은 힘이 있다’는 뜻이 되고 후자로 해석하면 ‘맞는 말이 사람을 잡는다’는 식이다. 어느 쪽이든 약간 비난투의 말이 된다. 양쪽 다 가능해 보인다.

17. 옴이 친구들에게 돌이키라는 말은 무엇을 돌이키라는 말일까?

옴을 정죄하는 태도: 아무리 고난이 극심하다고 해도 내가 그 정도의 선악도 분간하지 못할 사람이냐?(30)

자신의 결백을 주장함(1-13),

친구들을 질책함(14-30 - 7:6)

엘리바스의 은근한 충고 4:7-9, 5:1 이에 대한 옴의 반발은?

친구들에게(6장), 청중들에게(7a), 하나님에게(7b)

옴기 7 장

1. 인생이 마치 전쟁의 날이나 품꾼의 날과 같단다(1). 이 둘이 어떻게 같은 것인지 본문의 다른 표현을 이용해서 설명해보자.

관고하고 수고로운(3) 날들의 연속: 인생은 고해와 같다거나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 친구들의 향해서 대답하던 옴이 일반적인 인생의 아픔을 잠시 언급하는 듯하다. 어차피 우리 인생이 이런 것 아니냐는 자조적인 발언이다. 고대에는 십 수년 동안, 혹은 젊은 시절을 통째로 군에서 보내야 했단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겨우 2년 남짓한 군대에서 사병들이 기다리는 제대는 어떤 의미일까?

2. 종이 저물기를 기다리는 것과 품꾼이 샅을 바라는 것에는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일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림: 죽기를 기다리는 것에 대한 비유이다.

3. 수고로운 밤이 걱정되었다고? 밤에만 고통이 찾아왔을까?

환자들에게는 밤이 더 고통스럽다. 낮에는 그래도 관심이 분산되어 덜 하지만 천지가 고요할 때면 아픔은 더 크게 느껴진다. 정신적인 고통도 잠 못 이루는 밤에 더 심해진다. 휴식과 평안의 시간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의 시간이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은 정말 괴롭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나 일어날꼬, 언제나 밤이 갈꼬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4, *My fill of tossing*). 피부에 조그마한 종기가 한두 군데 생겼다가 터지는 것도 보통 짜증스런 일이 아닌데 전신이 몇 달째 그 모양이라면(5)?

4. 옴의 날이 베들의 북 같이 빠르단다. 전쟁의 날이나 품꾼의 날과는 어떤 점이 닮았을까?

허무함(16): 빠른 것이나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나 다 허무한 짓이라는 뜻이다. 6절의 '소망 없이', 7절의 '한 호흡도 같은 의미이다.

5. 옴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찾지 못한다(8)? 하나님의 눈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망발 아닌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말 아닌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는 영적으로도 나약해지기 마련이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이것이 옴의 완전한 고백이 아니다. 19:27절을 보자.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신실한 성도가 말년에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하는 말은 심각하게 들을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6.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음부로 내려가는 것의 공통점은(9)?

회복불가(9-10): 다음 질문에서 계속.

7. 옴이 말하는 사후세계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후세계의 차이점이 있다면?

사후세계와 현실세계와의 고통: 옴은 전혀 고통이 불가능하다(눅 16:26)고 생각하는데 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졌던 점과 다르다. 저승에서 사자가 올라오기도 하고, 죽은 조상들이 현실세계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생각과 전혀 다르다.

8. 아무리 괴롭다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입을 놀려도 괜찮을까(11-12)?

그래야 한다: 진정으로 괴롭다면 누구에게 하소연할 것인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진정으로 매달리고 원망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도 그랬다(왕상 19:4). 억지로 참는 것은 가식이나 외식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께 진심을 드러야 한다.

9. 주께서 왜 바다나 용을 지키실까? 바다와 용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옴의 의도는 '아무 것도 아닌 나를 왜 이렇게 지키고 계십니까?'라는 말 같은데?)

함부로 날뛰는 위험한 존재: 바다가 흥용하면 위험하다. 여기서 바다라고 번역한 말은 큰 강을 가리키기도 한다. 평소에는 조용하게 흐르다가도 홍수가 나면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존재이므로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용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마찬가지다. 큰 뱀, 악어, 용 등으로 번역되는 바다 괴물이다. 옴은 자기는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피고 계십니까?라고 말한다. = 하나님을 향한 첫번째 질문.

10. 아무리 원망해 봐야 소용이 없다. 잠이나 자자 하고 누웠더니 그래도 안 되더라. 왜?

꿈 속까지 따라오셔서 나를 놀래키시니(14): 일을 열심히 하고 피곤해서 누우면 세상 모르게 자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누워서 뒹굴어도 잠들 수 없고, 잠이 들어보았자 온갖 악몽에 시달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11.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낫다는 말은 뼈만 앙상한 몸골로 살아 있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다는 말이다. '제발 좀 놔 주세요!'라고 비명을 지른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면 그랬을까! 옴의 이런 모습에서도 희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손을 부정하지 않는 한 절망은 없다: 아무리 큰 고통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으

며 여기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음을 확신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다. 옴은 단 한 순간도 하나님의 떠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18절의 '아침마다, 분초마다', 19절의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심, 침 삼킬 동안' 이런 표현들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12. 복음송으로 잘 알려진 가사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는 시 8:4절이다. 원래 옴이 부른 노래였을까?

아니다. 의미는 전혀 다르다: 시편은 감사찬송이지만 옴: 17-18절은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느냐는 원망이다. 시편은 하나님의 관심이 감격이지만 옴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엄청난 고통이다.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십니까? = 하나님을 향한 두번째 질문.

13.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공언하고 돌아다녀도 죄가 안 되는 수도 있단다. 소위 '불능범' 이란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말로, 즉 헛소리로 취급해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범 죄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는 옴이 말(20)이 맞지 않는가?

아니다. 영향이 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라면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애정을 쏟은 인간이기에 인간의 범 죄는 하나님을 몹시 고통스럽게 한다. 참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것이다. 옴이 하도 고통스러워서 역지를 부리는 것이지 옴이 범 죄한다면 하나님께 해가 된다.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역지다. 능력만 따진다면 하나님께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니깐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라고 말할 수 있다. = 하나님을 향한 세번째 질문.

14. 옴은 스스로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고 하더니(6:24-30) 여기서는 허물을 사하여 달라고 하네?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현재의 이 고통이 자신이 저지른 어떤 특별한 죄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다. 현재의 고통이 자신의 범 죄함 때문이라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신의 행동이 그 이전의 복을 누리던 때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고 말했지만 고통 가운데서 심한 말을 하기도 했고, 또 인간은 기본적으로 원 죄를 안고 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다. 친구들에게 하는 말(대체로 상대적인 말)과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절대적인 말)이 다를 수 있다.

15.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찾아도 찾지 못하실 거라고(21)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일까?

아주 귀여웠을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빠진 아이들이 하는 말 정도 아닐까? 내가 못 찾을 거라고?

욥기 8 장

1. 빌닷이 욥에게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라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2) 이유는 6:7장에 나오는 욥의 말 때문이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 두 구절을 고른다면?

6:21-23, 27 아닐까?

2. 요리를 하다보면 접시를 깨는 수도 있다. 접시 하나 깬다고 요리를 집어치울 수는 없다. 일을 하다보면 절차상 하자나 작은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본질은 접어두고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빌닷이 보았어야 할 본질은 무엇이며 절차상 하자는 무엇인가?

본질은 욥의 고통, 절차상 하자는 욥의 과격한 발언: 욥의 고통을 이해하고 어떻게든 위로했어야 한다. 반면에 엄청난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별은 말이 좀 과격했다고 해서 '광풍' 운운하는 것은 절차상의 작은 하자를 물고 늘어지는 꼴이다. 더구나 욥은 자신의 말꼬리를 잡지 말라고 부탁했었다(6:26).

3. 빌닷의 요지는 '빨리 잘못했다 해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곧 창대하게 될 것이다. 욥이 지금 바라는 것은 창대해지는 것이 아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판인데 먼 훗날의 장밋빛 얘기만 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선은 함께 아파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4. 빌닷의 말대로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욥이 이런 사실을 모를까?

안다, 알기 때문에 더 곤혹스럽다: 빌닷은 욥이 자기보다 수가 더 높은 상수라는 것을 모르고 하수가 상수를 꾸짖는다. 상수의 수준 높은 질문(순전한 자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나?)을 하수가 자기 수준으로 알아듣고 자기 수준의 대답(죄를 지었으니 그렇지)을 하는 셈이다. 상담자의 상황을 모르는 것은 제쳐두고 말뜻도 못 알아듣고 조언을 하는 옹감한 사람이 옛날에도 있었다. 빌닷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개 전부가 아니란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설령 맞는 말이라도 해서는 안될 말이 있다. 못 생겼다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사실대로 '못 생겼지 않느냐?'고 말해야 하나? 자녀를 잃어버리고 극한 슬픔에 잠겨 있는 자에게 죽은 자녀들이 죄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위로도 도움도 되지 않는다. 어떡하란 말인가?

5. 자녀들의 죽음에 대한 빌닷의 말(4)에 욥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죄에 대해서까지 면밀하게 자녀들을 살피며 제사를 드렸는데(1:5) 그들의 범 죄로 인해 그렇게 죽었다면 다른 집 아이들도 다 죽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6.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정녕 돌아보시고 형통하게 하시는가(5-6)?

맞는 말이지만 욥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7.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빌닷의 이 말은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경우에 아주 많이 쓰인다. 그럴 경우 욥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빌닷이 말하는 '미약한 시작'은 범죄함으로 고통받는 것이며 '나중의 창대함'은 회개한 자가 받을 복을 가리킨다.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빈다면'(5절) 그렇게 되리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사업의 미약한 시작과 창대한 끝은 범죄한 자의 회개와 회개한 자가 받는 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단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시작이니까 작은 것(땅금 싹이 튼 씨앗처럼)이고 열심히 노력하면 커질뿐(자라난 식물처럼)이다. 사업이 번창하라고 막무가내 식으로 인용할 구절이 아니다.

8. 빌닷이 보기에 하나님은 재판기와 같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반응이 기계적이니까! 기분이 좋으면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을 넣어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소위 인격이다.

9. 조상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식을 갖추기에 우리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는 말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다는 말은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 제대로 배울 틈도 없으니 조상에게 배우라는 것이다. 여기서 인생이 그림자 같다는 것은 단순히 허무함을 가리키는 뜻이 아니다.

10. 나름대로 지혜를 동원하여 욥을 공박하던 빌닷이 이제는 무엇을 동원하여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는가(8:12)?

선조들의 경험: 8-10절은 선조들의 경험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라면 11-12, 14-16절은 구체적인 내용이다.

11.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뉘었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11)?는 말은 '아니 댄 굴뚝에 연기나랴?'와 같은 말이다. 이런 말에 잘못이 있는가?

없다: 자연의 이치는 그렇다. 그런데 사람의 일은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 수도 있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기도 한다. 생명을 지닌 물고기는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지 않는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하물며 하나님은 더더욱 자연의 이치를 거스를 수도 있다는 점을 빌닷이 모른 탓이다. 빌닷이 오히려 옴을 괴롭게 한 것은 학문적 지식이나 지혜가 뛰어나도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부족한 탓이다.

12. 왕골이나 갈대가 어떻게 다른 풀보다 일찌기 마르지(12)?

수분이 있을 때는 무성하게 잘 자라지만 물이 마르면 즉시 말라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범위한 인생(13절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모습이 그렇다는 뜻이다.

13. 빌닷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를 왕골과 갈대 외에 또 어디에 비기는가?

거미의 집(=거미줄)과 뿌리 뽑힌 식물: 거미가 아무리 공을 틀어 집을 지어도 작대기로 한번 휘저으면 허사가 되고, 아무리 무성하게 자란 식물도 뿌리가 뽑히면 순식간에 마를 수밖에 없다.

14. 뿌리가 돌 가운데로 박고 들어갔으면 상당히 단단히 박혔으니 쉽게 뽑히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뽑히면 땅이 아는 체를 하지 않는단다. 이 모습이 옴과 어떤 점이 닮았는가?

악한 자는 잘 뽑히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뽑히면 모두가 자신을 버릴 것이다: 잘 나가는 악한 자의 모습을 설명하는 데는 좋은 비유지만 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비유는 훌륭했으나 적용대상을 잘못 짚었기 때문이다.

15. 식물이 뽑히고 나면 후에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난다는 것은 악인이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악인이 계속 나타난다는 뜻인가?

'그 자리가 식물을 모른 채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 즉 배신을 뜻한다. 악인이 연속해서 나타난다는 의미보다는 철저하게 멸망당한다는 뜻이다.

16. 빌닷의 이 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은 맞는 말인가?

크게 보면 맞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이 일시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이 세상이다(주기도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참조). 옴의 경우만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고난을 허락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빌닷의 말이 틀린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빌닷의 주장을 요약하면 옴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옴이 저지른 죄의 결과다(인과응보). 이것이 일반 원리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말하자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응용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적용시키다 보니 잘못된 적용한 셈이다. 바둑 용어를 빌리면 '한 관 뽐에 악수 없다'지만 기계적으로 뛰다가는 망하는 수도 있다.

17.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웃음으로 네 입에, 즐거운 소리로 네 입술에 채우실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빨리 회개해서 이런 날이 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빌닷의 말은 맞는데 옴의 경우에 맞지 않을 뿐이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에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말보다는 따뜻한 위로가 더 필요하다. 예수님도 배고픈 사람에게는 우선 먹이셨다.

옴기 9 장

1. 옴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의로우심(2), 지혜, 강함(4), 만물의 주관자(5-10), 불가해한 자(11): 이것이 옴이 절망하는 이유다.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나를 누르시니 나의 의로움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어디에 항변을 해볼 도리가 없다. 오직 그분의 은혜만 기다릴 뿐이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개념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면 옴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일이다. 다만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당한 그 아픔 이상의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몰랐을 뿐이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가!

2. 친구들의 주장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예, 8:20-22) 이에 대한 옴의 대답은?

나도 안다(2):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는 정도는 누구라도 아는 상식에 해당하는 얘기다. 권선징악 아닌가!

3. 옴은 스스로 의롭다는 말인가, 아니라는 말인가? 2절과 15, 20, 21, 23절을 비교해 보라.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그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옴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아무리 의로우더라도(15, 20, 21) 하나님과 자신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 개미가 표범에게 한번 뛰어보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옴의 답답함이다. 소위 '불능범'이란 게 있단다. 개미가 아무리 표범에게 죽어겠다고 떠들어대도 죄가 되지 않는단다. 자력 구원은 불가능하니 오직 은혜를 바랄 수밖에!

4. 옴의 생각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는 이유'가 친구들의 생각(4:21, 19-20, 5:6-7)과 어떻게 다른가?

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3-4, 11-14) 때문이라고 말하는 데에 반하여 친구들은 '인간의 연약함'에서 그 답을 찾았다. 이것은 큰 차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간과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은 마치 표범이 개미보다 빠르다고 감탄하는 격이다. 절대적 위대함이 아니란 뜻이다. 반면에 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위대하신 분으로 알았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를 비신앙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지켜주었다.

5.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수치로 나타낸다는 것조차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래도 '천 마디에 한 마디'라면(3) 비교 대상이 될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보자.

1000 대 1이라면 거리로 환산하면 1000cm 대 1cm 즉 10m 대 1cm이다. 비유컨대 대충 개미와 표범의 속도라고 본다면 도저히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같은 범주에 넣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라는 말이다. 개미를 천 마리, 아니 만 마리를 모아도 속도에 관한 한 표범 한 마리를 당할 수 없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도 인간과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본질적이거나 기보다는 양적인 차이라고 여긴다. 일종의 슈퍼맨처럼 여긴다. 동질인데 능력만 다르다는 뜻이다. 질적인 차이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차이다.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은메달 수 백개가 금메달 하나를 못 이긴다. 결과적으로 온전한 자나 약한 자가 일반이다. 표범 앞에 빠른 개미나 느린 개미나 마찬가지로 기껏해야!

6. 5-10절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찬송하자는 말인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찬송이 아니다. 이런 분이시니 내가 어쩌하겠느냐는 탄식이다.

7. 죄 없이 이런 고난을 겪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디에 하소연을 하면 되는가? 이에 대한 옴의 생각은(11)?

하소연할 곳이 없다: 그분은 '해야 할 수도 없고'(10) '찾을 수도 없다'(11). 임금님이 내린 명령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을 하소연할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옴의 절망이 이런 것이다. 그렇다고 임금님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8. 하나님은 기이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신다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무엇이 문제인가(11-16)?

만나야 물어보든지 따지든지 하겠는데 도무지 만날 수가 없으니... : 훗날 옴은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옴의 고민은 올바른 고민이었다. 13절의 '라합'은 바다 괴물을 가리키는 말로(사 51:9) 사단을 상징하는 말이다.

9. 비록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간구함(15)

10. 옴의 마음은 하나님을 상대로 재판이라도 받아보고 싶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19)?

누가 하나님을 재판정으로 불러내겠느냐? 불러서 심문이라도 할 수 있어야 따져라도 볼 텐데... 휴, 답답(24, 32)!

11. 옴이 불려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고 해도 자기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믿지 않겠다(16)? 빠진 건

가?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렵지만, 자기가 불러놓고도 하나님의 대답이 자기가 불렀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자신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을 알기 때문 아닐까? 공부를 잘 해서 좋은 선물을 사주셨다고 하지만 ‘공부를 못했더라도 사 주셨을 걸’이라고 생각하는 조숙한 아이 처럼!

12. 자신은 의롭고, 순전하지만(20, 21) 하나님 앞에 서면 스스로 죄인이 되고 만다(20).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절대자 앞에 서면 이런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정말 공부 잘 하는 아이가 박사님 앞에 선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 아이는 아이로서 잘 하고 있지만 아이이기 때문에 박사님 앞에서 빛을 잃고 있을 뿐이다. 절대자 하나님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가 아니라 범을 무서워하는 큰 강아지다. 선하다는 것도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22, 일이 다 일반이라 = 그게 그거지)!

13. 옴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다른 친구들이나 오늘날 현대인에 비해서도 수준이 꽤 높은 편이긴 하지만 견디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으면 굴절되기 마련이다. 22-24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하나님은 순전한 자나 무죄한 자도 돌보시지 않는다: 옴은 자신에게 임한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23). 순전한 자나 악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마찬가지로 아니냐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지만 은근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현상적으로 그렇게 생각 할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비록 자신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는 것도 일시적이며 제한적일 뿐이다(1:12, 2:6).

14.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세월이 빠를까(25-31)?

가장 빠른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핵심은 ‘허무함’이다: 복을 볼 수도 없고(25), 이런 저런 노력도 소용이 없다(27-28, 29-31).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뭘 어찌겠는가(29)? 깨끗하게 씻어도 하나님께서 개천(웅덩이, 시궁창, 합정)에 빠뜨리시니 날더러 어찌란 말이냐?

15.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옴은(32) 그래도 가느다란 희망을 내비친다. 누가 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물론 지금은 없지만 말이다.

중재자: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란 중재자를 의미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함을 옴은 느끼고 있는 셈이다. 물론 자기에게는 그런 중보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16. 옴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듯이 말했다. 선한 자에게 상을 베푸시고, 악한 자를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4:8-9, 8:5-7). 그런데 옴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것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한번 맞장을 떠볼 수도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세 친구와 생각이 다른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에게 닥친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최선을 다 하여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만큼 더 가까이 계시다. 다윗이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연유다.

옵기 10 장

1. 10장의 내용은 9장에 이어 계속되는 옵의 절망이다. 그런데도 다른 장으로 구분된 것은 내용상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일까?

대상이 다르다: 9장에서는 친구들이 대상이었지만 10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옵이 말을 한다. 친구라는 것들이 도무지 도움이 안 되니 거기다 대고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탓일까? 그래서 10장의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나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2. 원통하고 괴로워서 하는 말(1-9)의 핵심이 무엇인가?

나를 만드실 때는(3, 8, 9, 11) 무슨 이유로 만드시고 이제 괴롭히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2)? 우리가 몹시 고통스러우면 흔히 부모님을 원망한다.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옵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3. 장인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부수는 거야 당연한 일 아닌가? 그런데 옵이 쟁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3, 7)?

장인이 부술 때는 작품이 잘못되었기 때문인데 잘못된 작품에는 빛을 비추고(3) 제대로 된 자기(7)를 이렇게 부수다니? 2절의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도 같은 의미다.

4.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도무지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떤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가(4-6)?

하나님은 인생과 같이 실수하실 분이 아닌데 지금은 실수를 하는 것 같아 보인다: 인생은 잘못 보기도 하고(4), 멀리 내다보지도 못해서(5) 때로는 자백을 받거나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혐의자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삼상 16:7)는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6).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확신이다. 하나님의 절대주권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이 없음도 확신하는 점에서 옵은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다.

5. 옵이 악하지 않은 것과 옵을 주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다는 것(7)은 무슨 상관이 있는 표현일까?

옵이 악하지 않은 이유가 주의 손에서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 자신을 주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최선의 삶을 살았다는 자부심이 담긴 말이다. 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범죄에 빠지는 일이다.

6. 나를 만드신 분께서 왜 나를 멸하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하시는가(8-9)? 예전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이 너무 달라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11-17을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자.

예전의 하나님 = 나를 만드신 하나님: 가족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11-12)

오늘의 하나님 = 나를 치시는 하나님: 고발차처럼(14), 사자처럼(16), 군대처럼(17) 끊임없이 나를 치시는도다!

7. 옵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신 사실을 두 가지 방식으로 묘사한다. 한 가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만드셨다는 것이다(8-9). 10-12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신 내용이라면 방법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부모님을 통해서 자신을 만드시고 들보셨다: 10절은 수태과정을, 11절은 모태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묘사한 히브리식 표현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육신에 생명을 주셨고 권고(眷顧, 들보아줌)하셨다(12). 새번역은 10절을 '주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라고 번역했다.

8. 8-12절을 염두에 두고 13절을 풀이하면 '이렇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이러십니까?'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뭘 어쨌다고?

사냥하듯이(16) 나를 치시다니(17) 그것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14, 역설적으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도 갈등이 생기는 것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한다'고 인정한다(15). 옵에게 하나님은 이해도 안 되고 갈등만 주신다.

갈마들여: 서로 번갈아 들어

9. 옵에게 닥치는 고통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가(17)?

중인, 군대: 법정에서 자신을 고발하는 증인처럼, 적을 치는 군대처럼 고통이 끊임없이 밀려든다.

10.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옵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죽음을 바랍(18-22): 하나님! 차라리 나를 버려두옵소서!

11. 죽음을 바라면서도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잠간이라도 나를 버려두옵소서(20): 곧 죽음이 닥쳐올 것(=내 날이 적지 아니하니까)을 내다보고 있으면서 '숨이라도 쉴 틈이 없고 가게 나를 버려두십시오' 하는 것이다.

옴기 11 장

1. 세 친구가 옴에게 말한 서두를 비교해보자. 누가 제일 과격한가?

1) **엘리바스(4:2)**: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 이런 말을 하면 짜증스럽겠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구나!

2) **빌닷(8:2)**: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겠는가? 너무 거칠지 않느냐?

3) **소발(11:2-3)**: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픈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 그런 헛소리를 듣고 누가 가만히 있겠는가?

세 번째로 입을 연 소발이 앞의 다른 친구들보다 더 과격하다(2-3): 엘리바스는 비교적 점잖은 사람 같은데 소발은 과격하고 오만한 사람같아 보인다.

2. 소발이 옴을 책망하는 말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말이 많다(2): 실제로 옴의 답변이 길고 길었다(9-10장). 할 말이 많았을 것이다. 고래로 말이 많은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던가? 잠 10:19(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전 5:2-3(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등도 말이 많은 자를 어리석은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소발은 옴을 바보 취급하고 있는 셈이다.

(개인적으로는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적절하게 말을 잘 해야 한다. 입을 꼭 다물고 있어서 되는 일은 적다. 세일즈맨을 생각해 보라.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도 없이 서 있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별 의미가 없어도 말을 주고받으면 분위기가 좋아진다. 적절하게 말을 잘 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일이 더 현명해 보인다. 언어의 중요한 기능 중에는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기능도 있다.)

3. 소발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인가?

옴의 결백하다는 주장(4):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오묘함으로 그 앞에서 결백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벌을 받을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벌하심이 혹시 잘못이 있다고 해도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옴의 죄보다는 가볍다. 이렇게 성도를 비난하기는 쉽지만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고 말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옴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소발도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 만약 소발이 '나를 본받으라'는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뭐라고 했을까? 성도는 소발의 비난보다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옴의 자랑에 더 귀를 기울이고 따라할 수 있어야 한다.

4. 어려움에 처한 친구에게 행한 가장 과격한 표현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벌하심이 네 죄보다 경하니라(66): 설령 옴이 잘못해서 벌을 받는 중이라고 해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5.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고 일갈하는 것은 옴의 어떤 말(10장) 때문일까?

주께서 지으신 것을 이유로 없이 부수다니(10:3, 8, 9, 11)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는 선한 목적이 있을 터인데 이유로 없이(=결백한 나를)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옴의 말에 대해서 '네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는 것이다.

6. 소발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7-10)?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위대하신 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표현은 너무나 정확하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찬양만 한다면 우리를 향해서 애뜻한 사랑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재력이나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발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완전하지 않다. 옴을 앞에 두고 이렇게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굳이 따지자면 낙제점이다. 바울이 엠 3:18-19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를 구하였던 것과 비교해보라.

7. 12절의 '허망한 사람'은 원어상으로는 '골빈 사람'에 더 가까운 표현이다. 골빈 사람이 지혜를 갖기 바라는 것보다는 들나귀가 사람 낚기를 기다리는 게 낫다는 말이다. 이 말의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말이야 맞다, 맞는 말이 사람을 잡는다: 바르게 정죄하는 것보다 무식하게 사랑하는 것이 낫다. 적어도 형제요, 친구라면 말이다.

8. 소발의 견해에 따르면 어떻게 하면 옴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회개하면: 마음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13-14) 환난에서 깨끗이 벗어날 것이다(15-16).

9. 소발의 말, 특히 13-20절에 무슨 잘못이 있기에 후일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가?

없다: 나름대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들이 하는 말인데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옴이 옳다고 하는 것(42:7)은 고난당하는 친구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난당하는 형제를 질책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정죄하기보다는 함께 아파하든지 아니면 조용히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황에 알맞게 적용하는 것이다. 옴의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자신이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관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해답 아닐까?

참(諷): 아침하다

옴기 12 장

1. 2-3절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나도 안다(= 그래 잘 냈다) 소발의 비난에 대해서 '너희'라고 대답하는 것은 세 친구가 한통속이라는 것이다.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라는 말은 너희가 지혜를 독점하였다는 뜻으로 하나님 노릇을 하려느냐는 비난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정도 지혜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인양 떠드느냐? 소발이 자신을 들나귀로 비꼬았기 때문이다(11:12). 소발이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를 찬양하는 것은 옳다. 문제는 옴의 미련함을 물고 늘어진 것이 잘못이다.

2. 친구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음에도 옴은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 옴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가?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자(4) 그러므로 의롭고 순전한 자이다. 이런 자의식은 대단히 중요하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위험하다. 이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버티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3. 옴이나 친구들의 지혜는 어쩌면 대동소이해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지 모른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를까? <참고: 5절의 현대인의 성경 '평안하게 사는 자는 재앙당한 자를 멀리하고 재앙은 곧 넘어지려는 자를 기다리고 있구나'>

평안한 자와 재앙을 당한 자의 차이(5) 재앙을 당해서 형편없는 이웃도 실상 나와 별반 다르지 않거나, 못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평안한 자의 위로가 오히려 넘어지는 자를 떠밀어버릴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4. 옴의 반격은 "그렇게 잘 냈으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한 이유를 설명해 보라"는 것이다(6). 물론 친구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 우리는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인과응보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눈에 모순, 역설, 부조리처럼 보이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남의 자식이 10등을 하면 잘 했다고 말할 수 있어도 내 자식이 10등을 하면 야단치는 것과 비슷한 이치일 수도 있다.

5. 새가 아는 것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우스개로 뭐라고 하는가?

새대가리, 닭대가리! 말하자면 친구들을 향해서 '야, 이 들대가리들아!' 하는 셈이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불행하게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현실에는 너무 많다!

6. 친구들을 향해서 '물어보라'고 하는 대상이 하나가 좀 특이한데?

땅(8) 짐승, 새(7), 고기(8)들 중에 땅이 들어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아마도 '땅에 기는 것들'을 의미하는 말이 아닐까?

7. 자연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을 일반(자연)계시라고 한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모든 만물이 다 아는데(7-12) 도대체 왜 이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느냐?

8. 생물에게 혼이 있다고(10)?

이런 표현 하나를 보고 생물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떤 역본은 '만물의 생명과 전 인류의 호흡'이라고 번역했다. 혼이라고 번역된 '네페쉬'는 생명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의역들이 있는, 해석이 어려운 말이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생물에게 영혼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9.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7-25). 이 주제와 영똥하게 보이는 구절이 있다면?

11-12절: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은 입이 맛을 변별하거나 귀가 소리를 듣고 분간하는 것처럼 쉽게 알 수 있는 일 아니냐? 그리고 그 정도의 지혜는 늙은 자에게, 혹은 장수하는 자에게는 기본이 아니냐?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품을 잡고 그러냐?

10. 1-12절은 악인들의 흥왕을 예시하며 소발의 인과응보적 사고를 반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13-25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절대주권을 설명하는 것이 어떻게 소발의 잘난 체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될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다른 인간보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는 것이다.

11.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예만 들었다(17-25).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살리시고, 세우시는 좋은 측면이 더 많을 텐데 왜 이런 예를 들었을까?

옴 자신이 죄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주장하는 셈이다. 친구들은 정의로운 세상(권선징악, 신상필벌)을 노래하는데 반해서 옴에게는 부조리하고 모순덩어리 세상만 보이는 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의 탄식과 저항은 깊은 고난의 심연에서 분출되어진 자연스러

운 반응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마저도 막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12. 모사, 재판장, 열왕, 제사장, 권력있는 자, 방백들, 두목들이란 표현(17-25)은 아무나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높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들의 옷을 함부로 벗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18절의 '열왕의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왕복을 벗기고 다른 옷(또는 줄일 수도)을 입히는 것:

13. 충성된 자의 말(馬?, 言?)을 없이 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미할까?

충성된 자란 가장 높은 자의 부관이나 참모나 비서(대변인)란 뜻이다. 이런 사람은 상관을 대신하여 말이 많다. 때로는 대신 해명도 해야 하고, 설명도 해야 하고 전달도 해야 한다. 이런 사람의 말을 없애버리면?

요약하면: 엘리바스의 오랜 경험(5:8-27), 빌닷의 흑백논리(8:1-22), 소발의 정통적 교리(11:7-12)에 대한 옴의 반박(12:1-13:19)과 탄원(13:30-14:22).

욥기 13 장

1. 권한도 능력도 없는 말단 직원이 뻔한 설명을 계속하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속이 터진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정도는 나도 안다. 답답한 소리 말고 비껴라'(1-2)는 것이다. 욥이 친구들을 대하는 장면이 그런 셈이다. 이제 욥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과 직접 부딪혀야(3): 친구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위로하려고 찾아온 친구들의 말이 위로는커녕 답답하게만 한다. 돕는다고 하는 말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화만 더 돋을 수도 있으니 함께 아파해주는 것이 좋은 일이다.

2. 쓸데없는 의원이란 병을 고칠 능력이 없는 의원이란 말이다. 의사가 병을 못 고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모르겠다고 하든가, 자신은 고칠 수 없으니 다른 의사를 찾아가라고 하든지,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해야 할 텐데 욥이 보기에 이 엉터리 의사들은 거짓말이나 하고 다른 치료방법을 무시하기만 한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의사들이 한약이라면 무조건 쳐다보지 않거나 민간요법을 우습게 아는 것도 그런 탓 아닐까? 소위 전문가들이 비전문가들의 얘기를 쉽게 무시하는 것도 이런 탓이다. 자신이 전공한 분야 이외에도 진리는 아주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이런 협소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3. 욥의 친구들이 진정 지혜롭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입을 벌리기보다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분야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것만 말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용히 있는 것이 지혜다. 겉으로 보기에 아주 우아한 부인이 실제로는 무식하고 교양없음을 드러내는 데에 많은 말이 필요치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마디면 된다.

4. 친구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욥이 보기에 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말이 온통 불의, 궤휼이다(7).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불의한 말을 하게 되는 수가 있을까?

무식이 문제다: 예수를 오해한 사울처럼 몰라서 그렇게 된다. 만약 친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었다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은 욥을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책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역사상 얼마나 많은 전쟁과 싸움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분을 푼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을까?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지만 알지 못해서 그런 수가 참으로 많았다(눅 23:34).

5.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나?' '하나님께서 조사해도 자신 있지(9)' 이렇게 다짐을 받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모르고 행할 때: 결국 위의 대답과 동일하다. 자신이 거짓을 말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다짐을 받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욥이 보기에는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이 틀림없는데...

6. 친구들이 행한 '하나님을 위한 불의나 궤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욥의 죄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말: 실제로 이 세상에는 수많은 부조리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한다면(7-8) 하나님께 아부하느라고 현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식이다. 욥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에도 모순과 부조리가 있더라는 것이다.

7. '재'와 '토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별로 소용이 없는 것: 불이 다 타고나면 재를 치우는 일만 남는다. 흙으로 쌓은 토성은 허물어지기 쉽다는 뜻이다. 돌로 쌓은 성과 비교해 보라. 격언이란 촌철살인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데 너희가 그것을 재와 같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말로 만들어버렸다.

8. 14-15절의 뜻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136(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와 156(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를 참고해서 생각하면 핵심이 무엇인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겠다'는 뜻: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해답을 얻을 테니 너희는 재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만 두라는 것이다.

9. 16절의 '이것'은 앞 절의 내용을 가리킨다(원어상의 순서는 '이것이...'이 '사곡한 자는...'보다 앞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사곡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자기 구원의 이유가 되는가?

자신은 전혀 사곡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아뢰어 자신의 무죄함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랄까? 성도는 이런 확신을 분명하게 가져야 한다.

10. 욥이 친구들에게 입을 열면 책망, 반박, 열변을 토한다. 그 입을 하나님에게 돌리면?

기도를 드린다(20-28): 옴의 입에서 나온 말이 원망이 아닌 것이 복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다.

11. 하나님께서 거두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두 가지는 무엇인가?

주의 손과 위엄(21): 고향치는 어른에게 어린 아이가 ‘때리지 마시고 겁주지 마세요, 나는 겁이 많아요’ 하는 셈이다. 혹은 ‘소리 지르지 마세요, 살살 얘기해도 들을게요’ 하는 식이다(= 9:34). 옴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12. 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시면 꼭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이렇게 고난을 당할 만큼 제 죄가 많습니까?(23)

13.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닐 때 다윗은 자신을 죽은 개라고 표현했다(삼상 24:14). 옴은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는가?

날리는 낙엽, 마른 겁불(25), 썩은 물고, 즙먹은 의복(28): 이렇게 하찮은 나를 왜 쫓아다니십니까(25)?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에게 옴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었다. 25절의 ‘따르다’는 말은 사냥개가 사냥을 하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단어다. 14장 1-2에서 계속된다.

< 소감 > 옴의 친구들은 선무당이나 돌팔이 의사 같다. 반면에 옴은 감히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는 용기를 지녔다. 성도들도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기 전에 옴과 같은 당당함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옴이 절대적으로 당당하다고 자신하지는 않는다. 어린 아이같은 자세로 아버지께 따지고 드는 것이다. 자신의 부정함과 무능함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주권도 인정하면서 항변하는 자세는 착하면서도 당당한 어린 아들의 모습이다.

옴기 14 장

1. 6절까지는 13:20절부터 시작된 기도의 계속이다. 자신을 날리는 낙엽, 마른 검불(13:25), 썩은 물건, 썩먹은 의복(13:28)에 비유했던 옴이 여기서도 자신을 무엇에다 비유하는가?

시드는 꽃, 그림자: 인생은 그렇게 짧고 괴롭다.

2.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무엇하시려고 주목하시나이까(3)?

실제로는 그렇게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 옴이 보기에는 그러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생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 '각하의 관심사항'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력적인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꿀 만큼 위력적인 말이다. 하물며 하나님의 관심이 쏠린 인생이라면?

3.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요 3:6)라는 말씀과 통하는 옴의 말은?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4): '더러운 것 가운데서 어떻게 깨끗한 것이 나오겠습니까?'라고 번역하면 더 쉬울 텐데. 원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의로울 수 없다.

4. 옴은 인간의 연약함(1-2, 4)과 하나님의 절대성(5)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런 하나님께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

어쩔 수 없는 인생이기는 하지만 좀 쉬게 해주세요(6).

5. 품꾼이 그 날을 마치면 어떻게 될까?

그 날의 품삯을 받고 편히 쉰다. 비록 일시적일지 몰라도 쉴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 정도라도 쉴 수 있게 놓아 주십시오고 간청하는 셈이다.

6. 인생을 나무와 비교하면?

영원과 유한: 나무는 찍힐지라도, 줄기가 죽을지라도 다시 옴이 나서 자라는데 우리 인생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사람이 죽으면 소멸된다는 표현도 내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가련한 존재라는 점에 강조점이 있다.

7. 어떤 강이 인생을 닮았는가?

물이 말라버린 강(=근천)

8. 하늘이 언제 없어지는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한다는 말이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해가 서쪽에 뜰 때까지'라는 말이다.

9. 고통스런 현실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디에라도 숨고 싶은가?

음부: 신약에서는 음부를 지옥, 혹은 무저갱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지만 구약시대의 히브리인들은 죽은 사람들이 일시 머무는 곳(죽은 자의 대기소)으로 생각했다. 옴의 이 생각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이 세상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어떻게 다를까? 옴은 일시적으로라도(13절의 '기한을 정하시고') 이 고통을 벗어나 숨고 싶다.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을 찾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려는 의도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죽음으로 도망을 쳤는데 깨어보니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이라면 얼마나 놀랄까?

10. 자신의 인생을 왜 '싸우는 모든 날'이라고 표현했을까(14)?

자신의 인생을 전쟁터에 나간 병사나 병마와 싸우는 환자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놓여나는 것'은 '제대'나 '퇴원'을 의미한다. 죽어서 이 고난을 벗어나기보다는(14a =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만) 참고 인내하며 그 날을 기다리겠다는 말이다.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서 언젠가 벗어날 것을 기대하는 말이다.

11. 15절은 자신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날을 상상하며 하는 말이다. 주께서 부르시면 즐거운 마음으로 대답할 것이며 주께서 자신을 아끼실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나의 걸음을 세고 계신다(16a): 그러나 그 때에는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실 것이며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실 것이다(17).

12. 소망을 저버리지는 않지만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아프다. 소망이 무엇처럼 사라지는가?

무너지는 산, 옮겨지는 바위, 물에 닿는 풀, 홍수에 실려가버린 흙: 산이나 바위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조차 흩어져버리는 판에 연약한 인생 하나야 말해 무엇하는가?

13. 아들이 존귀하든지 비천하든지 아버지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소망을 끊으셨기 때문, 즉 죽었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은 그 후손이 어떻게 되건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자기 자신의 아픔만 있을 뿐(22):

옵기 15 장

15-21장은 2차 변론이다. 15장에서는 옵의 불경건함에 대한 정죄(1-6), 옵의 불손함과 교만함에 대한 비난(7-16), 악인의 고통(17-35)으로 문단을 나눌 수 있다.

1. 엘리바스가 보기에 옵의 지혜는 무엇과 같은가? 가장 대표적인 표현 하나만 고른다면?

동풍(=헛된 지식, 유조(有助)치 아니한 이야기, 무익한 말): 팔레스틴에 부는 동풍은 일종의 열풍으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준다. 옵의 말이 그렇게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는 말이다. 옵이 친구들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한 말(12:3, 13:2)에 대한 반론이다.

2. 엘리바스가 보기에 옵의 말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아서 어떤 위험이 있는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46): 신앙인의 비신앙적인 말은 불신자의 말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은 사실이다. 엘리바스가 옵을 오해하고 있으니 옵의 말이 이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3. 엘리바스는 무슨 증거로 옵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확신하는가?

증거는 없지만 옵의 말로 봐서(5-6): ‘증거는 없지만 뚜렷한 동기와 정황이 그렇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네가 하는 말을 보니 죄를 지은 탓이 틀림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짓이다.

4. 엘리바스의 비난에 따르면(7-8) 옵은 마치 무엇과 같은 존재인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 산이 창조되기 전에 출생한, 하나님의 모의를 들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비슷하거나 그 정도의 능력을 지닌 천사를 가리킨다고 보아야겠다. 옵의 대답에 대한 느낌을 조금 심하게 과장했을 것이다.

5. 논쟁에서 나이가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패배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사실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초점을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없다는 쪽으로 옮기는 일이다. 엘리바스가 나이를 언급한 것(10)은 무엇을 강조하려고 그러는가?

지혜: 연륜이 쌓여야 지혜가 생기는 것도 대체로 사실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젊은 사람보다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나이가 많다고, 선배라고 자기보다 탁월한 젊은이나 후배를 함부로 대하는 일이 적지 않다. 나은 것은 나이 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냉정하게 후배의 능력을 살필 지혜가 없다면 조용히 있는 것이 더 지혜롭다.

6. 잘 대해주면 기어오른단다(선생님, 군대 조교, 선배의 말). 그래서 처음에는 일부러 엄격하게 대하기도 한다. 그와 비슷한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작다 하는 것(11): 공갈을 치면 겁을 내고 위로의 말을 하면 만만하게 보는가? 오래 전 일이지만 아이들이 내게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오실 때 늘 웃고 들어오셨어요’ 했다. 그런 모습이 가장 좋았다는 말이다. ‘다른 선생님들은 웃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거의 웃지 않는단다. 엄숙하게, 굳은 표정을 짓고 교실에 들어가야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까?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학교, 교회가 되려면 ‘온유한 말’이 권위가 있어야 한다. ‘목사가 교인들과 너무 친하면 안 된다?’ ‘교회 일은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7. 우리는 누군가에게 반항을 하게 되면 못된 생각을 품게 되고, 그 생각이 눈이나 입으로 나타나는 마련이다. 엘리바스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12-13) 어찌하여 네가 마음에 끌리며(=악한 마음에 이끌리며) 네 눈을 번쩍여(=눈을 휘번뜬으며) 네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네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15:13): 회개하라는 데도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악한 짓이라는 것이다.

8. 선배가 똑똑한 후배를 향해서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고 따지면 언간히 똑똑한 후배라도 할 말이 별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말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의 기를 꺾는 나쁜 말이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이 있다면?

사람이 무엇이관대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관대 의롭겠느냐(14절): 말은 맞지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태도 없이 나대는 사람을 주저앉히는 경우에는 유용하겠지만, 진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독약과 같은 진실이다.

옵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것이 인간의 전적 부패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9:20). 단지 자기에게 일어난 비극이 친구들이 말하는 특정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9. 엘리바스는 일차적으로 옵의 지혜를 나이 먹은 자신들과 비교하고 또 하나님과 비교하여 비판한 후에 조상들의 지혜와 비교한다(18). 겸손하게 항복하라는 것이다. 조상들의 지혜가 무엇인가?

악인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것(20-31): 조상들의 지혜가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흘렀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두려운 분이시며, 두려움으로 섬겨야 할 분이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지혜가 이런 식이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류의 부정적인 말만 하게 된다. 그것이 지혜롭지 못할 때가 많다. 야단치거나 혼을 내야 할 때에도 차라리 격려하고 칭찬으로 용기를 북돋우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 엘리바스가 가르치는 말은 털 지혜로운 것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셈이다. 19절은 지혜로운 자들이 누린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가 외인들에 의해서 골절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지혜임을 강조하는 말이다.

10. 이전에 옴은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고 한 적이 있다(12:6). 엘리바스의 어느 말이 옴의 이 말에 대한 반박일 수 있을까?

악인은 평생을 고통 가운데서 지내게 된다(20) 어떡하나? 그것이 옴에게는 지혜로운 말로 들리지 않는데?

11. 악인에 대한 엘리바스의 말 중에(20-31) 옴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말은 무엇일까?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함(25) 옴이 이런 저런 탄식을 내뱉으며 원망의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모독하지는 않았다. 엘리바스의 편견일 뿐이다.

12. 불의한 자의 말로를 한 마디로 하면?

익기 전에 떨어지는 열매, 불타는 장막: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거나 후대에 가서는 그렇게 된다고 우길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이다.

13. 엘리바스의 요지는 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다. 철저하게 인과응보에 매인 생각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 세상인 것을 정말 모르는 걸까? 엘리바스가 정말 모르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는 단 한 가지의 원칙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나 목적이, 경우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공의, 사랑, 연단 등,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라도 적용하는 원칙이 다르면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악인에게도 선인과 마찬가지로 해를 비추시며 비를 주시는 하나님 이시다(마 5:45).

옴기 16 장

1. 옴이 많이 들은 이런 말이란?

친구들이 하는 뻔한 말: 즉 악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말.

2. 번뇌케 하는 안위자(위로자)란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더 아프게 하였음을 뜻한다. 딱딱한 바보'란 표현처럼 일종의 역설이다. 친구들이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말았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사랑없는 위로: '사랑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이런 구절이 있을까? 가장 비슷한 구절이 고전 16:14 이다. 교회가 양적으로 자라나서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반드시 타락의 길을 걸었다.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주원인 같다. 사랑으로 행하라.

3. 진지하게 고민하지도 않고 위로한답시고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오히려 더 번뇌케 하는 법이다. 친구들이 하는 말은 한 마디로 '뻔한 말'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옴의 표현은 무엇인가(1-5)?

내가 많이 들은 말(2), 끝없는 허망한 말(3), 나도 할 수 있는 말(4), 입술의 위로(=입에 발린 말, 5) 처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있는 것과 입에 발린 뻔한 말이라도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위로가 될까?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수많은 말 중에는 이렇게 뻔한 말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말이라도 해야 한다. 문제는 아무리 뻔한 말이라도 재난을 당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보다는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해야 이런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

4. '허망한'이란 히브리말로 '바람'을 뜻한다. 위로한다고 뱉어내는 친구들의 말이 바람처럼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무엇에 대한 반격인가?

옴의 지혜를 동풍이라고 한 것(15:2): 동풍이라고 비난한 것에 비하면 좀 약하고 하지만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의미도 없다는 뜻이다.

5. 만약 옴이 친구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가(5)?

격려, 위로: 나도 너희들처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격려하고 위로할 것이다. 친구라면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6. 상담자가 아무런 해답을 주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옴의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해답을 말해 주어도 옴의 근심이 풀리지 않았다. 왜 그런가?

친구들의 엉뚱한 해결책 때문이다. 차라리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더라면 나았을지도 모른다.

7. 나를 끈고케 하신 주께서 파괴케(=죽이신) 하신 나의 무리란?

옴의 가족:

8. 옴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옴이 죄를 지은 증거를 대라면 친구들이 어떤 증거를 댔을까(8)?

시들은 옴의 모습, 파리한 모양: 죄를 지은 증거가 무엇이냐고 항변하면 친구들은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옴에게 임한 이런 재난이 결국은 자신의 죄를 증거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꾸밈이다. 옴이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9. 옴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나 옴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가 성공할 것이란 근거를 본문에서 찾아보자.

친구들을 향해서 원망도 해보고 비난도 해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으면 옴의 시선은 또 다시 하나님을 향한다(7-16, 19-21). 나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에게 원망하듯 하다가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옴이다.

또 한 가지는 아무리 극심한 재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무죄성을 철저하게 주장하는 것이다(17). 실제로 옴은 그런 삶을 살았다.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던지는 한 두 마디에 멀쩡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지만 귀강한 가족은 웬만한 모략과 중상에도 끄덕하지 않는다.

10. 하나님께서 언제 뵈쪽한 눈으로 옴을 보셨으며 언제 무리들이 옴을 향해서 입을 벌렸을까?

옴이 고난을 당한 때: 옴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니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대적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가 싶은데...

11. 하나님께서 옴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다고 생각하는가(12-15)?

전쟁 중에 적을 공격하듯이: 짐승을 잡는 것처럼, 광택처럼 다루신다. 자신이 당한 고난의 원인을 알지는 못해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11).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옴이다(17).

12. 땅이 피를 가리우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마찬가지로다. 옴이 땅을 향하여 왜 증거를 없애지 말라고 하는 걸까(18)?

훗날 변백하는 날에 증거가 있어야지: 친구들이 증인이 되면 될 텐데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놈들이 증인으로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르짖음이 쉴 곳이 없다는 것은 현장보존에 해당하는 것 아닐까? 그만큼 원통함을 풀 날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셈이다.

13. 하나님께서 자기를 원수처럼 공격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증인이시요, 보인(보증인)이시라(19)고 말할 수 있을까?

두들겨 패다가도 서로 끌어안고 우는 경우나, 밭고랑 양탈을 부리다가 품에 안겨 우는 아이처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장면에서 옴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성부 하나님의 일과 성자 예수님의 일을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구별이 불가능한 옴이 보기에는 둘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옵기 17 장

1. 16장 후반부(19-21)에서 옵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그러면 이어지는 본 장에서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텐데 3절만 제외하면 다시 절망으로 퇴보한다. 말하자면 논리적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셈인데 왜 그럴까?

그만큼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논리정연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렵다. 되는 대로 퍼붓는 것이 정상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는 논리보다는 무조건적인 동정이 더 바람직하다. 우선 급한 것이 함께 아파하는 것이다.

2. 친구들의 위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해도 희망이 없다. 그러면 남은 마지막 일은 무엇인가?

죽어야지(1): 옵은 죽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아야 한다.

3. 이 부분(1-5)이 16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 보증물을 주실 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보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동일한 문맥이다.

4. '손을 칠 자'란 무슨 뜻인가(3)?

보증인이 되는 것: 문맥상으로 그렇다.

5. 하나님께서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3)을 보면 옵이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옵의 무죄함에 대한 보증: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보증인이 되어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옵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어야 할 친구놈들이 거꾸로 자신을 죄인으로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와줄 것을 기대했던 친구들에게 오히려 비난과 정죄를 당하면 얼마나 아플까?

6. 아무리 친구들이 아픔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자식의 눈이 멀기를 바라는 것은 심하지 않은가?

당시의 속담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표준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비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속담도 있지 않느냐?'는 의미일 것이다.

7.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옵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을 6-9절에서 하나 고른다면?

6절의 '하나님이': 어쨌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인정하는 표현이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놓치 않으면 반드시 희망이 있다.

8. 사람들은 남의 곤경에 대해서 공감하며 아파하기보다는 조롱하기를 대단히 좋아한다. 특히 옵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멋진 안주거리다. 그런 말을 듣는 옵의 형편은 어떠한가(7)?

눈앞이 캄캄하고 전신이 무기력함: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나면 육체마저도 힘을 잃어버린다. 그림자는 허무함이나 연약함을 의미한다.

9. 8-9절은 다소 애매한 점이 있는 모양이지만 대체로 '정직자, 무죄자, 사극한 자, 의인, 손이 깨끗한 자'는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지 생각해보자. (9절의 '그러므로'는 '그럼에도'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정직자, 무죄자는 친구들을, 사극한 자, 의인, 손이 깨끗한 자는 옵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친구들이 옵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옵은 결국 힘을 회복하게 될 것이란 말이다.

10. 어쩌면 말할 힘도 없는 형편이 아니었을까? 육신의 고통이 심해지면 신념도 흔들리게 마련인데 친구들의 철저한 비난에도 옵이 악착같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

너희는 지혜자가 아니다(10): 내가 죽을 형편에 처했다고 해도 너희의 말이 옳지 않다. 옵은 이런 확신을 가질 만큼 자신의 결백을 굳게 믿었다. 그럴 만큼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을 살아 있는 순교자라고 불러도 이의가 없다.

11. 친구들의 생각이 틀렸고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가졌음에도 옵은 또 낙심하고 절망한다(11). 위로하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헛소리를 하는가(12)?

빛이 가깝다, 죽 곧 낮이 온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이다. 이런 말이 옵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12. 13절의 '내 소망'이라는 말은 차라리 없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다. 영역본에는 13-14절에 If가 세 번 나온다는 점을 참고해서(원문에는 13절 초두에 하나뿐) 쉽게 번역을 시도해보자.

만약 저승을 집으로 삼고 (만약) 어둠을 침대로 삼아 (만약) 무덤을 아버지, 시신을 파먹는 구더기를 어머니, 누이라고 불러야 할 판이라면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절절하게 표현한 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절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3절과 6절 참고). 이해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는 소망

이 있다.

13. 옴은 여러번 죽음을 노래했는데(3:11-19, 6:8-13, 7:15-16, 10:18-22, 14:13-15) 여기서도(17:11-16) 또 죽음을 소망하고 있다. 자살하겠다는 의미일까?

죽어야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죽을 마음이 없다: ‘죽겠다’고 소문을 내면서 가방에 쥐약을 넣고 다니는 아이가 있었다. 친구들이 말리고 담임선생님이 좋은 말로 달래고 달래도 툭하면 쥐약을 사서 가방에 넣고 했다. 그 보고를 들은 교장선생님이 아이를 불러서 쥐약을 직접 먹여주겠다고 나서니까 아이가 항복하고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 그 교장선생님 말씀이 진짜 죽을 아이는 그렇게 표시를 내지 않는단다.

옴에게 있어서 죽음에 대한 소망은 단지 모든 아픔의 끝을 의미할 뿐이다. 고통의 탈출구라는 의미로 죽음을 언급했을 뿐이다. 그러나 옴도 더 이상은 죽음을 언급하지 않는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욥기 18 장

< 빌닷의 두 번째 변론 >

1. 빌닷이 책망하는 대상은 '너희'다. 자기만 빼고 다른 친구들까지 도매금으로 비난하는 것일까?

내용을 보면 너희란 말 속에 다른 세 친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욥을 악한 자들의 대표로 보고 말하는 셈이다. 욥의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포함한 모든 악인들의 말로에 대해서 일반론을 제기하는 것이다.

2. '말을 찾겠느냐'는 것(2절)은 '말에 울무를 놓는다'거나 '말을 사냥한다'는 뜻이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떤 표현이 적당할까?

말꼬리나 잡느냐는 비난: 욥의 대답을 진정어린 마음으로 들지 않았다. 그래서 말을 그만하고(대부분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였음) 우리의 충고를 듣고 좀 깨달으라고 빌닷이 나섰는데, 충고가 좀 시원찮다.

3. 욥이 언제 친구들을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했는가?

욥이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빌닷이 그렇게 느꼈을 것: 설령 욥이 좀 심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해 줄 수도 있을 텐데 그걸 따지자니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4.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해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그러면 세상이 좀 달라지는가? 빌닷의 견해는?

한국 사회에서는 좀 달라지는 모양인데 서양에서는 소용이 없는 것 같더라: 빌닷의 견해는 그런다고 땅이 버려지고 바위가 옮겨지나? 자연법칙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욥의 많은 그 말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짓이라는 것이다. 말은 맞는데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운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니?'라고 위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실컷 울라고 등을 두드려 주는 것이 낫다.

5. 빌닷은 악인의 말로에 대해서 길게 서술하고 있는데(5-19) 악인의 말로를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라진다: 악인은 빛처럼 환하고, 불꽃처럼 찬란해도 결국은 꺼지고 말 것이며(5-6), 힘이 있다 해도 쇠하여져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7-10),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14-19).

6. 악인에게 힘이 있는 것이 왜 비극인가?

그 힘 때문에 결국은 울무에 얽히기 때문(8-9): 차라리 아무 것도 없었더라면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재산이나 권력이 도리어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7. 7-9절은 악인을 무엇에 비유한 셈인가?

뒷에 치이는 짐승: 그물은 새나 짐승을 잡을 때 쓰는 것, 얽는 줄은 함정을 파고 그 위를 덮는 데 쓰는 그물, 창애는 뒷, 동일 줄은 울가미를 가리킨다. 악인이 가는 길에는 온갖 그물과 함정과 뒷이 숨겨져 있다. 사냥당한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악인도 그렇게 사라질 것이다. 욥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단다. 내 참!

8. 악인에게는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는 것이 쫓아온단다(11) 이것을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가?

도둑이 제발 저린다? 시골 한적한 마을에 아주 튼튼한 집을 짓길래 마을 사람들이 왜 저럴까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 어떻게 보면 탈출이 불가능한 감옥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 주인의 업이 도둑이었다.

9. 악인을 징벌하는 것이 무엇인가(11-14)?

무서움(=죽음), 기근, 재앙, 사망의 장자(=죽음을 초래하는 질병), 무서움의 왕(=죽음): 사망의 장자란 말은 질병을 가리킬 수도 있다.

10. 악인이 징계를 받아 사라지면 무엇이 남는가?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 흔적도 없다: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는 사람이 아니라 들짐승을 의미한다. 유향이 그 처소에 뿌려진다는 것은 사람이 살지 못 하도록 황폐화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썩힌다는 것은(16) 멸족을 당한다는 뜻이다. 욥의 가정이 완전히 말살된다는 말이다. 후손이 없다는 것은 치욕 중의 치욕이었다. 한 마디로 광명에서 흑암으로(18)!

11. 빌닷이 처음 변론한 8장에는 있었지만 18장에서 사라진 내용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소망이나 회복에 대한 내용(8:5-7과 8:20-21): 하나님께서 욥을 심판하신 것을 보면 모든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다. 회복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거의 저주 수준이다. 빌닷이 욥의 대답에 화가 몹시 난 모양이다.

12. 악인의 말로에 대한 빌닷의 말은 옳다. 그럼에도 이것은 친구를 향한 말처럼 들리지 않는다. 무엇이 문제인가?

욥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다: 욥은 그런 악인이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옳은 얘기라도 구체적인 상

황에 기계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13. 빌닷이 보기에 옴은 정말 답답한 사람이다. 친구들의 권면을 새겨듣지 않고 꾸역꾸역 대꾸하는 (16-17장) 이 답답한 친구에게 멋진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빌닷이 다른 친구들보다 나아보이지 않는다. 아예 옴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치부한다(21). 오히려 가장 어리석은 자 같아 보인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건질 텐데...

옴기 19 장

1. 친구들이 옴을 위로하려고 말을 꺼냈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의 말이 옴에게 위로가 아니라 무엇이 되었는가?

학대: 위로한다고 한 말이 옴을 번뇌케 하며, 산산조각으로 부수어버린 셈이 되었다. 그래서 옴은 단도직입적으로(16:1-3) 친구들의 변론이 무자비하다고 힐책한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사람을 실망케 하는 일도 많다. 의도도 좋아야 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 혹은 능력도 필요하다. 흔히 말하기를 사람은 좋은데 실속이 없다는 것도 비슷한 경우일 것이다.

2. 친구를 이렇게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않다니(3)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이 다르기 때문 = 옴의 생각일 뿐: 친구들은 옴을 학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겠다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학대라니? 비록 아프더라도 돌이키게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일도 예사롭게 행하게 만든다.

3. 허물이 내게만 있다는 것(4)이 무슨 뜻일까?

혹 허물이 있다고 한들 그게 너희들에게 무슨 해를 끼쳤다고 이렇게 나를 들볶느냐?

4. 옴의 말은 허물이 있다는 말인가 없다는 말인가?

없다는 말: 옴이 처한 현실이 친구들이 보기에는 허물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겠지만 옴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물이 있다고 하니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럴 만큼 옴은 자신의 행위에 자신이 있었다.

5. 친구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는 하나님께서 옴을 그물로 에워싸셨단다(6). 물고기나 짐승을 잡듯이! 7-12는 하나님의 징계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 셈인가?

전쟁터의 적군: 아무리 부르짖고 간구해도 적군에게는 소용이 없다. 것처럼 대답도 없이 나를 포위하고(10, 12) 누르시고 계시니 답답하지만 참을 수밖에! 실제로는 적군이 아닌데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다니...

참고 < 포박 = 학대, 내 길을 막아 = 길에 울타리를 세움, 첩경에 흑암 = 길에 지뢰를 매설함, 철으 시니 = 성벽을 허무, 나무 뽑듯 = 장막의 말뚝을 뽑음, 길을 수축하고 = 성벽에 이르는 경사로를 쌓음 >

6.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판에 많은 사람들이 옴을 떠났다(13-14). 진정 위로가 필요한 시점에 다들 떠나버렸다. 누가 어려움에 빠진 옴을 돌아보지 않고 떠났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생각해보자.

형제들, 친척, 가까운 친구: 혼자 살면 되지? 사람은 묘하게도 혼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다워진다. 세상에 홀로 버려진 느낌? 군중 속의 고독? 이게 얼마나 만만 한 고통일까?

7. 온갖 부와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옴이 얼마나 비천하게 되었는가?

계집종에게마저 무시당하고 어린아이들마저 조롱함: 아마 옴의 집안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이가 계집종이 아니었을까? 이런 계집종에게조차 사정해야 했으니... 버릇없는 아이들이 많은 지금이야 아이들이 어른을 조롱하기도 하겠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8. 부부는 일심동체라? 그래서 서로의 단점마저 거부해서는 안 된다? 입 냄새가 나도 입을 맞출까? 술 냄새가 뚝뚝 나도 잡자리를 함께 할까? 왜 옴의 아내가 남편의 숨을 싫어했을까?

아마 숨쉴 때마다 악취가 났기 때문 아닐까? 입 냄새가 나는 신랑이 입을 맞추자면 '양치질부터 하고 오라'고 떼미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옴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했을 것이다.

9. 옴의 불행을 동포들마저 싫어한다고? 동포들이란 단어의 히브리말은 '나의 태의 아들들'이라는 말이다. 옴의 자녀들은 이미 다 죽었다. 그러면 이 표현은 누구를 의미할까?

대부분의 역본들은 친형제라고 번역함: 나의 (어머니의) 태의 아들들'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그 편이 자연스럽다.

10. 피골이 상접한 사람을 멀리서 보면 제일 잘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

하얀 이빨 아닐까? 피골이 상접하여 누워 있는 옴은 허연 이빨만 드러낸 채 볼품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러면서도 악착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옴의 복이다.

11. 신세한탄 내지는 하소연을 하던 옴이 갑자기 자신의 말이 들에 단단히 새겨지기를 바란다. 무슨 목적으로 자신의 말이 보존되어야 할까?

자신의 말이 옳았음을 증명할 날이 올 것이기에: 기록을 남겨두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말했는지 정확하게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다. 상황이 달라지면 사람들의 말이 다 다르고, 해석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12. 연이란(24) 납을 의미한다. 이것이 영영히 들에 새기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단단한 곳에 글씨를 철필로 새기고 거기에 납을 부어서 굳히는 것이 고대의 문서 보관법 중의 하나였다.

13. 구속자란 '기업 무를 자'를 뜻한다. 어려운 사정으로 팔려간 가족이나 토지를 대신 사주어야 할 가까운 친족을 가리키는 말이다(고엘 제도, 룻 4:1-12, 레 25:23-55). 옴에게 있는 구속자(25)는 누구일까?

하나님(26) 하나님만이 자신의 고난,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분이라고 확신하는 말이다. 자신에게 닥친 이 모든 고통과 재난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도 알았고, 그것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았다. 그런 신뢰가 결국은 이런 아름다운 고백으로 이어진 것이다.

옴이 의도했던 것 같고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암시로 옴기의 절정이라고 일컬어진다. 이 구절을 근거로 '내 주는 살아계시고(메시아 45번, 찬송가 170장)'라는 찬송이 불려진다. 이런 놀라운 생각이 가장 고통스러운 옴을 통해서 계시되었다는 사실 또한 놀랍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가장 큰 고통도 결국은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진주조개가 상처를 통해서 진주를 만들듯!

14. 옴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도와줄 자를 찾고 있었다. 9:33, 16:19-2, 19:25에서 자신을 도와줄 자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자.

9:33절에서 중재자, 16:19-21에서 증인(변호인), 19:25에서는 구속자가 나타날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역할을 맡은 분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점이다. 자신에게 닥친 이 엄청난 고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투정도 부려 보지만 결국은 그 분이 이 모든 것의 해결책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옴의 신앙이다.

15. 문드러져 가는 육체를 보면서 옴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신약적인 표현으로 설명해 보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란 신약식으로 말하면 불완전한 몸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몸을 덧입는 것을 말한다(고후 5:1-7) 이것은 하나님과 제대로 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16. 하나님을 생각하면 소망이 있지만 시선을 돌려 친구들을 보면 속이 터진다. 친구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며 그 결말은 어떠하리라고 하는가?

친구들이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꼬?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고 한다는 것이다. 이 고통의 모든 원인이 옴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욥기 20 장

1. 욥에게 말하는 태도를 비교하면 소발이 빌닷보다는 낫다. 왜 그런지 18:2-4과 20:2-3을 비교해보자.

소발은 최소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도 설명하고 시작하니까! 반면에 빌닷은 서론도 없이(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치달아서 욥을 책망해버렸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도저히 친구를 상대로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뚝뚝하고(11:12-20과 같은 형식상 격려의 말도 없음) 무례하다.

2. 소발의 마음은 초급(=몸이 달아서 급함)하고, 부끄럽다. 무슨 말이든지 해야 한다. 자신의 슬기로움이 자신을 점잖게 내버려두지 못한다. 소발의 이런 성품을 잘 보여주는 반복되는 단어 하나를 2-3절에서 찾아보자.

나(세):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과 논리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 욥의 어리석음을 보니까 자신의 슬기로움이 참지 못한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자신의 생각 일 뿐이고, 실상은 그렇게 슬기로우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지 세 번째 대화(22-31)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3. 욥의 답변에 대해서 소발이 하는 말은 어딘가 초점이 맞지 않는다. 욥도 악인이 번성하고 잘 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친구들은 악인이 번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유창하게 설명하기 때문이다. 욥이 '누가 뭐라 그래?' 할 것만 같다. 소발이 지혜롭다면 욥의 답변에 대해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욥이 악인이라는 것: 친구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욥은 '나도 그 정도는 안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 문제는 자신이 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소발은 여전히 욥을 악인으로 단정하고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설명하는 것이다. 논리적인 설교가 설득력이 더 있는 반면에 논리적 비약이 심하거나 비논리적인 설교는 그만큼 힘이 없다.

4. 소발은 자신의 주장이 정당한 근거를 어디에서 찾는가?

기나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것: 사람이 창조된 이래로 악인의 형통함은 명이 길지 않았다는 것이다. 글썽, 욥이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데도...

5. 빌닷은 악인의 말로에 대해서 '사라진다'는 표현을 썼다. 그러면, 소발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무엇이냐고 말하는가(4-11, 21)?

길지 않다(5): 풍(7), 꿈, 환상(8)처럼 곧 버려지거나 잊혀지는 것이다. 다시 보고 싶어도 다시 볼 수 없는 것이다. 재물도(10) 건강도(11) 마찬가지다.

6. 악인이 잘 나갈 때 자랑해야 할 별 소용이 없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

승리의 기쁨(5), 권세(6), 재물(10), 건강(11): 건강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큰 병으로 갑자기 쓰러지기 쉽고 노름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단다. 악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많이 끌어모아 봐야 자식에게도 물려지지 않는다. 권불십년이라는 말로 권세가 오래 가지 않는다고 말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만고불변의 진리다. 뻔한 얘기를 소발은 자신의 슬기로움이라고 여기고 거칠게 쏟아내고 있다.

7. 악한 사람들이 악한 짓을 계속하는 것은 그것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다. 맛있다고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12-14)?

독사의 쓸개: 고대인들의 생각에는 독사의 독이 가장 썩 것인데 거기다가 가장 쓴 쓸개라는 표현을 겹쳐 씌우므로 가장 강한 독을 의미한다. 요즈음 현상으로 보면 과도하게 살이 찌는 것이 바로 독사의 쓸개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던데!

8. 욥이 재난을 당하여 재물을 다 잃어버렸다. 그런 욥에게 '악인이'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15)라고 말해도 될까?

이런 사람을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욥이 그런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친구로 지낼 수가 있는가!

9. 꿀과 엉겅퀴 젖이 흐르는 강이라면(17) 뱉뱉해서 제대로 흐르지도 않을 것이고, 강도 강 노릇을 제대로 못할 텐데?

강이 별로 없는 지역에서 가장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강수량이 풍부하고 강물이 사시사철 흘러가는 지역의 관점에서 볼 일이 아니다.

10. (Nonsense Quiz) 하나님의 진노가 특별히 무서운 것이라는 이유가 무엇인가(23)?

밥 먹을 때 쏟으시기 때문: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데... 소발의 의도가 욥의 자녀들이 식사 중에 죽었음(1:18)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면 정말 나쁜 친구다. 친구라면서 이렇게 허파를 뒤집는 말을 하는 수가 있을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러더라!

11.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는가?

철 병기(아마도 칼) 낫활, 캄캄함,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아마도 번개) 적군을 동원하시거나 자연현상을 통해서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뜻이다. 욥이 이미 당한 재난도 이 범주에 드는 것이다. 물론 소발의 의도지만!

12. 욥이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소발은 누구를 증인으로 삼는가?

하늘과 땅(27) 하늘과 땅은 서로 우기는 사람의 편인가? 욥이 자신의 무죄성을 언급할 때 하늘과 땅을 언급한 적이 있다(16:18-19). 이제 소발은 하늘과 땅이 욥의 죄를 증명할 것이라고 한다. 고대에 하늘을 두고 맹세하던 것 때문에 이런 표현이 쓰인 걸까(신 32:1-2)?

옴기 21 장

1. 친구들이 왜 위로가 필요한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너희의 위로'에서 너희를 목적격으로 보면 친구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뜻이 된다. 위로하려고 찾아와서 거꾸로 번뇌케만 하고 있으니 옴이 위로해 주겠다는 뜻이다. 그러면 '내 말을 잘 들어보게 그러면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일세'라는 의미다(=내가 너희에게 주는 위로).

그러나 '너희를' 주격으로 보면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이 나를 위로하는 것이다'라는 뜻이 된다(=너희가 내게 주는 위로). 원래 소유격은 의미가 다양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은 문맥을 따를 밖에 없는데 양쪽이 다 가능해 보인다. 양쪽이 다 화가 난 상태이니까.

2. 옴이 만약 어떤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이라면 마음이 이렇게까지 녹아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투로 말한다(4).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에게 원망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녹아내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이 내게 해를 끼치는 것이야 걱정할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피할 방법도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람은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은 두렵다! 당장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보라. 무슨 할 말이 있는가(5-6)!

3. 친구들이 생각하는 악인의 삶과 옴이 생각하는 악인의 삶이 다르다. 7절과 8절이 친구들의 주장과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 보자(15:20-35, 18:19, 20:10)

악인의 수명이 짧다는 엘리바스의 말(15:33-35), 악인의 후손이 끊길 것이라는 빌닷의 말(18:19), 악인의 재물이 길게 가지 않는다는 소발의 말(20:10)에 대한 반론이다. 옴이 보기에는 친구들의 말처럼 악인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더라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든 이론은 친구들 쪽인데 현실은 아무래도 옴 쪽이다. 악하다고 반드시 벌을 받고, 선하다고 반드시 복을 받는 기계론적인 세상은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만드셨을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기계처럼 돌아가는 세상을 상상해 보라. 무슨 재미로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만드실까? 골치 아픈 마누라 대신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로봇트와 산다면 어떨까? 그게 소원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 인생이 너무 불쌍해진다.

4. 옴이 보기에는 '악인이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고 악인의 씨가 굳게 서더라'는 것이다(7-8). 악인의 형통함을 노래하는 것(9-13)을 반대로 보면 무슨 뜻인가?

의로운 자신은 곧 죽을 판이고, 자식들마저 깨끗하게 사라져 버리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는 역설적인 반항이다.

5. 악인이 누리는 복은 가축의 번성, 아이들의 즐거움, 그 외에 또 있는가?

경각간의 죽음: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더라는 것이다. 옴이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전부 자신의 형편과 대비되는 것이다. 가축과 자녀들은 물론이고 죽음도 그러하다. 자신은 온갖 고통 속에서 죽지 못해 살고 있다. 반면에 악한 자들은 아무런 고통도, 병도 없이 죽을 때가 되어 잘도 죽는구나!

6. 소고와 수금과 피리를 현대 표현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

관현악이 어떨까? 소고는 타악기, 수금은 현악기, 피리는 관악기다. 현대의 오케스트라와는 규모가 비교될 수는 없겠지만 이 세 종류의 악기가 어울리는 것은 엄청난 기쁨을 주는 것이다. 세상에, 악인들이 저렇게 즐거운 인생을 보내는 동안 의로운 옴은 상처를 기와로 굽으며 신음 소리나 내고 있으니...

7. 온갖 복을 다 누리며 즐거운 인생을 사는 자들을 왜 악인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14-15). 그렇게 즐거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데도 모른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다. 무슨 이익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다.

8.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말하다가 문득 옴이 자신을 악인과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가(16)?

악한 자들은 그들이 누리는 복이 자신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 즉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긴다. 반면에 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믿는다.

9. 친구들이 말하는 악인의 말로에 대해서 옴은 할 말이 많다(17-21).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다. 아버지가 선하게 살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아버지가 선하게 살지 못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특히 한국인에게 위력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옴이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죽고난 다음에 누가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죽은 자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21)? 살아생전에 자신의 죄악에 대한 징벌을 자신이 받아야 한다(19-20). 다음 구절을 참고하면 옴의 이 말이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말을 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

계로 삼사 때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때까지 은혜를 베풀느니라 [신 5:9-10]

10. 친구들의 원론적인 비난에 동의하지 못하는 욥의 주장도 현실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그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말이다. 19-21절이 당위성을 말할 뿐 세상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욥은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긴다. 왜?

하나님은 어떤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22) 창조주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친구들이 하는 악인의 복이 길지 않고 곧 심판을 당한다는 말에는 반발이 거세다(23-26).

11.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다(23)는 것은 죽을 때까지 기운이 쇠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죽을 때까지 복을 누린 사람이나, 평생 고생만 한 사람도 죽으면 똑같다(26). 욥이 이런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평생 복을 누린 악인에게 별다른 심판이 없더라: 그러니 친구들의 주장이 틀린 것 아니냐는 말이다.

12. 친구들의 위로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위로는커녕 조롱이라고 하더니(3) 이제는 어떤 더 격한 표현을 써서 비난하는가?

귀홀(음모, 27 = 34절의 거짓): 아예 의도적으로 자신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민다는 것이다. 욥도 많이 공격해졌구나. 극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못할까? 위로를 하려고 한다면 이런 심경을 이해하고 위로하려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돌팔이 의사(13:4), 번뇌케 하는 위로자(16:2)를 넘어서 거짓말쟁이(21:34)가 된다.

13. '왕후의 집과 '악인의 거하던 장막'(28)은 동의어다. 친구들이 말하는 악인의 말로는 순식간에 망하는 것인데 길가는 사람들(=괴문이 넓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이다. 무슨 답이 나올까?

욥이 기대하는 답은 '악인의 장막이 견재하더라'는 것(=30): 친구들의 주장이 틀린 증거를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들은 자들에게 확인해 보라는 것이다. 그러면 '잘 있더라'는 답을 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멸망의 날에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30절은 악인이 현실에서 순식간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뜻이다.

14. 31-33절은 '악한 자들을 아무도 을 수 없었지만 결국은 죽었다'는 뜻인가? 욥이 말하는 문맥은 그렇지 않은데?

심판 없이 평안히 죽었다는 뜻: 무덤에 장사되고 무덤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것은 복된 죽음이란 뜻이다. '심판을 받는다면 시체가 버려져야지!'라는 것이 욥의 의도다. 33절은 많은 사람이 따르는 장례행렬을 묘사하는 것이다.

옴기 22 장

1. 옴을 공격하는 선봉에는 항상 엘리바스가 있었다. 다시 엘리바스가 등장한 것은 또 다른 논쟁의 시작일 수도! 엘리바스의 첫번째 발언은 ‘옴의 고난이 그의 죄로 말미암은 것(4:7)’ 두번째 발언은 ‘옴의 고난이 스스로를 의롭게 여김 때문(15:4)’이었다고 했다. 여기 세번째 발언에서 옴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두 가지는 무엇인가(2-4, 6-9)?

하나님께 교만함(2-4) 이웃에 대한 불의와 횡포(6-9)

2. 엘리바스는 지혜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인가?

아니다. 스스로 유익하다고 함: 자신에게는 유익하다고 한다. 좀 짜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이다.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지혜다.

3.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들, 의로운들, 온전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지혜나 능력에 관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엘리바스의 말이 어떻게 틀렸는가? 사람의 지혜나 의로움이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사람의 악함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갓난아이가 지혜나 능력으로 따지자면 어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부모에게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한 존재인 것은 지혜나 능력 때문이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인 것은 ‘그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특별한 존재, 곧, 자녀요 신부이기 때문이다!

4. 4절은 비꼬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심문하시는 이유는 절대로 무엇 때문은 아니다?

너의 경외함: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냐? 아니다. 바로 너의 그 교만함, 스스로 지혜롭고, 의롭고,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5. 엘리바스는 옴의 고난이 그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면서 비교적 점잖게 말을 꺼냈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4:7) 그 말과 6-9절을 비교해 보자.

처음에는 일반적인 얘기, 즉 구체적인 사례는 알지 못하고 추측으로 말한 것이다. 이제는 구체적인 잘못을 일일이 지적하는 것이다. 전자는 잘 모르지만 짐작으로 하는 얘기고, 후자는 현장을 자세히 목격한 사람이 감추지 않고 폭로하는 격이다.

6. 엘리바스는 옴의 악한 행위를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아니다. 아니, 옴은 그런 적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직접 목격한 사람처럼 말을 하는가?

결과를 보고 원인을 함부로 짐작하여 마치 목격한 것처럼 말함: 결과를 보고 원인을 그렇게 짐작할 만큼 인간사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렇게 단순하게 짐작해서 떠벌리는 것은 큰 잘못이다. 하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상상이나 생각을 마치 직접 목격한 현실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다.

7. 엘리바스가 말하는 현실(10-11)은 맞다. 그러나 그 원인(5-9)은 옳지 않다. 이럴 수가 있는가?

남의 일을 짐작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다: 잘된 일이나 잘못된 일을 막론하고 이유를 함부로 짐작하는 것은 틀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아주 조심해야 할 일이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핀잔을 듣기 십상이다.

8. 엘리바스가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신다’고 말하는 의도는 무엇인가(12)?

모르는 것이 없다(13-14, 17): 멀리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그 분께서 너의 악함을 어찌 모르겠느냐는 것이다.

9. 이상하다? 옴이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었던가? 옴의 어떤 주장을 엘리바스가 이런 식으로 들었을까?

범죄한 것이 아닌데 범죄자처럼 고난당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옴의 일관된 주장): 이 말이 엘리바스에게는 옴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13-14)처럼 들렸던 모양이다. 남의 말을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우도 흔하다. 옴이 부인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10. 어리석은 사람들의 주장 중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 이후 자연법칙에 맡겨두시고 전혀 관심도 없고, 간섭하지도 않으신다’는 말이 있다. 그런 뜻이 담긴 표현이 본문 어디에 있는가?

중창으로 걸어나니실 뿐이라(14): 이와 비슷한 표현이 성경에 더러 있다. 한결같이 악한 자들이 하는 말이다.

-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사 29:15)

-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겔 8:12)

-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시 73:11)

11. '악인의 밭된 옛적 길'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갔던 길일까?

가인의 길, 라멕의 길, 홍수 심판을 받은 자의 길, 소돔 고모라의 길: 욥의 시대에서 옛적이라고 하면 이 정도의 예가 될 것인데 엘리바스의 말이 험하다. 이 악한 자들은 때가 되기 전에 죽임을 당하고 집은 뒤집혀 문혀버렸다(16).

12. 악인들이 못된 소리를 하는데도(17)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다(18). 이 말은 욥의 말과 같다(21:16). 엘리바스도 같은 뜻으로 하는 말일까?

다르다: 욥의 의도는 악한 자들이 복을 누리더라는 것이다. 반면에 엘리바스의 의도는 악한 자들의 복이 길지 않고, 누리지도 못한다(=16, 20)는 것으로 서로 다르다. 욥의 말을 인용하여 욥의 의도와는 다른 의도로 비판하는 것일 수도 있다.

13. 의인이 보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19)? 엘리바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일시적인 풍요(18)와 순식간의 파멸(16, 20): 엘리바스가 생각하는(=이론상으로) 악한 자의 모습이다. 욥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다(21:7-14, 17-20). 넓게 보면(=내세까지) 엘리바스의 말이 확실히 맞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욥의 말이 더 맞을 수도 있다.

14.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복이 임하는가(21)?

당연지사다: 문제는 욥의 경우에 맞지 않다는 점이다. 욥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일반론이 틀렸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런 요지로 이 본문을 근거로 설교를 하면 어떨까? 편향을 것 같기는 한데 굳이 이 본문을 쓸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말하는 다른 본문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15.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는가(21-29)? 그렇다면 2-3절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엘리바스의 입장에서 논리적 모순이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런 노력을 귀하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결국은 사람을 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해하고 말했을까?

16. 보배와 금을 버리라고(24)?

부정한 방법으로(6-9) 재물을 굶어모으게 한 욥의 탐욕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버릴 보배와 금이 전혀 없는 셈이다.

17. 일반론으로 보면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우리가 보배와 금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배가 되신다(24-25).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배가 되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

관계 회복: 서로 기뻐하는 사이가 되는 것, 그래서 마주보기도 하고 대화가 되기도 한다(26-28).

18.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엘리바스는 말을 맺는다(29-30). 원문상 29절의 '낮춤을 받거든'의 주어는 3인칭 복수다. 사람들이 쓰러지거든 '그것이 교만 때문이니 겸손하면) 높아지리라'고 말하라는 뜻으로 새길 수 있다. 욥이 깨끗하게 되면 욥으로 말미암아 무죄하지 아니한 자도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결국은 누구에게 맞아들어 가는가?

욥의 친구들(42:7-8): 죄 없는 욥을 비난한 친구들을 위하여 욥이 기도하였더니 그들의 우매함을 용서하셨다.

옴기 23 장

1.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슬퍼도 울지 말고, 아파도 신음하지 말아야 하는가?

슬프면 울고, 아프면 신음해야지(2): 억지로 참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슬픔을 슬픔으로 느끼지 못하거나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 혹은 큰 아픔도 작게 느끼는 것이 신앙이다. 때로는 애틀 수도 있다. 아픈 것을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불신앙은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감정도 없는 비인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현재, 옴의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 성도에게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은 가장 큰 아픔이요 두려움이다. 옴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옴의 위대함이다(10). 엘리바스의 말도 되지 않는 비난을 들으면서 그를 원망하기보다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렸다. 일일이 대꾸하면 입만 아프지... 그러면서도 대꾸하고 싶은 것이 인간인데!

3. 위로하려고 찾아온 친구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옴의 진심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다. 하나님은 옴의 말을 들어주실까?

하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 틀림없다고 옴은 확신했다. 옴의 생각도 많이 변했다. 처음에 옴은 하나님을 사냥꾼(6:4, 10:16), 약탈자(9:12), 살인자(13:15)라고 표현했다. 점차 고통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4. 하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 틀림없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만날 길이 없다는 것(3)

5. 조선시대에 신문고를 두드리려는 사람,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호소한 바울, 그리고 옴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자신의 무죄를 확신한다는 점(27절의 '정직자'는 바로 자신을 뜻함): 죄가 있으면서 이렇게 나섰다가 발각되면 능지처참이다.

6. 옴은 하나님을 '자신의 말을 들어주시고 자신의 억울함을 벗겨주실 자'로 믿고 있다(6-7). 여기서 잡감, 후일에 옴은 하나님과 더불어 '변론'하는가?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38-41장)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42:3-5): 하나님은 변론의 대상자가 아니라 경배의 대상일 뿐임을 진실로 깨닫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옴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자신의 말대로 단련되어 더 나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뿐이다. 고기를 많이 잡고 난 다음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를 떠나소서 죄인이로소이다'고 고백하던 베드로의 모습과 비교해 보라.

7. 도무지 만날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지만 옴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의 고난은 자신을 단련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10):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시라는 것과 결국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8.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이 정계가 아니라 자신을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옴에게서 찾는다면?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삶(11-12)이었기 때문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60 혹은 70% 정도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만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100%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육체를 입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고 싶다.

9.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옴이 결국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만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의 일정한 뜻(13): 한번 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뜻을 이루고 마시는 분이시니 때로는 그것이 자신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일관성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경우(기분)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면 아이를 교육에 문제가 많다. 아이들이 부모를 우습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정해진 원칙에 따라 아이들을 기르면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긴다.

10. 나를 철저히 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알 수가 없다! 이것은 옴의 절망이기도 하고 나아가 인류의 절망이기도! 소위 '숨어 계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걸까?

결국은 스스로 찾아오신다: 찾아오신 하나님(예수님의 도성인신), 계시하시는 하나님(성경을 주심)이 해결책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인류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말씀을 주셔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셔야 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11. 욥의 처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본문을 읽으면서 크게 위로를 받다가도 '아니야, 난 욥처럼 그렇게 말할 수 없어'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일까?

욥이 스스로 정직자라고 말할 만큼 정직하게 산 것(7, 11-12)과 비교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욥과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도덕적으로 욥이 우리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근거로 자신을 정직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게 된다. 우리도 우리 자신만을 살피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하셨으니(엡 3:12, 히 10:19)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죄책감으로 기죽어 있는 모습보다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옴기 24 장

1.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었다. 그러면 24장에서 옴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 라고 부르짖는 셈인가?

하나님 언제까지니이까?(1) 부자들이 하는 악한 짓에 대해서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것이냐고 탄식하고 있다. 언제일지는 몰라도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은 확신한다.(23-25)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지, 언제까지 침묵하실 것인지는 많은 성도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다가 옴이 어떤 답을 들게 되는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해답을 얻게 된다. 하박국도 그랬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해결책을 주셨다. 극히 개인적인 만남을 허락하셨다. 뵤후 3:8-13도 참고하자.

2. 악한 자들이 하는 짓거리(2-4)가 특히 나쁜 이유를 몇 가지 짚어보자.

울법 위반, 가난한 자의 마지막 소유를 빼앗는 것: 지계표를 옴기거나 양떼를 빼앗아 기르는 행위는 폭력적인 행위인데 특히 지계표를 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신 19:14). 고아의 나귀나 과부의 소는 마지막 재산이요, 유일하게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아 주라(신 24:17)고 당부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인데(시 68:5) 무시하다니 도대체 겁이 없다.

3. 도시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쫓겨나는 사람들은 거의가 빈민들이다. 빈민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일부러 화재를 일으키기도 하는 모양이더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나보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비슷한 짓을 했음을 보여주는 표현은 무엇인가?

빈곤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는 것(4) 아마도 부자들이 다니는 데에 방해가 되었던 모양이지. 아니면 보기 싫다고 쫓아내었던지. 예전에 대통령이라는 분이 소경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게 보기 싫다고 해서 영영 사라진 가수가 있었다. 이용복이었는가? 자신을 닮았다고 출연을 제지당한 탤런트도 있었다. 있는 자들의 이런 태도 때문에 결국은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어버린다(46).

4. 가난한 자들은 어떤 점에서 들나귀와 같다고 하는가?

풀이 거의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을 찾아서 해매기 때문: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돌아다녀도 제대로 구할 수 없다.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낸들(5) 그게 얼마나 되겠는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쫓겨나 숨어 지내며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해매는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과 닮았다고 여기는 것 아닐까?

5. 광야에서 충분한 양식을 구할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떤 방법이 있는가?

도둑질?(6) 힘 있는 사람은 훔쳐도 크게 훔치지만 가난한 자들은 훔쳐봐도 극히 적은 것이다. 남의 곡식을 베어 봐야 얼마나 베겠는가! '남의 곡식을 베다'는 말이 일종의 도둑질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혼합된 가축 사료'를 의미할 수도 있다. '악인의 남겨 둔 포도'도 별 것 아닌 것을 의미한다. 원래 추수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얼마를 남겨야 한다(레 19:10, 신 24:21). 그렇지만 악인이 이 규정을 따라 얼마나 남겨두었겠는가! 결국 이 세 가지 표현(5-6)은 양식으로 쓸 것이 극히 적다는 뜻이다.

6. 가난한 자들의 곤한 삶을 묘사한 5-8절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힘 있는 자들의 횡포로 말미암았다. 의복이 없는 것도 악인들에게 볼모 잡혔기 때문이다(9). 바위를 안고 있다는 말은 아마도 바위를 거처로 삼았다는 뜻으로 보인다.

7. 고약한 사람들은 담보를 잡을 때라도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보아주지 않는다. 아니,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어야 담보의 효력이 있다. 그래서 무엇을 빼앗아 가는가?

어미 품의 고아(=아버지가 없는 찢먹이)나 옷(다른 많은 역본은 '옷'이 아니라 '찢먹이'로 번역함): 울법을 위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너무나 잔인하다. 예나 지금이나! 빛지지 말아야 한다. 빛을 무서워해야 한다. 빛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담보로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IMF를 겪으며 빛으로 말미암아 끔찍한 일들이 적지 않게 벌어졌다.

8. 찢먹이를 볼모로 잡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 제대로 샅을 주며 일할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주지 않는 것은 뻔한 일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어떻게 부리는가?

작업복도 없고, 굶주리며, 목마른 상태로 부린다: 10절의 옷은 작업복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야말로 열악한 작업환경을 말하는 셈이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가난한 이웃도 먹여 살려야 하는 판에 일하는 자를 굶긴다는 것은 정말 악한 짓이다. 곡식단을 매면서 주리는 것이나 술틀을 밟으면서 목이 마르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쉬우지 말라(신 25:4)고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9. 옴은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서 이런 불의가 판을 치고 있다고 말한다. 그가 지적한 장소를 다 찾아보자.

광야(5), 시골(6), 산골(8), 농장(10-11), 그리고 도시(12):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곳에서 이런 악이 행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런 하나님이시니 자신이 이렇게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는 데도 가만히 계신다. 미치겠다! 어쨌거나 옴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로 시선이 옮겨간다. 자신만의 고난이 아니라 이웃의 고난에 눈을 뜨고 있는 셈이다.

10. 악한 자들도 종류가 다양하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악인들 외에 또 어떤 악한 자들이 있는가 (14-16)?

살인자, 도적(14), 관음하는 자(15), 강도(16)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왜 보고만 계시는가? 밤에는 도적이고 새벽에는 살인자다. 왜 새벽일까? 새벽에 일어난 사람을 노리기 때문이다. 부지런한 사람이기보다는 궁핍하여 새벽부터 일을 해야 하는 어려운 사람을 노린다. 관음하는 자가 변장하고 밤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강도가 낮에 문을 닫고(잠그고) 있는 것은 자기와 같은 인간을 겁내기 때문이다.

11. 밤에 설치는 자들이 아침을 흑암같이 여긴다는 말은 악한 자들의 입장에서 본 말인데 아침을 두렵게 여긴다는 뜻이다. 더 이상 숨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흑암의 두려움'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 말이다. 아침을 두렵게 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뜻이 되는가?

흑암의 평안함: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시간에 이들은 변장하고 숨어 다니며 오히려 평안하다. 밤이 친숙하다. 놀기 좋다!

12.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부당한 짓을 행하는 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냐고 원망을 하던 옴이 그럼에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본심은 무엇인가(25)?

악인의 최후가 속히 임함: 강물에 떠내려가듯이, 눈이 녹듯이 사라져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20).

13. 이사야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사 49:15)'는 말씀을 참고하면 '태가 그를 잊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악인들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잊을 수 없는 자들에게서조차 잊혀질 것이다. 구더기나 좋아할까!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옴의 소망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14. 악한 자들이 순식간에 심판을 받는다는 말인가, 평안을 누리다는 말인가(22-24)?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는 괴리감 때문에 옴이 황실수설 하는 듯이 보인다.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죽을 자도 살아나고 평안하다. 그러나 그들을 살피는 하나님의 눈길은 여전히 하고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갈팡질팡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변론을 마친다. 옴의 신앙이 약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탓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 것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일지 모른다. 병이 나올지, 재산이 늘어날지,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할지... 이런 일의 결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 아닐까. 단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가령, '이 병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올바른 확신이 아니다. 강력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욥기 25 장

1. 친구들의 밀천이 다 떨어졌나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소발이 말이 없다. 빌닷의 대답이 너무 짧다: 세 차례 변론하는 동안 순서는 엘리바스, 소발, 빌닷, 욥의 차례였다. 그런데 소발이 더 이상 말이 없고, 욥의 대답이 길게 이어졌지만 빌닷이 같은 말을 간단하게 되풀이 할 뿐이다.

2. 빌닷의 말이 맞는가?

거듭 얘기하지만 말 자체는 맞다. 그러나 이 말이 욥의 말에 대한 대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엉뚱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엄하심이나 인간의 무가치함을 욥이 부정하는 것이 아닌데도 마치 욥이 그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계속 주장하기 때문이다. 내용도 엘리바스보다 더 나을 것도 없으면서... 할 말이 없으면 소발처럼 가만히 있든지...

3. 빌닷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온 세상의 주관자라고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란 영계를 평화롭게 다스리는 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인간 세상의 어느 누가 감히 당당하게 설 수 있느냐는 의미인 듯하다.

4. 하나님에게도 군대가 있나? 모든 군대의 대장이란 뜻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 89:8): 만군의 하나님이란 표현까지 합치면 270여 회나 쓰였다. 만군이란 군대란 뜻과 만상이라는 뜻을 다 포함한다. 단순히 군대의 지휘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란 뜻으로 쓰였다.

5. 하나님 앞에 사람은 벌레, 구더기인가?

능력 면에서는 그렇다: 문제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능력만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점이다. 그렇게 연약한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할부로 인간을 무가치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시 8:4-8).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소중한 존재이기도 하다. 능력만 따진다면 갓난아기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하는 부모에게 갓난아기는 단순하게 능력만 따지는 존재가 아니다.

6.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저런 논의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분이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다'고 나서는 바람에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렸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대전제라면 그 날의 논의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구체적인 세목에 해당하는 셈이다. 모든 논의를 '무'로 돌려버리는 논리적 오류인 셈이다. 빌닷이 어떻게 이 사람과 비슷한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욥이 이런 저런 말로 아픔을 토로하였는데 그 모든 말을 한마디로 식혀 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그렇게 떠들 필요가 없다. 구더기 주제에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으냐? 모처럼 성도들이 야외에 나갔는데 '기도나 하고, 이 돈 아껴서 선교나 하지' 이러면 안 된다.

옵기 26 장

1. 친구들 중에 소발은 할 말이 없고, 빌닷도 짧게 끝냈다(25장). 옵의 대답은?

정말 길다. 혼자서 할 말을 다 해버렸다. 26장은 짧으나 그게 끝이 아니다. 31장까지 계속 이어진다.

2. 빌닷의 말이 옵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조롱하는 말투로 대답을 시작하는데(1-4) 이것을 두 종류로 요약하면 하나는 ‘참 잘 하였구나’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 요약하면 좋을까?

(그런 놀라운 지식을) 어디서 배웠노? 4절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신이 네게 그런 영감을 주었느냐?’ 이런 느낌을 담은 말이다. 네 실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말이었다는 식의 비꼬는 말이다.

3. 논쟁하는 상대방에게 한 방 먹으려면 우선 자기는 수준이 훨씬 떨어진다고 먼저 고백을 한 다음 ‘이런 나보다 나은 게 뭐냐?’고 공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옵은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은근슬쩍 말하는가?

힘도, 기력도, 지혜도 없는 자: 그런 다음에 빌닷의 말보다는 훨씬 더 차원이 높은 내용으로 반격해 버렸다. 빌닷이 얼마나 창피했을까! 일류고등학교 출신이 실업계 출신 동급생을 팔세했다. “나는 시원찮은 학교를 나와서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왔는데 넌 그 좋은 학교 나와서 왜 여기 왔냐?” 이 말 한 마디에 다시는 출신학교에 대해서 입을 떼지 않았다.

4. 잘 했다고 비꼬았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가?

내가 얼마나 잘 하는지 몰라? 자신이 더 탁월함을 드러낸다. 쪼잔스럽게 그렇게 싸워야겠냐마는 워낙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냥 쫓겨 버린다.

5. 빌닷이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에 대해서 나름대로 언급한 것에 대한 옵의 답변을 한 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도 안다. 내가 한번 설명해 볼까?

6.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빌닷의 설명(25:2-3)보다 옵의 설명이 훨씬 수가 높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

빌닷은 하늘만 언급했다. 반면에 옵은 음부, 하늘, 땅, 물, 빛과 어두움, 영계(음령, 라합, 날랜 뱀)를 넘나들며 종횡무진으로 뛰어다니는 셈이다.

7. 자살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은 죽으면 끝이라는 오해다. 실수를 되돌릴 기회가 남아있는 이 세상을 떠났는데 다다르고 보니 실수를 되돌릴 기회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인 것을 알면 얼마나 놀라게 될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옵이 자살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음령(죽은 자들의 영)들이 머물러 있는 음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5-6). 큰 물과 수족(바다에 거하는 것들)의 밑이란 음부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멸망의 운명에도 마찬가지!

8. 옵이 아는 하나님은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는 분이시다. 한 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땅이 공간에 떠 있다는 생각은 쉽게 가능한 생각이 아니다. 적어도 만유인력을 이해하기 전에는 이런 말을 하면 지구의 아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주로 떨어져 나가는 줄로 알았다.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한 것이 15세기에도 상식이 아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라. 옵의 이 생각이 얼마나 놀라운가!

참고: 2세기 초 그리스 천문학자 클라우디오스 프톨레마이오스가 집필한, 천동설적 우주론인 ‘천문학 대집성(알마게스트, *Almagest*)은 르네상스 시대까지 서양의 우주관을 지배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구는 견고한 지지대에 의해 떠받혀져 있다고 생각해왔다. 이 이론이 공식적으로 깨진 것은 1543년 폴란드의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임종 당시 그의 친구이자 신학자인 안드레아 오시안더에 의해 주저(主著)된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저서를 발표하면서부터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적 우주관은 지금의 우주관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케플러의 제3법칙(각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타원궤도로 움직인다 등) 뉴턴의 역학에 결정적 영향을 줬으며 또한 두 법칙의 등장으로 근대 과학의 기초가 놓이게 됐다. 그리고 처음으로 공전의 증거가 발견된 것은 1727년에 이르러서였다.

9. 하늘에 찢어지지 않는 물주머니가 있고, 수면에도 경계가 있고, 빛과 어두움도 경계가 있다. 바다를 흥용케 하신다. 이 표현들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연법칙의 주관자: 자연세계도 놀라운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바닷물이 함부로 육지를 침범하지 않는다. 자연의 균형도 함부로 깨어지지 않는다. 인위적으로 변경시키면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앙이 닥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

10. 떨어져 놀라는 하늘기둥이 무얼 가리킬까?

아마도 높은 산.

11. 바다를 흥용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라합을 치시는가?

본문의 라합과 여호수아의 라합(발음은 라합에 가깝다)은 우리말이나 영어로도 같은 철자지만, 원문 상으로는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다. 본문의 라합은 신화에 나오는 바다 괴물이다(욥 9:13, 26:12).

12. 빌닷에 비해서 욥의 지혜가 훨씬 탁월한 점을 하나 더 든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함도 기껏해야 시작점(빙산의 일각) 혹은 세미한 소리일 뿐이라는 것(14) 가시광선, 가청주파수... 이런 말들은 빛이나 소리 중에서 사람이 지각할 수 있는 극히 작은 일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빛을 창조하신 분과 그 빛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만 볼 수 있는 우리와는 애초에 비교대상도 아니다. 겨우 세미한 소리나 듣는 우리가 우렛소리를 어떻게 알겠는가! 욥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정말 놀랍다. 그래도 나중에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떠들었다'고 회개하는 정도니!

옴기 27 장

1. 비사란 비유란 뜻인데 옴이 무엇을 어디에 비유했는가?

비유라기보다는 격언,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시를 읊조리는 것처럼 교훈적인 말을 이어갔다 는 뜻이다.

2. 옴은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4-6). 그것은 무엇처럼 확실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2절의 핵심은 '전능자의 사심'에 있다. 영어나 히브리어에서는 이 표현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을 수식하는 표현이 부속품처럼 뒤에 나온다(*As surely as God lives, who ~*). 나를 이렇게 취급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한 것처럼 자신의 무죄도 확실하다는 것이다. 어려움이 조금만 닥쳐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 나 는 우리네 신앙과는 차원이 많이 다르다.

3.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면 될 텐데 왜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이란 표현을 거듭해서 덧붙였을까?

시비, 유희: 여차피 자신의 진정을 알아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그 하나님을 자극하려는 의도 아닐까? 빨리 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기를 바라는 역설적인 표현이다. 이 표현은 진정으로 옴이 말하 려고 하는 핵심이 아니다. 이 표현과 관련된 더 이상의 원망이나 시비가 없다.

4. 개역성경은 3절이 2절과 연결되어 있는 듯 하지만 다른 번역본들은 3절이 4절과 이어져 있다. 그 러면 마지막의 '있느니라'를 어떻게 고치면 될까?

있는 한: 5절의 '죽기 전에는'이라는 표현과 통한다.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무죄함을 굳게 확신하는 옴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럴까? 참으로 존경스런 모습이다.

5. 죽으면 죽었지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 '일평생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자가 되겠다?' 이 말은 어 려움을 당하기 전에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친구들의 주장을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5): 친구들의 말에 동조하는 말이 곧 불의라는 것이다. 친구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확신한다는 뜻이다. 징계를 받을 만한 짓을 하지도 않았지만 앞으 로도 그런 주장에 굴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는 것이다.

6. 일반적으로 논쟁을 하거나 싸우면 '대적은 악인이다.' 그런데 옴은 '대적은 악인같이 되기를' 원한 단다! 이 표현이 대적을 악인이라고 단정짓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악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악인이 벌을 받는 것같이 벌 받기를 원한다는 말인데 더 이상 나의 대 적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는 완곡한 표현이다. 나를 불의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로 몰아부치 지 말라는 말이다.

7. 사극한 자라고 해서 반드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런 자들이 더 이익을 많이 보기도 한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최소한 언제 공의가 시행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하실 때: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잘 사는 꼴을 계속 봐야 하나? 꼭 하나님께 서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지금 원수를 쫓아 주시면 안 되나? 어느 개그맨의 말처럼 '그런 니 생각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8. 적어도 옴의 생각에는 이익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불려 아뢰는 것을 들으시는 것, 즉 하나님을 기뻐 하는 것이 물질적인 이익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온갖 고통 속에 허덕이면서도 이런 것이 더 소중 한 것이라고 생각하다니! 그만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자격이 있다.

9. 성경을 100독이나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이단으로 빠져 감옥에 갇힌다. 30대 초반에 이미 100독 을 했더니까 믿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성경을 많이 읽긴 읽었을 것이다. 무엇이 문 제인지 옴의 말을 참고해서 생각해 보자.

아무리 많이 읽으면 될 하나? 바르게 읽어야지: 옴은 친구들의 지식과 경험을 부정하지 않는다. 친 구들도 볼 것은 다 보았다. 그런데 어떻게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가? 보면 될 하나, 제대로 봐 야지! 다른 것은 다 제대로 본 모양인데 옴을 제대로 보지 못했나보다. 가르치는 사람은 학습자의 능력을 파악하는 일이 우선이다. 학습자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아는 것만 열심히 퍼부어대 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10. 아무리 악인이라도 온갖 호사를 다 누리며 살다가 가는 수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옴은 그런 자 들이 실제로 있으므로 인과응보나 악한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것과는 다른 주장을 펴왔다. 그런 옴이 이제 친구들의 주장처럼 악인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말한다. 말이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2:6절을 근거로 생각해 보자.

자신이 당한 일이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징벌이 아닌란 확신이 섰기 때문: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 있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설교

한다고 생각해 보라. 자신을 본보기로 삼고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보통의 확신을 훨씬 뛰어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친구들의 주장이 자신의 경우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반대주장을 폈으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친구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욥도 알고 있다. 자신의 경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욥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친구들보다 더 자세하게 악인이 받는 벌을 설명하는 것이다.

11. 악인의 용성함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자식이 안 되기 때문: 자손의 번성은 가장 큰 복 중의 하나다. 온갖 호사를 다 누렸더라도 자식이 끊어진다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자신의 자녀들이 한 날 한 시에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 아니라 확신이 있기에 하는 말이다.

12. 악인의 자손이 많은 것이 잔치날 잡으려고 돼지를 살찌우는 것과 어떤 점에서 닮았는가?

자식이 많아봐야 말을 위험'이기 때문: 칼을 위험이라는 말은 칼이 쓸모 있으라고 자식이 번성한다는 말인데 결국은 칼에 죽는다는 말이다. 악인의 자손이 번성해 봐야 결국은 살육(전쟁), 굶주림, 열병으로 다 사라지고 만다.

13. 과부들이 왜 울지 못할까(15)?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장례의 필수요건인 애곡을 의미하는 말이다(참고, 시 78:64). 살육(전쟁), 굶주림, 열병으로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정상적인 장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14. 악인의 재물이 때로는 부럽기도 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그 대단한 재물이 무엇과 같을까?

티끌, 진흙, 썩은 집, 초막: 주변을 돌아보면 악인이 잘 사는 모습이 적지 않겠지만 순식간에 무너진 예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악한 방법으로 쌓은 재물이다.

15. 살육(전쟁), 굶주림, 열병이 악인의 자손을 멸한다(14-15)고 했는데 악인들을 추격하는 또 다른 팀이 있다. 구성원들이 누구인가?

두려움, 폭풍, 동풍: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좋은 것들이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다고 해도 사기가 꺾인 군인은 싸울 수가 없다. 폭풍의 두려움은 우리도 잘 안다. 근동에서는 동풍이 무섭다. 이스라엘의 동편지역은 높은 산악지대다. 거기서 불어오는 동풍은 뜨겁고 건조해서 모든 식물을 말려 버린다.

16. 악인의 최후는 한 마디로 무엇인가?

비소(=경멸, 조롱)거리(23): 악인이 아무리 잘 나간다고 싶어도, 부러워할 만큼 잘 산다고 해도 결국은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욥기 28 장

1. 광부가 광석을 캐기 위해서 빛이 한 줄기도 없는 어두운 굴속에서 허공에 매달려 흔들거리며 광석을 찾는다. 느닷없이 광부 얘기는 왜 할까?

이렇게 어렵게 찾은 보석보다 지혜는 더 귀한 것이다: 지혜는 광부처럼 이렇게 애를 써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2. 갑자기 지혜에 대해서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악인의 형통함과 심판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이 있기 때문: 욥과 친구들이 지루한 논쟁을 통해서도 아무런 해답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새로운 돌파구가 된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부조리하게 보이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 자신에게 딱힌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

3. 오늘날의 광부와는 아무래도 차이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냥 깊은 굴을 뚫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광석을 캐는 정도였을까? 옆으로 뚫은 갱도는 없었을까?

10-11절이 아마도 수평 갱도를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4.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는 말이 얼핏 보면 지하의 용암을 가리키는 듯 하나 문맥상 여기서 느닷없이 용암(마그마)이 나올 이유는 없다. 아마 지하에서 광석을 캐는 모습에 대한 설명일 것이다. 요즈음이야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지만 고대에는 어떤 방법을 썼을까?

불에 달구었다가 물을 부어 급히 식히는 방법으로 바위를 쪼갰단다.

5. 육체적인 능력을 비교해 보면 사람이 다른 동물보다 나은 점이 별로 없는 셈이다. 그러나 짐승들이 전혀 하지 못하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7-8)은 무엇 때문인가?

지혜가 있기 때문: 눈이 밝은 솔개나 매도 보지 못하는 것을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지혜 때문인데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맛배기처럼 은근하게 언급하는 셈이다.

6. 사람에게는 그 어떤 위엄스러운 짐승보다 더한 지혜가 있다. 영원한 산마져 무너뜨리고 감춰었던 보물을 찾아내는 능력도 있다. 그런데도 못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찾는 것:

7. 지혜가 각종 보석보다 더 귀한 이유는 무엇인가? 돈이 되기 때문에?

구할 수 없기 때문(12-14): 보석은 비싸고 아름답고 변하지 않는다. 애쓰고 노력하면 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온갖 고생을 다 해가면서 거대한 기업을 일으켜 놓아도 지혜롭지 못한 자손 한 둘이서 몽땅 말아먹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인간이 구할 수 있는 지혜도 그렇게 귀하거든 더구나 진정한 지혜는 구할 수도 없다.

8. 흔히들 믿는 성도의 결혼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재산, 인물, 성격... 이라고 한다. 정말 신앙이 가장 중요할까? 욥의 말을 근거로 해서 답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온갖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 여기에 등장하는 값을 알 수 없는 보석들보다 지혜가 더 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은 대충 믿는 시늉만 해도 되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재산이나 인물은 철저하게 따지고.

9. 지혜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21-24):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소중한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만의 것은 더욱 더 소중하다.

10. 땅 끝도, 온 천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당연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손에 또 무엇이 있는가 (25-26)?

폭풍우: 바람, 물, 비, 우레, 번개가 연관된 것이니 폭풍우마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말이다. 결국 이 표현들은 무소부재,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

11. 바람의 경중, 다시 말하면 공기의 무게를 정하셨다는 말인데 욥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공기의 무게(고기압은 무거운 공기, 저기압은 가벼운 공기)가 있다는 것은 누가 발견했을까?

토리첼리: 대기의 무게는 1643년 이탈리아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에반겔리스트라 토리첼리(1608-1647)에 의해 처음으로 측정됐다. 공기 1m³의 무게는 약 1.3Kg중이며 1cm²에 미치는 공기의 무게(=1기압)는 약 1Kg(1013mb)이다. 사람은 약 20T의 공기의 무게에 눌리고 있다. 공기는 엄청나게 무거운 것이다. 17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욥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욥기가 기록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2.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폭풍우의 길을 정하실 때에 무엇을

사용하셨는가?

지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를 보시고, '똥네'(= 선포, = 평가)하시고, 사용하시고(곧게 세움) 잘 사용되었는지 살피셨다(궁구 = 탐색, 시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

13.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함으로(28):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뿐임을 확실하게 깨달은 것 같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만이 불가해한 자신의 고통을 이기는 방법임을 깨달은 모양이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함을 누리게 된 것 같다. 옴이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옴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다(1:1, 1:8, 2:3). 육신의 고통은 여전할 텐데?

욥기 29 장

1. 27장을 '비사를 들어 가로되' 하면서 시작했으나 27-28장이 하나의 비사인 셈이다(비유라기보다는 격언이나, 잠언). 여기서 또 다른 비사를 말하는 셈이다. 여기서 비사란 무슨 뜻으로 쓰였는가?

회고(2): 지난 날 잘 나가던 시절에 대한 회상이 본문의 주류다. 가수 이선희의 '아, 옛날이여!'라는 노래가 딱 어울린다.

2. 가장 행복했던 시절에 누리던 복 중의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가장 근원적인 복이다. 나머지 복은 여기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성도가 부스러기 복(재물, 명예)에만 집착하는 것은 아직도 어리다는 뜻이다.

3.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지 두 가지만 찾아보자.

친구, 밤의 등불(출애굽 당시의 장면을 연상시킴): 하나님을 친구처럼, 어두운 길의 등불처럼 여겼던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다.

4. 가난한 땅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표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욥이 행복했던 시절의 그 땅은 어떤 땅인가?

젖과 기름이 흐르는 땅: 짐승이 내는 젖과 감람나무에서 나는 기름이 흘러 넘쳤다. 목축과 농업이 주산업인 사회에서 젖과 기름은 부요함의 상징이다.

5. 욥이 행복하던 시절에 성문에 나가면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8-10)?

왕처럼 대우받았다: 성문이란 공적인 업무가 행해지던 장소다. 여기서 방백들과 귀인들이 입을 다물고 자리를 내줄 정도면 왕이나 마찬가지로. 소년들이 숨는다는 말은 젊은이들이 길이나 자리를 비켜주었다는 말이다.

6. 엘리바스는 마지막 공격에서 욥이 1) 불경건했으며(22:4), 2) 권세 있는 자처럼 횡포를 부렸고(22:8), 3)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학대하였기(22:9)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는다고 비난했다. 대답할 가치도 없는 얘기라서 즉답을 피했던 욥이 여기서 은근슬쩍 답변하는 걸까? 본문의 어느 부분이 이런 비난에 대한 답변이 되는가?

1) 불경건에 대해서 2-5절, 2) 권세자의 횡포에 대해서 24-25절, 3) 학대에 대해서는 11-17절: 듣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나를 칭찬했다.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기쁘게 했기 때문이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해서 복을 빌 정도였다.

7. 욥의 선한 삶을 세 가지로 정돈해 보자.

구제(12-13) 정의실현(14, 17) 봉사(15-16): 부자는 구제만 잘 해도 칭찬을 듣는다. 가진 돈을 풀기만 해도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욥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싸움도 마다하지 않았으며(17) 능력없는 자들(소경, 절뚝발이, 빈궁한 자, 생소한 자)을 친히 몸으로 섬겼다. 교회도 좀 커지면 모든 일을 돈으로 때우려는 사람이 늘어난다.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섬기는 사람이 귀한 때가 되었다. 돈도 내고 몸으로도 섬기고... 귀한 일이다. 그런데 욥은 한 가지를 더 했다. 불의를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이만하면 보는 사람마다 듣는 사람마다 칭찬할 만하다(11).

8.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과 대비되는 표현을 생각해 보자.

과사: 길에서 죽는 것은 들보는 자도 없이 버려진 불행한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욥의 이 말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편안하게 맞는 복된 죽음을 일컫는 말이다.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을 기대하였다.

9. 한창 행복하던 시절의 욥의 삶은 무엇과 같았는지 세 가지로 요약해 보자(19-24)?

물가에 심기운 나무(19) 승승장구하는 용사(20) 지혜로운 지도자(21-24): 요약하면 '왕이 군중에 거함 같았다'. 왕같은 삶을 살았다는 말이다.

10. 이스라엘에는 뱀이나 저수지가 없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 세 가지는 무엇인가? 욥의 말이 그와 같았다는데...

이슬, 비, 늦은 비: 비는 겨울비를 가리키고, 늦은 비는 봄비를 가리킨다.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와야 하는 것들이다. 조금만 시기가 어긋나도, 모자라도 안 된다. 욥의 말이 그들에게 얼마나 필요적절한 것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

11.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웃으면(함소하여 동정함) 좋아할까?

자칫 잘못하면 봉변당하기 쉽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아무도 욥의 웃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

12. 잘 나가던 시절의 욥의 삶은 왕같은 삶이었다. 그러면서도 욥이 잊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것: 높은 자리에 앉아서 불쌍한 사람을 위로하기란 쉽지 않다. 위로한답시

고 말을 잘못 꺼내면 욥을 얻어먹기 일수다. 대통령이 서민행보를 한다고 시장을 다녀도 자칫 잘못 하면 비난만 뒤집어쓰기 쉽다. 그러나 욥의 위로는 위력이 있었다. 왕과 같은 위로자였다.

옴기 30 장

1. 30장은 29장과 아주 대조적이다(1, 9, 16절의 '이제는') 행복했던 그날들에 대한 추억이 29장이라면 고통스러운 현실이 30장이다. 29장의 옴을 '왕같은 옴'이라고 한다면 30장의 옴은 무엇이라고 할까?

짐승같은 옴: 가장 비천한 사람의 조롱거리며 양떼를 지키는 개보다 못한 처지다.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란다(29).

2. 옴을 조롱하는 젊은이들의 아버지는 '개보다 못한 것들'이라고 말해도 되는가?

좀 다르다: 우리말의 그 표현은 아무런 쓸모도 없이 못된 짓만 하는 개를 가리키지만 '양떼를 지키는 개'는 아주 유능한 일꾼이라서 의미가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좀 심하다.

3. 2-8절은 젊은이들에 대한 묘사인가, 아니며 그 젊은이들의 아버지들에 대한 묘사일까?

젊은이들: 2절의 '장년의 기력이 쇠한 자'(=젊어서 손에 힘이 있을 듯 하지만 기력이 쇠하여<표준새번역>) 8절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란 표현이 근거가 될 수 있겠다.

4. 젊은이들이 기력이 쇠한 이유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로 어떤 것을 먹었는가?

마른 흙, 짠 나물, 대싸리 뿌리: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먹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중에 마른 흙이 제일 먼저 나왔으니 나머지는 흙보다 더 못한 것인가? 지금도 허기를 메우기 위해서 흙을 먹는 아이들이 있다. 옛날 우리도 이런 아픔을 겪었다. '찢어지도록 가난했다'는 말이 그런 흔적을 가진 표현이다. 양식이 없으니 풀을 많이 먹었고 결국은 변비가 생기고 똥구멍이 찢어졌다는 뜻이다.

5. 궁핍하여 도적질을 하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실패하고 쫓겨나 결국은 짐승처럼 살고 있는 이런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생겼다. 그것은 무엇인가?

옴을 조롱하는 것: 이렇게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이 왜 옴을 조롱하고 미워할까? 자기들보다 더 못해 보여서? 옴이 이 사람들을 너무 비하한다고 비난할 일은 아니다. 결국은 자신의 처지를 말하려는 것이다. 어떻게 내가 이런 자들에게서 조롱을 받는 처지가 되었는가 말이다. 8절의 '비천한'이란 직역하면 '이름이 없는'이란 뜻이다. 이스라엘에서 이름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사회에서 이름이 없다는 것은 지극히 천하다는 뜻이 된다.

6. 밥벌이도 제대로 못하는(3-4) 것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다. 저런 인간들을 죽여, 말아?

그럴 능력도 없지만 마음도 없다.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으니(11): 옴은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느라고 이런 말을 할 사람에게는 차라리 '마귀의 장난' 때문이라고 말해주어야 한다. 애초에 사탄이 시작한 짓인데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옴의 고난이 아니기 때문이다.

7. 내 줄은 늘어지고 우리는 굴레를 벗었다(11). 굴레를 벗었으니 제 멋대로 날뛴다. 우리를 굴레 벗은 망아지에 비유하는 셈이다. 그러면 줄이 늘어져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옴의 현실을 무엇에다 비유하는 걸까?

활: 팽팽하게 당겨진 활은 생명력을 의미한다(29:20, 창 49:24). 활의 줄이 늘어졌다는 것은 무력해진 상태를 가리킨다.

8. 굴레를 벗은 자들이 제 멋대로 굴면서 하는 짓이 1) 내 우편에서 일어나 2) 내 발을 밀뜨리고 3)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길을 쌓는 것이다. '우편에서 일어나는 것'은 재판정에서 원고 노릇을 한다는 것이고, '발을 밀뜨리는 것'은 설 자리가 없도록 몰아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멸망시킬 길을 쌓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가리킬까?

성을 함락시키려고 토성을 쌓아올리는 것(14): 역본에 따라 다소 의미가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대체로 이렇게 보는 것이 무난해 보인다. 단순하게 조롱하던 차원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아예 적극적으로 파괴시키려는 모양이다. 자기보다 못해지면 이렇게 짓밟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가?

9. 성을 공격하여 파괴하듯이 우리가 내게 달려들었다. 그러니 영광도, 복록도 구름같이 사라지고, 놀람과 환난이 나를 옴킨다. 마음은 녹아내린다. 이 장면을 보면 옴의 처지가 어떤 사람과 비슷한가?

사로잡힌 왕: 전장에서 화려한 왕의 모습으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본 옴이 여기서는 은근히 점령당하여 온갖 치욕을 당한 왕의 모습으로 자신을 그린다.

10. 아픈 사람은 밤에 더 아프다. 온 세상이 고요해지면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문병은 한 밤중에 가는 것이 좋다! 18절의 '추하여져서'란 표현은 변형되었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내 옷을 변형시켜서 몸에 달라붙게 만들었다는 뜻이다. 마치 천으로 시체를 들들 감은 모습을 연상시킨다. 무엇에 대한 비유인가?

온 몸에 난 악창: 터지고 상처 난 곳에 고름이 말라붙고, 딱지가 앉아서 피부가 죄어드는 모습에 대

한 비유다. 그러니 진흙에 던져져 진흙인지 사람인지 분간도 잘 되지 않는 형국이다.

11.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고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도 않고 굽어보기만 하시니 이제 옴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곳으로 기꺼이 가겠단다 (23).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대를 하겠는가! 옴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침묵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아니하셔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성도도 있더라. 아마 성도가 아니라 뜻 아닐까?

12. 옴은 은근히 투정을 부리는 셈이다. 어떤 점에서 하나님은 자신보다 못한 분이신가?

자기는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서 울고, 빈궁한 자를 위해서 근심했는데(25) 이제 손을 펴고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24) 하나님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13.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화가 임한다면(26) 누가 복 받을 짓을 하겠는가? 엄청난 충격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마음이 어지러운 것은 당연하다(27). 옴이 이런 탄식을 뱉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는지 놀랍다. 우리도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생각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어느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까?

사 5:2(..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졸 포도를 맺혔도다), 그리고 롬 8:28.. : 하나님도 이런 옴의 심정을 잘 아신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어서 곧 아름답게 마무리될 것을 우리는 안다. 조금만 더 참으라고 응원을 하면 된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우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금 더 인내하면 선으로 깊으실 것을 믿어야 한다. 끝까지 절망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14. 햇볕에 쬐지도 않았는데 피부가 다 타버렸다면 감사할 일인가? 힘 안 들이고 썩은 셈 아닌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가령, (돈을) 쓰지도 않았는데 다 없어졌다면 도둑 맞았거나 엉뚱한 곳에 썼거나, 좌우간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뜻이다. 햇볕에 겹겹이 탄 피부는 건강미가 넘치겠지만 옴의 검은 피부는 온갖 피부병에 재가 덮인 것이다.

15. 왜 하필이면 이리와 타조일까?

이리의 울음소리는 외로움과 서글픔을 느끼게 하고, 타조의 울음소리는 목이 쉰듯 애절하고 시끄럽다.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다. 공회 중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어도 '어느 동네 개가 짖느냐?'는 식의 반응뿐이다.

16. 옴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다. 결말을 알기 때문이다. 혈전을 치르고 이긴 시합의 비디오를 보면서 아무리 많은 곁을 먹어도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옴의 이야기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 어떤 도움이 될까?

성도의 삶은 결론을 아는 삶이다: 절대로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승리로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빌 1:6). 예수님의 수난을 보면서 그분의 승리와 부활을 보아야 한다.

옴기 31 장

1. 처녀를 쳐다보면 안 되나?

옴욕을 품지 않았다는 뜻(마 5:28): 눈과 인약을 세웠다는 것은 단단히 결심하고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했다는 뜻이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생리적인 현상이나 심리적인 것까지 말하는 것은 아니다.

2. 옴이 악한 짓을 할 수 없는 이유를 가리키는 표현을 다 찾아보자.

위에 계시는 하나님(2, 28), 공의로우신 하나님(6), 국문하시는 하나님(14), 창조주 하나님(15), 심판하시는 하나님(23) 때문: 친구들이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에 대해서 말할 때 옴이러 악한 자들이 잘 살고 있지 않느냐고 옴 몸으로 항변하던 옴이 다시 친구들의 주장으로 돌아온 것인가? 옴이 말을 그렇게 해도 근본적인 생각은 친구들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살아왔다. 다만 자신이 당한 고난이 혼란스러울 뿐! 아직도 풀리지 않는 점이 있지만 자신이 아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3. 하나님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옴의 길을 감찰하시고 발걸음을 세고 계실까(4)? 신약에서는 머리털을 다 세신다니데(눅 12:7)?

전지전능하심을 의미함: 전능하신 그 분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악한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고백이다. '내가 이래도 교회의 장로(권사, 목사)인데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랬더라! 20세기 말 한국교회의 비극이다.

4.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불행하게도 '있다': 옴도 있고, 바리새인들 중에도 있고, 회심 이전의 바울도 그랬고(빌 3:6), 우리 주변에도 간혹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종의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완벽하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자조한다. 근본적으로는 그렇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롬 3:10).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 바울도 자신이 죄인임을 수 없이 고백했음에도 위대한 삶을 살았다. 더구나 우리는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힘 입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성도는 불신자들보다 훨씬 도덕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삶을 유지해야 한다.

5. 옴의 이 고백,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 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를 보면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손이나 눈이 범죄케 하거든 자르거나 뺏아버리라던 말씀(마 5:29-30, 18:8-9): 예수님의 이 말씀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니다. 그런 자조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제라도 결심하고 이렇게 살아보자. 물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는 일이 아니다.

6. 이웃의 문을 엿보는 것도 그렇게 큰 죄인가(9-11)?

옴욕을 품고 이웃의 아내를 노리는 것을 말함: 단순한 호기심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배우자 외에 애인이 한 명은 있어야 사람 취급을 받던 시절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제도인 가정을 허무는 엄청난 죄다. 그러다가 홍수로 멸절되었고,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에 사라졌고, 가나안 7족이 멸망당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7. 옛날, 종이 어디 사람이었던가? 그러나 옴은 종을 정말 사람으로 대접했다. 멸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의 종일지라도 진짜 주인이 따로 있음을 알았기 때문(15): 철저한 신전의식(코람 데오)을 가지고 살았다. 우리는 조금 낫다 싶으면 조금 못한 형제를 얕잡아 보기 일쑤다. 나와 비교하기 때문이다. 그 차이라는 것이 사실은 별 것 아닌데... 아무리 못한 인간이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고,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귀하지 않을 인간이 없다. 종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옴은 알고 있었다.

8. 가난한 자의 소원이 무엇일까? 부자가 되는 것? 과부의 눈에는 무엇이 보일까?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필품: 17절의 '식물', 20절의 '양털 (=의복)'이 그것이다.

9.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는 것 외에 또 칭찬받을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돌보아 주었다는 점(18): 그런 선행은 태어난 이후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가 되었던 모양이다. 엘리바스의 고소(22:7-9)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10. 재력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 외에 또 옴이 잘한 일은 무엇인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은 것(21): 재판을 시행하는 성문에서 도와주는 자가 있다는 것은 재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권력이 있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전혀 힘이 없는 고아를 부당하게 친 적이 없었다.

11. 옴이 손을 들어 고아를 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을 두려워했기 때문인가? (답에 하나님이란 말은

쓰지 말것)

어깨뼈가 떨어지거나 팔뚝이 부러지는 것: 고아에게 손을 대면(=책망이나 징벌) 자기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된다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절대로 손해 보는 짓이다.

12. 하나님의 재앙과 위엄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니?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할 수 없는 것은 가난한 자, 과부, 고아를 버려두는 짓 따위를 말한다: 하나님이 두려워 악한 짓은 절대로 할 수 없었다. 여기 두려움이란 말은 내용상 위엄에 대한 '경외'이다.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 하여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무슨 일든지 다 할 수 있는 성도가 많아서 걱정이다.

13. 욥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음에도 재력을 의지하지 않았다(24-25). 자연만물을 섬기는 우상숭배 행위도 하지 않았다(26-27). 그런 맥락에서 '손에 입 맞추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되는지' 생각해 보자.

너무 멀어서 혹은 너무 신성해서 직접 입을 맞추고 경의를 표할 수 없는 경우에 그것을 대신하는 상징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역시 엘리바스의 고소(22:24)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14. 본문에는 여러 가지 죄의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 유독 '재판장에게 벌 받을 죄악'은 무엇인가?

눈과 세운 언약을 배신하는 죄: 여자를 바라보거나(11), 천체를 바라보는 것(26)인데, 간음죄는 우상숭배죄와 동일한 것이다. 흔히 간음죄란 개인적인 권리에 속하는 것이라는 생각이기도 하지만 간음이 성행하면 결국은 사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것만도 아니다.

15.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죄인가(29-30)? 참고, 마 5:43

결과만 따지는 성문법상으로는 전혀 죄가 되지 않지만 내면의 세계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가 될 수 있다. 이런 높은 도덕률은 예수님께서서 비로소 가르치신 것 같은데 그전에 이미 욥은 성도로서 높은 도덕성을 지키고 있었다.

16. 욥은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면서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다. 현실은 영 말이 아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능능자의 대답: 일종의 판결문이다. 수십 년 동안 누명을 쓰고 살았던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을 들고 다니며 외치고 싶은 마음이다.

17. 욥이 어깨에 메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쓰고 왕족처럼 걸어서 대적에게 다가가기를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소송장인가?

내용상으로는 사면장, 무죄판결문이라야 맞다. 그러나 대적이 정식으로 소송을 걸면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재판을 받겠다는 각오를 피력한다고 보면 소송장이다. 어쨌든 무죄판결을 받게 되는 것을 확신하기에 하는 말이다.

18. 31장은 자신의 무죄함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29장(왕 같은 욥)의 과거회상과 30장(노예나 짐승 같은 욥)의 현재 모습을 언급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현재 모습이 욥의 죄에 대한 징벌이라면 29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그 사이에 이런 징계를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음을 확신하는 증거로 29장과 30장을 대비시킨 셈이다. 짐승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도 왕족 의식을 결코 버릴 수 없는 욥이다.

19. 욥이 제시한 죄악이 몇 가지인가?

14 가지: '내가 언제'란 표현(13번에 중복이 하나)과 '그리 하였으면'이란 표현(8번)을 참고하고 내용을 따라 재분류 하면 14 가지로 보는 것이 좋겠다(1-4, 5-8, 9-12, 13-15, 16-18, 19-20, 21-23, 24-25, 26-28, 29-31, 32, 33, 38, 39-40). 갯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류하다 보면 내용을 자세하게 살피게 되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해아려 보는 것이다.

옴기 32 장

1. 옴이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데 친구들이 대답을 그친 이유는 아마 구제불능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이 옴을 구제불능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자기들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인과응보라는 틀 뿐이다. 그 틀에 맞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가령 돈밖에 없는 사람이 돈으로 안 되는 일에 부닥치면 손을 들어야 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잘못이 없어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다른 틀)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엘리후를 소개하는 말이 다른 친구들을 소개하는 말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라.

더 자세하다: 족속을 밝히고, 아버지의 이름까지 소개했다. 그것은 엘리후가 더 중요한 인물인 것을 말해준다. 엘리후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고 바라겔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뜻이다. 노인들의 말을 여태 경청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잘 믿는 집안의 신실한 젊은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젊은 사람이 어른들 앞에서 화를 내도 괜찮은가?

무엇에 대한 화인가에 달렸다. 하나님의 섭리와 전능하심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분노는 정당하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엘리사가 왕에게(왕하 13:19), 예수님이 성전에서(막 11:15-17) 화를 내셨다.

4. 엘리후가 노를 발한 이유가 무엇인가?

옴의 말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한 것과 세 친구들은 옴의 잘못이 무엇인지 짚어내지도 못한 채 무리하게 자기 주장만 늘어놓았기 때문: 정말 엘리후를 화나게 한 사람은 옴이다. 옴에게 할 말을 참고 있었다(4). 옴의 긴 변론을 다 들으며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5. 옴의 말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을까?

옴의 의도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친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 죄가 없는데 이런 고생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 40:8에 따르면 엘리후의 말이 맞네! 결국은 옴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6. 엘리후가 기본은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7) 어른을 알아보고 때를 기다렸단다(6): 능구렁이다. 할 말이 없어서 잠잠히 있었던 것이 아니다.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억누르고 기다린 것은 자신의 연소함 때문이었다. 만만한 인간이 아니다.

7. 여태까지 아무런 말이 없었던 엘리후가 언제 '말을 하였다'는 말인가(7)? 많은 역본들은 7절을 '생각하기를'이라고 번역했다. 개역성경도 그런 뜻이 되도록 한 단어를 삽입해 보자.

내가 '속으로' 말하기를: 다른 곳에서 흔히 이런 말을 한다고 해도 되겠지만 노인들이 서로 변론할 동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자신보다 연로하신 어른들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잠잠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뜻이다.

8. 젊은 사람이 감히 대인, 노인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전능자의 기운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총명을 주셨다는 말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게 긴박진 표현이다. 기존의 모든 판을 뒤엎을 수 있는 발언이다. 이런 경우 어떻게 판별하지? 옴과 친구들은 잠잠히 듣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봐야 한다.

9. 세 친구의 변론에 대해서 엘리후는 무엇이라고 비난하는가(13-14)?

자기들이 하지 못했다고 해서 남들도 못한다고 말하지 말라(13): 자신들이 무지하여 옴의 잘못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옴을 이길 자는 하나님 뿐이라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는 당신들과 다른 방식으로 옴을 추궁하겠다는 것이다(14).

10. 엘리후가 여기서 갑자기 옴의 친구들을 3인칭으로 대하는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발언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함인 것 같다. 자신이 나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분들이 대답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15-16) 내가 할 말이 많고(18-20) 공정하기 때문이다(21-22): 자신이 나서야 하는 이유를 옴의 친구들에게 설명을 했다면(1-14) 이제는 일반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는 셈이다(15-22). 33:1-7절은 옴에게 그 이유를 설명한다. 여태 조용하던 사람치고는 서론이 좀 장황하다.

11. 할 말이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어디에 비유하는가?

봉한 포도주 = 터지기 일보직전의 새 가죽부대: 뚜껑만 따면 빵하고 터지는 샴페인과 같다고 할까? 그렇게도 말이 하고 싶을까? 큰 교회에 소속된 어느 진도사님이 '설교하고 싶어 죽겠는데 도무지 기회를 안 줘요' 하더라. 설교하고 싶어서 신학교에 갔는데 교회에서 기회를 안 주니까 그렇게 힘이 들더라. 그런가 보다!!

12. 21절의 '보다'와 22절의 '취하다'는 원문상 같은 단어(나사, 들어 올리다)다. 그러면 어떤 두 쌍의 단어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원문의 '나사'와 '아침'이란 두 쌍이 교차되어 쓰였다. 히브리 문학의 큰 특징 중의 하나다. 서로 교차하여 반복함으로 의미를 분명하게 강조하는 방식이다. 직역을 하면 '내가 내 얼굴을 어떤 특정인에게 들어 올리면(= 잘 대해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실(=죽게 하실) 것이기에 나는 결코 아침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가 된다.

욥기 33 장

1. '혀가 동한다'는 말은 '혀가 말을 한다'는 뜻이다. 마치 입 속에 갇혀 있던 혀가 이제 해방을 얻은 셈이다. 이 표현에 실린 엘리후의 감정과 의지는 무엇인가?

(감정) 할 말이 많았지만 갇힌 혀처럼 억누르고 있었다. (의지) 이제 마음껏 뉘눌게 하리라: 타고난 말쟁이일까, 웃기는 인간일까? 두고 봐야겠지만 대단한 말솜씨임에는 틀림없다.

2.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겠노라(3)! 말을 하려면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닌가?

그래도 그렇게 말해야 한다. 아니면 뭐라고 하나? 남들도 다 하는 말이니까 생략하고? 뻔한 말이라도 해야 한다. 검은 머리 파 뿌리가 되도록..., 뼈를 물을 각오로... 등등.

3. 엘리후는 자신을 욥과 비교해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한다(4-7). 이런 말을 하는 속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힘 입어 말한다: 자신의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은근히 내비친다. 그렇다고 해도 자신은 욥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거나 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한 것이다. 대화나 교제의 기본이다.

4. 욥의 말에 대한 엘리후의 요약, 혹은 느낌(9-11)은 정확할까?

욥의 말(16:11-22, 27:1-23, 31:35-40 등)을 인용하기는 하는데 좀 주관적이다: 욥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의 죄는 짓지 않았다'는 정도였고(13:23-27, 14:4) 자기 의를 강변해도 그것은 탄식의 다른 표현일 뿐이었음에도(13:4, 27:5)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준으로 다룬다. 표현은 비슷해도 수준이나 강도의 차이가 많이 다르다. 남의 말을 의도나 감정까지 정확하게 인용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자신의 생각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지도 모른다.

5. 욥이 의롭지 못하다고 엘리후가 제시한 근거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는 사실이다(12).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도 헛일인가? 하나님께서 욥의 순전함을 인정한 1:8 말씀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사람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그러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욥의 행위를 순전하다고 인정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인간은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하면서도(롬 3:10) 의로운 삶을 살았다. 구원 문제에 관한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사람(=의인)은 없지만 예수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의롭게 살아야 한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화'의 문제다. 이 본문에서도 '의'가 의미하는 범주가 다르다. 의롭지 못한 인간이 의롭게 살아야 한다? 의롭지 못한 욥이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다! 엘리후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욥을 향해서 이렇게 용감하게 책망할 수 있었다.

6.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을 일일이 설명하시지 않는다(13). 그러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이시다.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은 것에 대한 욥의 불평(31:35, 13:3)을 공박함: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표준새번역) 객관적으로는 그렇다. 문제는 하나님과 욥의 사이가 그런 사이가(=남남이) 아니란 점이다. 대답하실 수도 있고, 그럴 마음도 하나님께 있음을 엘리후는 알지 못한 셈이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응답하시는 것도 객관적인 관계를 떠나 부자지간처럼 친밀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7. 사람이 인식하든 말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그 중의 하나가 꿈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교훈하시려고(16): 욥의 고난도 이런 종류의 말씀이란 뜻이다. 즉 욥이 당한 고난이 피나 교만을 막아서 멸망치 않게 하시려는 연단의 의미가 있다(벧전 1:3-7)는 것이다. 다른 친구들의 주장과 전혀 다른 의견이다. 하나님의 의도에 훨씬 더 가까운 설명이다.

8.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꿈 밖에 없을까?

병상의 고통도 있다(19-22): 병상에서 곧 죽을 것만 같은 고통도 하나님의 징계, 곧 말씀하시는 하나의 방법이란 뜻에서 하는 말이다. 욥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중의 하나라는 말이다.

9. 어떻게 해서 병상에서 다 죽어가던 사람의 삶이 어린 아이보다 연하게 회복되는가?

해석자의 도움으로(23): 중보자가 있고, 대속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욥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된다면 회복될 수 있다. 그런 일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천사의 도움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엘리후의 주장이다. 중보, 대속의 개념을 엘리후가 어떻게 알았는지 놀랍다.

10. 만약 욥이 회복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가?

살은 어린 아이의 살, 하나님을 보게 됨, 의로워짐(25-26): 지금 옴의 피부는 누더기와 같이 된 상태다. 다시 어린 아이의 살이 된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요, 즐거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만사형통의 은혜를 받는 셈이다.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마저도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상황에서 벗어날 것이다.

11. 회복된 자가 부르는 노래의 핵심은 무엇인가?

회개(27)와 감사(28): 시비를 바꾸었다는 것은 옳은 일을 그릇된 것으로 바꾸었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는 반성이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견지셔서 회복시키셨다는 감사의 노래다.

12. 29절의 '모든 일'이라 하나님께서 꿈으로, 병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 하시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의견에 대한 요약이다. 적용을 해보면 왜 옴이 고난을 당한다고?

너를 살리려고(30).

13. 엘리후가 처음에는 아주 예의바른 젊은이처럼 굴더니 여기서는 무척 건방지다. 자신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누구랑 닮았는가?

꽃내기 목사: 하나님 앞에서 아무 것도 아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만이 더 거룩한 존재요, 교회의 모든 일에 관여해야 직성이 풀리는 목사 말이다. 그래서 장로회가 아니라 목사회라는 말을 듣는 목사 말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룩한(?) 자부심이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닐까?

고난은 정화의 수단이다. 이렇게 정화되어야 할 옴의 결함은 교만이다(17).

옵기 34 장

1. 엘리후가 부르는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

블록정 소수: 옵이나 세 친구를 가리켜 하는 말은 아니다. 자기의 말을 듣고 판단하라는 선포형 서두이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는 표현(사 1:2)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은연 중 자신도 지혜로운 자임을 내비친다(4절의 '우리끼리')

2. 전장에서 엘리후는 옵의 문제점이 '교만'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는 어떤 것을 문제로 지적하는가?

원망(5-6, 9) 혹은 휘방: 옵이 '의로운 자신을 대하는 하나님의 처사가 불만족스럽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휘방하며, 무익하다'고 말했다고 비난한다. 5-6절은 그렇게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말을 하고 했지만(9:22-24, 16:12-15, 27:2 등등) 엘리후가 말하는 의도와 같지는 않다. 그런 표현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은 아니다. 옵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기보다는 피상적으로만 보고 나름대로 판단한 7-8절은 지나치다.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이란 측면에서 봄으로 다른 친구들보다는 한 수 위였으나 여기서는 다시 같은 수준으로 돌아와 버렸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전지하심, 사랑, 교만한 자를 고통에 처함, 이런 사실을 들어 옵을 회개해야 할 죄인으로 몰아간다.

3. 우리말에 '...을 밥 먹듯이' 한다는 표현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유대식 표현이 있다면?

물 마시듯(?) 휘방과 어울리려면 '뱉어내는' 표현, 가령 '쌈뽕듯이'와 같은 표현이 더 적절할 텐데... 아무래도 물이 귀한 지역이다 보니 이런 표현이 더 익숙한 모양이다. 목이 갈한 사람이 물만 보면 들이키듯이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휘방한다는 뜻인가 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시 42:1)란 표현도 있구나.

4. 본문은 재판하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1-9절의 내용은 재판의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가?

고소: 지혜자들에게 옵에 대해서 판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재판의 시작인 셈이다. 그러면 10-30절이 검사의 논고에 해당한다.

5. 엘리후의 말에 따르면 옵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토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각각의 구절에서 찾아보자, 10-12, 13, 14-15, 18-20, 21-27, 33.

10-12: 공의로우신 하나님, **13:** 창조주(=절대주권자), **14-15:** 만물의 근원(사랑도), **18-20:** 전능하신 하나님, **21-27:** 전지하신 하나님, **33:** 최고의 심판자.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자체가 불평, 혹은 신성모독이다.

엘리후의 이 모든 대답이 틀린 것이 아님에도 옵에게 정확하게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가운데 자식을 위해서 모든 고통과 시련을 감수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측면이 빠졌다. 또, 옵이 원망과 불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한 것은 아니다. 옵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24:18-25)

6. 옵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10-12)?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잘못하실 리가 없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았다면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데...

7. 만물을 만드시고 유지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기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과 기운: 물질세계를 유지하고 있는 네 가지 힘은 만유인력, 전자기력, 핵력, 약력인데 이런 힘이 한꺼번에 빠진다면 이 세상은 바람 빠진 풍선이요, 끈이 끊어진 천막이다(참고, 뱀후 3:10의 '풀어짐'). 만물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이 따로 있다는 점에서 엘리후는 대단한 통찰력을 지녔다.

8. 엘리후의 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말이 있다면?

자기만 생각하지(14): 우리 인생을 돌아보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은 한 순간에 사라질 것이지만 자기만 생각하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이다.

9. 통치의 기본 중의 기본은 무엇인가?

공의(17): 잘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란다. 교실에서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는가?

10. 왕이나 귀인들에게 함부로 이런 말을 하시면(18)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나?

여기서 왕이나 귀인은 통치자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한 인간으로서 등장한 것이다. 백성의 통치자로 등장했다라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높낮이가 있을 수 있고, 더 부유한 자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말이다.

11.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27)가 누릴 복(?)은 무엇인가(22-25)?

숨을 곳도 없고(22), 시간을 팔 수도 없고(23), 뺨도 소용없다(24): 실수도 없고, 지치지도 않는다. 이런 하나님께서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불평, 원망을 하느냐는 것이다. 죄인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12. 29절의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란 표현은 대부분의 역본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로 번역했다. 개역성경이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침묵케 하다’란 말과 평강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28절과 관련해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침묵케 하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번역한 것 같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감히 따질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 더 옳아 보인다.

13.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참고, 신 31:17-18, 렘 33:5, 겔 39:23-24)? ‘얼굴이 안 보이지!’ 이렇지 말고...

말망: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뜻이다. 버림을 당했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필경 망할 수밖에 없다.

14. 엘리후는 재판에 관한 1인 3역을 했다. 고소인(1-9), 검사(10-30), 여기서(31-37) 누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가?

재판장: 하나님의 공의와 절대주권을 들어 옴을 비난한 후 이제 유죄판결을 내린다.

15. 악한 자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29). 그런 자들 중에 누가 하나님께 잘못을 빌더냐(31-32)?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옴에게 그들을 본받지 말고 회개하라는 뜻이다. 다른 사람들을 언급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옴에게 하는 말이다. 다시는 범 죄치 않겠다고 말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아니냐(37)는 공박이다.

16. 33절은 ‘하나님께서 네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판결을 싫어하느냐?’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어떻게 하면 될지 네가 판결해봐라: 은연 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셈이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리셨다고 해도 싫다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무조건 회개하라는 뜻이다. 엘리후의 이 말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 아닌데!

17.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보면서도 끝까지 죽어봐라? 그런 의도는 아니다. 언제까지 이런 시험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걸까?

옴이 회개할 때까지: 말은 험해도 빨리 회개하라는 의도이다. 엘리후의 확신도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회개할 때까지 고생을 더 해야 한다.

옴기 35 장

1. 전도하다가 간혹 듣게 된 말 중에 ‘교회 가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말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엘리후의 어느 말이 옴을 이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의로운줄 유익이 무엇인가?: 2-3절을 요약하면 이런 말이 되는데 옴이 그랬다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한 불평과 원망(7:20, 9:22-24, 12:6)은 ‘말은 그렇게 해도 본심은 그것이 아니다’는 식으로 가볍게 보아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과장한다. 심하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듣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이해하고 비난하는 일은 너무 흔한 일이다. 사람의 말이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온전한 도구가 아니라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하늘은 왜 쳐다보라고 하는가?

하늘에 대고 할 일이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3. 하늘을 향해서 침을 뱉으면 하늘이 노여워할까? 엘리후의 견해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7:17-21에서 옴도 그렇게 말했다. 능력으로만 본다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렇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중에 절대적 초월성만 강조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

4. 엘리후는 ‘백번 양보해서 너의 말대로 내가 의롭다고 하자.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고 공박했다. 옴의 의로운 생활이 하나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가?

옴의 고난이 시작된 것은 옴의 의로운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자랑 때문이었다. 옴의 의로움이 하나님을 몹시 기쁘게 했다. 상관이 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인간 세상에 내재하셔서 인간과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이시다.

5. 하나님과 인간의 능력에 관한 엘리후의 말(6-8)이 맞다. 토기장이와 토기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자기 마음대로 토기를 빚는 하나님이란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그런 토기장이가 아니란다. 그럼 어떤 토기장이인가? 엘리후가 놓친 점이 무엇인가?

토기를 사랑하는 토기장이: 롬 9장에서 바울이 토기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기본내키는 대로 합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잠시 접어두고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잘못하면 매를 댈 수 있다고 선언하고도 매를 들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과 같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이런 관심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땅과 하늘처럼 그렇게 먼 것이 아니라 점을 놓쳤다.

6. 도움을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기 때문(10-11): 은근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옴을 비난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해야 기도한다는 언급도 옴의 삶과는 달라 보인다. 이런 고통을 당하기 전에 옴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한다는 엘리후의 말이 의심스럽다.

7. 엘리후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하는지 두 가지로 정리해보자(10-11).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옥에 갇혀서도 기도하며 찬송하던 장면을 연상케 한다.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노래하게 하신다.

짐승이나 새와는 다르게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짐승을 훈련시키는 방법과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다는 뜻을 포함하는 말이다. 짐승은 기계처럼 먹는 것과 매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훈련된다. 사람은? 권선징악이나 상선벌악이라는 기계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잘 하고 있는데도 채찍을 가해서 더 높은 단계로 이끌기도 한다.

8.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헛된 부르짖음을 돌아보지 않으시는데(12-13) 하물며 너를 돌아보시겠느냐(14)? 말하자면 교만한 자의 최고수가 옴이라는 말이다. 도대체 옴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러는가?

옴의 무죄 확신: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는 말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라는 확신을 의미하는 바 엘리후가 보기에는 옴의 이런 태도가 가장 교만한 것으로 보인다.

9. 15-16절을 펼렁한 아이들이 힘없는 아이를 만만하게 보고 하는 말로 바꾸어 보자.

봐줬더니 기어올라? 옴을 너무 얕잡아 본다. 처음에는 예의바른 젊은이답게 등장하더니 옴보다 더 교만해 보인다. 진리를 안다고 자부심을 가진 자들 중에는 예의바르지 못한 분들이 적지 않다. 설교 시간에 반말이나 욕설을 합부로 하는 분들도 그런 경우 아닐까?

옵기 36 장

1. 엘리후의 과하다싶은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생각: 하나님을 위해 말한다(2); 하나님께 의를 돌려보낸다(3). 그래서 자신은 지식을 구비하고 있다(4).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감한 사람만큼 온감한 사람은 없다. 문제는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는지 판단하는 일이다.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만큼 옳고집도 없다.

2. 하나님께 의를 돌려보낸다(3)는 말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명하겠다는 뜻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먼 데서 지식을 취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수단인 셈인데 무슨 의미일까?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 먼 곳 중에서도 가장 먼 곳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세상의 온갖 지혜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마저 동원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엘리후의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 공의로우신 분이시다(5-12).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될 것을... 아, 참! 이렇게 요약하면 빠진 것이 있는데 뭘까?

사랑: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신다(5)는 것은 사랑으로 통치하신다는 말이다. 전지전능 하신 분이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말은 죄인된 인생에게는 무서운 말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죄인된 인생을 멸시치 아니 하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런 하나님께 불평(16:9, 30:21)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셈이다.

4. 의인이 왜 누설(사슬)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히게 될까?

허물과 교만한 행위: 의인일지라도 이런 일에 휘말릴 수 있는데, 혹시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서라도 교훈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신다(9-10)는 점에 강조점이 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지’라는 세 친구의 주장과 강조점이 다르다. 세 친구는 의인이 당한 고난의 원인(=옳의 책임)에, 엘리후는 고난의 선용에 관심이 더 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원인을 따지던 제자들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더 관심이 있던 예수님처럼!

5. 13-14절과 15절은 어느 절의 반복인가?

13-14절은 12절, 15절은 11절의 반복: 역순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읽기도 쉽고 내용도 선명해진다.

6. 악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징계를 받으면 더 반발하는 것(13): 매를 들었을 때 화를 내며 대드는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7. 악한 자도 오래 살텐데? 욕을 많이 얻어먹을수록 오래 산다는 말도 있던데? 악한 자들이 남창과 함께 죽으려면 남창의 수가 모자랄 텐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다: 젊어서, 그것도 부끄럽게 죽는다. 설령 오래 산다고 해도 산다고 사는 게 아니다. 영원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옵기의 배경이 영원을 깔고 있는가?

8. 이왕에 구원하시려면 좀 일찍 구원하시면 안 될까?

공고함마저 의미가 있기 때문: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큰 사람과 어려움을 딛고 큰 사람은 많이 다르다. 제대로 된 인간이 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고난은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인가 보다. 이런 고난을 구원의 방편으로 쓰시기 때문에 허용하셨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벌은 동시에 구원의 방편이기도 하다.

9. 엘리후가 고난을 당하는 의인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결국은 옳은 어떤 자로 취급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옳에 관한 얘기가 맞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도 인간을 모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조직신학의 구조가 신론(하나님에 대해서), 인간론, 구원론(예수님에 대해서)의 순으로 되어있음을 기억하자.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만다.

10. 하나님에 대한 엘리후의 긴 연설의 핵심은 22-23절이다. 이것을 더욱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감히 누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찬양할 뿐 감히 누가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엘리후의 요지다. 옳에게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굴복하라는 권면이다.

11.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무엇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가?

물의 순환: 온도와 압력에 따라 물이 삼태(고체, 액체, 기체)로 변하는 것을 발견한 학자는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BC 640-546)다. 물이 증발하여 비가 되어 내리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것도 자연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한 이후(16, 17C)다. 번개가 전기적인 현상임을 확인한 사람은 미국의 프랭클린이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엘리후의 설명은 대단히 정밀하다.

욥기 37 장

1. 엘리후는 자연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하는 중이다(36:26-37:24). 단순하게 머리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듯 정신이 없다(1)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워 떨었고, 떠나시기를 원했다(솔 20:19, 눅 5:8). 그렇게 두렵기만 한 하나님을 예수님은 인자하신 아버지로 우리 곁에 불러주셨다.

2. 하나님께서 자연만물을 주관하시는 예로 든 것이 무엇인가?

천둥, 번개, 눈, 비(적은 비와 큰 비), 바람, 구름: 이것들이 단순한 자연법칙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주장이다. 자연법칙도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므로 자연법칙과 하나님의 섭리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 일반인들이 말하는 자연의 법칙이란 하나님과 상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후 자연법칙에 맡겨두고 전혀 간여하지 않으신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일반은총이 있고 특별은총이 있듯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연법칙에도 개입하셔서 뜻대로 운행할 수 있다(창 7:10-12, 수 10:12-13, 왕상 18:41-46, 마 14:25).

3.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기이하고, 하나님의 일은 헤아릴 수 없다(5). 그러니까 우쭐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다(23-24).

4. 하나님께서 눈과 비로 사람의 손을 봉하신다(6-7).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일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조용히 물러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라는 것이다.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내는 사람이 적지 않다. 때로는 일에서 물러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느끼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눈과 비를 주신단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눈과 비를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과 비를 싫어하거나 원망하지는 않는가?

5. 짐승들이 겨울잠을 자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게 하시기 때문(6-8) 생물 시간에는 '양식이 부족한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라고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눈과 비를 내려 사람의 손을 봉하게 하시니 짐승들은 겨울잠을 자게 하시니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 것이 정답이다. 기온의 변화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도 하나님의 섭리이다.

6. 자연현상이 고대에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신비였지만 자연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신비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많다. 하나님도 대단하시지만 인간도 대단하다고 뼈기는 셈이다.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한 마디 해줄까?

뉴턴의 말이 제격이다. 아인슈타인 이전 최고의 과학자이지만 자신이 이룩한 업적을 바닷가에서 주는 예쁜 조개껍질 하나'로 표현했다. 그 앞에 펼쳐진 넓은 바다는 아직 들여다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세계라는 말이다. 조금 알게 되었다고 뼈기는 모습은 갓 글자를 배워서 뼈기는 초등학생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 오늘 우리가 모르는 것도 여전히 많다는 것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의 말이다.

7. 무엇이든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위대한 도구가 되겠지만 여기 본문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자연현상 중에서 가장 유용한 도구는 무엇인가?

구름: 온 세상의(12) 정벌의 도구도 되고, 공홍의 도구도 된다. 토지를 위한다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니 공홍의 도구에 포함시키면 되겠다. 구름의 조성, 운행을 이용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8. 엘리후의 권유에 따르면 욥이 잘 생각해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 2가지는 무엇인가?

욥의 어리석음(네가 아느냐, ~할 수 있느냐?)과 하나님의 기묘하심

9. 엘리후는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우리는 모르겠다(19). 네가 알거든 가르쳐 다오.'라고 말한다. 엘리후가 언급한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가(15-19)?

구름에서 번개가 치는 것, 구름이 평평하게 뜬 것, 남풍이 불 때 따뜻한 까닭, 하늘이 펼쳐진 까닭: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되는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인생이 알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이스라엘의 남풍은 열풍이다. 폭풍처럼 야단스럽지는 않지만 더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란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청동을 주조해서 얇고 둥글게 펼쳐놓은 것처럼 여겼다.

10.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모르겠다. 똑똑한 네가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19)은 결코 자기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엘리후는 어느 정도로 똑똑한가?

하나님께 해서는 안될 말을 하다가 멸망당하는 짓을 하지 않을 만큼: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어떻

게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겠는가? 낸들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는가?’ 다시 말하면 ‘당신 보다 더 똑똑한 나도 가만히 있는데?’라는 말이다.

11. 구름이 태양을 가리는 수도 있다. 바람이 불어 구름이 지나가면 다시 태양이 보인다.’ 이런 말이야 누군들 못 하나? 이게 무슨 대단한 지혜라고?

흔히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의미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의 때로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은혜에 대한 비유다.

12. 옛 사람들에게는 북방과 금은 아주 밀접한 관계였던 모양이다. 미국의 서부를 생각하면 저절로 금이 연상되던 시절도 있었다(그 시절에 금을 찾으러 서부로 몰려간 사람들을 가리켜 *forty-niner*라고 한다. 1849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엇이 연상된다는 말인가?

위업(22): 하나님에게 함부로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지적인 셈이다(24b). 우리가 그 분을 어떻게 해볼 수도 없으니(23) 할 수 있는 일은 경외하는 것뿐이다(24a).

13. 엘리후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욥이 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은 욥의 주인공이 욥이 아니란 증거다. 욥의 대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후라는 바람잡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시키려는 의도 때문이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요한처럼 하나님의 등장을 앞두고 엘리후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셈이다. 욥기 저자의 의도가 그런 것 같다.

14. 엘리후의 변론이 끝났다. 엘리후의 말은 맞는 말인가?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다. 문제는 그 옳은 말이 욥을 위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옳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옳다고 최선이 아니라는 말이다. 때로는 옳은 말이 사람을 잡는다. 옳은 말보다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다. 나름대로 충성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수하거든 실수를 지적하기 전에 밥부터 사고, 수고했다고 위로하고, 조심스럽게 옳은 말을 한 마디만 하라.

욥기 38 장(38:1-38)

1. 왜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실까?

폭풍은 일종의 길나장이다: 원님이 행차를 해도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나장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혼자서 조용하게 나타나시면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꼭 이런 기상현상이 있었다(삿 5:4-5, 시 18:8-16, 왕상 19:11-13).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셈이다. 더구나 공적인 말씀을 하실 때는 더욱 그러했다(출 19:9-20).

2. 욥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인가?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가?

인생이 아무리 완벽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한 자일뿐이다.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다가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때로는 물러서야 한다. 내 말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능력을 믿는다면 말이다. 자신의 말이 옳다고 믿고 끝까지 우기는 것이 결국은 무지한 소치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인간이라면!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행위가 그렇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에게 그 행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다.

3. 허리는 왜 묶는가?

한 판 붙자는 뜻이다. 지금까지 욥의 태도가 그러했다는 점을 지적하시는 것이다. 정 그렇다면 제대로 붙여보자는 식이다.

4. 드디어 시험을 친다(38-41장). 우선 38:4-38절까지 문제 수가 몇 개이며 몇 개나 답을 하고 몇 개나 맞출까?

크게 보면 9개, 작게 보면 37(혹은 39)개: 작게 보면 절수와 거의 비슷하다. 41장까지 가보면 거의 100 문항인데 욥은 손도 대지 못한 백지 답안을 제출한다. 할 말이 전혀 없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얼마나 할 말이 많은가하는 언젠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한 마디의 말도 할 필요가 없을 때가 올 것이다. 오직 감격에 겨운 찬양 외에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5. 땅의 창조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가?

건축: 도량(크기)을 정하는 것은 설계를 의미하고, 준승(척량줄)을 띄우는 것은 시공을 가리키는 셈이다. 지구가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잘 설계된 건물과 같다. 아래의 글을 참조하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표현(창 1장)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반면에 욥기서는 '지혜'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셈이다. 대답해 달라는 욥의 요구에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함과 지혜로움을 계시 하셨다. 더 나은 답 아닌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6. 땅의 창조에 욥이 기여한 것이 무엇인가?

최소한 방해 놓지는 않았다, 아예 존재 자체가 없었으므로: 아버지의 질문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장하다, 큰 일 했다'고 하실 거다.

7.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은 것과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건축 단계마다 있는 축제 중의 하나: 건물을 세울 때는 각 단계마다(기공식, 상량식, 준공식, 헌당식) 떠들썩하게 잔치를 하는 법이다.

8. '태에서 나옴', '강보'라는 표현은 바다의 조성을 해산에 비유하는 말이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옷을 입히듯이 바다를 만드셨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바다를 조성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문하신 것이 무엇인가?

절대로 육지를 침범하지 못한다: 혹시라도 바다가 넘쳐서 육지를 덮어버리면 어떡하지? 포항의 송도에서 바다를 보며 자랄 때 이런 염려를 한 적이 있다. 안심해도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명하셨기 때문이다(8, 11). 홍수가 나서 시내가 물바다가 되었을 때 송도에 사는 사람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다. 착한 사람이다. 그 판국에 남의 걱정까지 다 하고. 그러나 물에 잠길 염려가 전혀 없는 곳이 송도다! 시내는 가슴까지 물이 차올랐지만 송도에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러나 현대인의 오만이 그런 일을 가능케 하고 있으니, 장하다!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단다. 자랑스러운 과학문명이 언제 재앙의 원흉으로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

9. 아침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했느냐고 묻는 걸까(12)?

동이 틀지어다: 새벽에게 명하여 그 처소에서 일어나 온 땅을 비추도록 했느냐는 말이다. 그러면 밤 동안 설치던 악인들이 잠잠해진다. 이렇게 동이 터오는 것은 지구의 자전으로 말미암는 일이므로 '네가 자구의 자전을 명하였느냐?' 즉 지구가 자전하도록 내가 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다.

10. 본문에 지구의 자전을 말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14절: 고대의 도장은 진흙판에 한 바퀴 굴러서 찍는 것이었다. 지구가 그렇게 변화한다는 것은 자전

을 내포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지구의 모습이 옷같이 선명하게 드러남을 의미한다. ‘옷같이’라는 말은 알록달록한 색깔이나 주름 잡힌 것을 의미한다. 아침이 되면 지구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 일을 네가 했느냐는 것이다.

11. 깊은 물밑과 사망의 문이 무슨 관련이 있기에 함께 등장하는 걸까(16-17, 26:5-6)?

깊은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사망을 가리켜 음부라고도 한다. 땅 속 깊은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12. 욥의 나이가 얼마나 되길래 ‘나이가 많으니 그 정도는 알겠지?’ 하시는가(21)?

비꼬는 말이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본문에 많이 등장하는 ‘알지? 있었지? 오래 살았지?’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다.

13. 바다 근원이거나 사망의 문은 그래도 어디쯤 있겠다는 방향 정도는 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광명과 흑암은 정말 어디에 있을까? 어차피 우리도 답을 하지 못한다. 왜 못하는지 한 마디라도 말해보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비추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 그래서 낮과 밤이 만들어졌다. 이 낮과 밤은 오늘의 낮과 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태양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낮과 밤이다. 이 낮과 밤도 모르고, 빛의 근원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의 처소가 어디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다!

14. 질문의 요지는 광명이나 흑암을 처소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지경으로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여기서 ‘지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래야 질문의 뜻이라도 알아들은 셈이다.

빛과 어두움의 경계선, 혹은 비유권대 ‘일 터’: 마치 집에서 불러내어 갈 수 있는 마지막 장소까지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빛이 움직이면 경계선도 움직이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지만 비유권대 집에서 나와서 직장에서 일을 다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15. 눈이나 우박을 보관하는 곳을 곳간이나 창고라고 표현하는 것은 눈이나 우박을 아주 귀한 것으로 취급하는 셈이다(신 28:12)? 눈이나 우박이 뭐라고 그런 곳에 보관하는 걸까?

눈이 많이 오면 그 해에 흉년이 든다는 말이 있다. 눈이나 우박이 대기 중의 질소를 땅에 공급해주는 셈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땅에 내려주는 특별한 선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전쟁이나 심판을 위한 무기일 수도 있다(24, 출 9:22-26, 수 10:11).

16. ‘내가 살아 있으니 하나님도 있는 것이지 내가 죽고 없으면 하나님이 어쩔 건데?’ 고등학생 시절에 어떤 불신친구가 던진 말이다. 무엇이라고 대답하면 좋을까? 특히, 26절을 참고해서 생각해 보자.

세상의 중심을 자기에게 두고, 자신이 죽고나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기에 하는 말이다. 사람이 없는 땅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란 사람의 존재유무에 따라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란 뜻이다. ‘넌 나고 싶어서 낳느냐?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려고 죽었는데 죽고보니 너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손바닥에 놓여져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대답해줬다.

17. 22-30절은 한 마디로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다. 무슨 일을 하시기에 그런가?

자연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18. 묘성(황소자리의 개의 별)은 하나의 떨기(뭉치)이고, 삼성(오리온자리의 가운데 세 별)은 띠로 매여져 있다는 말이다.

19. ‘번개를 보내서 네게 말을 전하게 할 수 있느냐?’는 이 물음에 오늘 우리는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 무엇 때문에?

무선통신: 벤자민 프랭클린은 최초로 연을 이용해 번개의 비밀을 알아냈고 1837년 미국의 발명가 새뮤얼 모스는 전신기를 발명하고 전신부호를 고안해냈다. 전기 통신에 있어서 전류의 장, 단, 강, 약의 조합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전신부호를 고안해낸 모스는 처음으로 전신기를 시험하기 위해 워싱턴에 있는 제자인 영국 출신의 발명가인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파로 보냈다.

20.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토록 목말라 하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번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 대신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문서답 아닌가?

그럴 수밖에 없다(동문서답이 아니라 바른 대답이다) 욥의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가령,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정말 자기 아버지가 맞느냐고 따지면 증거를 동원해서 증명해야 하나? 아니면 웃고 마는가? 욥이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야 했다는 말이다. 그래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꾸로 ‘네가 누구냐?’고 묻고 계신다. 성경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답다. 다른 신들에 대한 기록과 비교해 보면 이런 점이 더욱 두드러진다.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도 이와 비슷하다.

21. 욥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신이 옳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셈이다.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너는 누구냐?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고 계속 물으신다. 그러면 잘못이 없음에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인과응보, 상선벌악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욥의 수많은 질문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 무슨 할 말이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으로 끝인데?

22. 하나님은 지구의 기초와 설계, 바다의 경계와 통제, 아침 노을의 신비, 바다 속 신비, 빛과 어둠의 관계, 기후와 성좌의 신비, 기상 현상을 주관하셨다. 이와 대비되는 욥의 행위를 세 단어로 요약한다면?

부재, 무지, 무능: ‘어디 있었느냐? 아느냐?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이다.

[참고: 간편하게 요약한 것임] 우리의 창조된 지구

David V. Bassett

지구는 생명체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교하게 제작되어지고, 조절되었으며, 운행되고 있는데 변하기 쉬운 무수한 요소들 가운데 어떤 하나라도 부재하거나 약간의 변경이 일어난다면 생물체들은 존재할 수 없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들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사항들 중에서 두드러진 것 몇 가지를 숙고하여 보자.

- (1) **물의 풍부함:** 이 흐르는 보물은 살아있는 세포들의 유일한 용매와 배지로서 독특한 화학적 물리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지구의 70% 이상이 3억2천6백만 입방마일의 물로 뒤덮여 있다. 이것은 지구가 평탄한 구형일 경우 2.55km(8,500피트, 1.6마일) 깊이로 지구를 뒤덮을 수 있는 양이다. (창 1:2,10b, 욥 38:34, 시 33:7, 계 14:7b, 창 7:10, 시 104:6)
- (2) **대양을 청소하고 있는 밀물과 썰물:** 지구의 조수 순환에 의한(달의 인력에 기인한) 밀물과 썰물은 전 세계의 대양들과 대륙 해안들을 정화시키고 있다. (잠 8:29a, 욥 26:10, 욥 38: 11, 시 104:9)
- (3) **이상적인 지구의 크기와 질량:** 6,378km의 적도반경과 6.588×10²³ 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지구는 완벽한 중력적 인력과 생물체들에게 적절한 대기압을 제공하고 있다. (욥 28:25, 사 40:12)
- (4)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대기:** 지구는 사과 껍질처럼 행성을 싸고 있는 얇고 섬세한 기체막에 매달려 있다. 대기(질소 78%, 산소 21%, 기타 1%)의 99% 이상은 고도 80km 아래에 존재하지만, 그것은 1) 사람과 동물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 순환을 제공하고, 2) 생물들을 위협하는 극도의 뜨거움과 한랭을 피하도록 적절한 온도 범위를 갖게 하며, 3)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유성과 같은 물체들과 태양의 자외선을 막아주고 있다. (창 1:20b, 욥 37:18, 시 104:3,13)
- (5) **보호용 자기장:** 밴알렌 방사능대(Van Allen radiation belts), 전리층, 내부 보호막인 오존층에 의해서 보완되어지고 있는 지구의 자기장(magnetic field)은 우주에서 들어오는 유해한 입자들과 고주파 우주선의 폭격으로부터 우리들을 방어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포들 간의 의사소통과 생물들이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잠 8:27, 시 5:12)
- (6) **적절한 공전궤도의 형태:** 거의 9억6천만 km의 원주 거리를 가지고 태양을 공전하는 지구의 공전궤도는 극단적인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의 원형이다. (시 19:4b-6)
- (7) **완벽한 공전궤도의 반경:** 태양과 지구의 평균 거리인 1억4960만 km(1 A.U., 또는 1 천문단위라고 불려짐)는 우리의 지구가 14.4 (58) 의 이상적인 표면 온도와 7.2 (45) 의 평균 대양온도를 가지게 한다. 사실, 일사량(insolation, 태양 복사선의 강도)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지구 공전궤도의 반경은 생물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태양계 내에서 가장 적절한 거리이다. (창 1:14-18, 시 74:16)
- (8) **공전궤도 속력과 기간:** 정확하게 365.256 날의 공전 기간을 갖고 있는 지구는 믿을 수 없는 속도인 약 시속 10만7천km(29km/초 이상)로 우주 공간을 달리고 있으며, 우리 지구의 계절적인 길이는 농업을 가능하게 한다. (창 1:14)
- (9) **회전축의 각도:** 지구 자전축의 23.5도 기울어짐은 지구의 기후 형태가 유리하도록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 계절이 있도록 하며, 북반구에 많은 육지들을 이용가능하게 하고, 곡식의 경작에 필요한 비옥한 토양을 증가시키고 있다. (창 8:22, 시 74:17)
- (10) **지구의 자전 속도:** 지구의 항성일(sidereal day)인 23시간 56분 4.09초는 지구 표면의 적절하고 균일한 가열과 냉각, 대기 기류의 재순환, 그리고 전 지구적 수문학적 주기의 대양 흐름이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 (전 1:5-7, 시 135:7, 사 55:10)

생물체들이 견딜 수 있는 한계 범위는 극도로 좁다. 이러한 요인들이 모두 우연히 동시에 존재하게 될 수학적 확률은 제로다. 지구에서만 유일하게 관측되는 이러한 생명체에 필요한 선행조건들과 필수요소들이 적절하게 조합되어 존재한다는 것은 지적인, 그리고 어떤 목적에 의한 설계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름답게 균형잡힌 생명유지 시스템이 단지 어쩌다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것은 맹목적인 우연에 대한 불굴의 신념을 필요로 한다. 정직한 관찰자(과학자)라면 이 지구는 우리들이 살아가도록 설계되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는 생명체를 위해 독특하게 설계되었다.

욥기 39 장 (38:39-39:30)

1. '동물의 신비' 혹은 '자연의 신비'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미물이라도 생존을 위한 지혜는 감탄을 자아낸다. 이런 미물들조차 어떻게 놀라운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본능적인 지혜를 주셨다(38:41): 암사자나 젊은 사자는 강한 능력을 지닌 짐승이요 까마귀 새끼는 가장 약한 짐승을 의미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먹이신다는 뜻이다. 진화론자들은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때로는 '자연'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욥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신다. 어느 정도 학습의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지혜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습득한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어진 지혜다. 인간을 제외하고는 생존 이외의 것에 관심을 가지는 지혜를 가진 짐승은 없다.

2. 짐승들이 짝을 찾고, 교미하며, 새끼 낳는 일을 누가 가르쳐 주는 걸까?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안다. 새끼를 번식시키기 위해서 온 몸을 던진다.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지혜에는 새끼를 번식시키는 지혜까지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학자들이 온갖 고생을 다 해서 연구하고 관찰한 결과는 우리를 경탄케 한다. 놀라운 지혜자의 숨씨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산 염소나 암사슴은 사람의 눈이 잘 닿지 않는 곳에서 산다. 이런 짐승들조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욥을 그냥 그렇게 버려두시겠느냐?

3. 암사슴이 새끼를 배고 낳을 때까지 기한이 사슴마다 일정한가?

모든 짐승들이 종류별로 똑같다: 알을 품어서 부화하기까지 걸리는 날자나 새끼를 배고 낳을 때까지 걸리는 날 수가 종별로 똑같다. 아무렇게나 낳는 것이 아니라 설계된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기한을 정한 것도 하나님이시니 욥의 고난도 때가 되면 해결될 문제라는 것을 은근히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

4. 새끼를 낳아서 무슨 득이 있어야지 고생해서 낳으면 그냥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데 뭣하러 고생스럽게 새끼를 낳는 걸까?

생존본능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절의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라는 말은 '그 괴로움을 보내버리며'라는 말이다. 따라서 '그 괴로움'이란 자기가 낳은 새끼를 가리킬 수도 있다.

5. 들나귀와 들소는 어떤 점이 같은가?

길을 돌릴 수 없는 짐승: 사람에게 길들여져 가축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들나귀가 사람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들소가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특성을 주셨기 때문이다. 역으로 개가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는 것이나 소가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들나귀와 들소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시니 욥에게는 더욱 그러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손에서 놓여나기를 원했던 것(3:17-19)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6. 타조의 특징은 무엇인가?

새끼를 돌보지 않는다(애 4:3):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도망칠 재주는 주셨다(18).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근히 '너 혹시 타조 아니냐?'고 묻는 것 아닐까?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을 은근히 질책하는 것 같기도 하다. 들대가리 타조를 닮은 욥아!

7. 전쟁에 쓰이는 군마의 힘, 흘날리는 갈기, 용맹스러움을 잘 묘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욥에게 말을 그렇게 만들 능력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말을 군마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이 우주선을 만들어 수년간의 항해 끝에 목성, 해왕성에 도달케 한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행성들이 예측 가능한 상태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의 지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을 정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지혜에 먼저 감사해야 한다. 25절의 '소소히 울며'는 '헛헛거리며 콧소리를 내며'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8. 하나님께서 매나 독수리에게는 어떤 지혜를 주셨는가?

매가 남방으로 향하는 것: 아마도 계절을 따라 이동하는 것
독수리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멀리서도 먹잇감을 찾아내는 능력을 갖춘 것

옴기 40 장

1.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옴의 잘못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 자세(2): 뒤집어 말하면 옴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서 이런 고통스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런 일이 생기고 난 후에 옴이 취한 태도만을 지적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책망이 아니다. 주의만 조금 주는 것이다.

2.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면 당당하게 대답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더니(13:22, 14:15) 막상 하나님께서 대답하라고 하니까 대답하지 못할까(5)?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그럴 수밖에 없다: 원래 사람이 멀리 있을 때는 큰 소리를 칠 수 있지만 막상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법이다.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3. 대답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옴에게 왜 또 대답을 강요하시는가(7)?

귀여운 아들을 집적거리는 셈: 하나님에게 옴은 귀한 아들이다. 못한다고 빼는 어린 아들에게 자꾸 해보라고 귀찮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즐거움 중 하나다. 그러다가 한 견수를 발견하면 엄청난 선물을 주려고 집적거리는 아버지의 장난이다. 화난 것처럼 말을 해도 화가 아니다.

4. 옴의 의로움은 하나님도 인정하셨다. 그렇다고 옴이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는 셈이다(8). 그러면 옴이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했어야 옳은가?

자신의 의로움조차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의로움이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27:6)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자신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수 없다. 말하자면 잘못 없이도 하나님께 매를 맞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아들이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잘못이 없는데 매를 맞을 수는 없다. 그러나 아버지나 선생님의 생각으로는 잘못이 없어도 매를 맞을 수 있다. 기계나 자판기가 아닌 자유의지에 따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생각했어야 했다.

5. 옴이 아무리 잘 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옴 사이에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간격이 있기 때문(9-10): 하나님의 능력(9) 위엄, 존귀, 영광, 화미(10) 앞에서 옴의 의로움은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한다. 태양 앞에서 촛불이 무슨 자항을 할 것인가?

6. 11-13절의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옴에게 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것이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무슨 뜻인가?

하나님 대신 네가 악인을 심판해 보라: 그렇게 잘 냈으면 네가 하나님 노릇을 해 보라는 것이다. '브루스 올마이티'던가? 주인공이 하나님 노릇을 대신하는 영화가 있었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다. 옴에게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의롭다고 말해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 15-24절은 다음 장에 붙여서 생각하는 것이 더 좋겠다. >

7. 우리말로 하마라고 번역된 말(베헤모트)은 실제로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하지 않아서 이론이 많다(하마, 코끼리, 괴물). 창조과학자들은 공룡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한다. 이 짐승을 설명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공룡과 가장 잘 어울리는가?

창조물 중에 으뜸: 표준새번역에 따르면 하나님의 무기 당번병이다.

8. 옴에게 이렇게 거대한 짐승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

옴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이 짐승에 비하면 너무도 보잘 것 없는 존재가 아니냐는 것이다.

9. 이 거대한 짐승은 하수가 창일한다 할지라도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단다(23). 옴을 무엇이라고 책망하는 셈인가?

그만한 일에 그렇게 출씩대는가?

욥기 41 장

1. 악어(리워야단)를 고기 잡듯이 낚거나, 잡아서 펠 수 있느냐고 물으셨다. 악어 한 마리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내게 덤비겠느냐는 뜻이다. 욥은 아무 말도 못했지만 요즈음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문제없다고 할 것이다: 악어도 너무 많이 잡아서 이제는 보호해야 할 형편 아닌가? 사람의 재주도 많이 발전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도전하기도 한다. 큰일이다.

2. 처음 질문은 악어를 잡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면 두번째 질문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어떻게 될까?

악어를 애완용으로 길들일 수 있느냐? 잡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길들일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말인데 요즈음 사람들은 더러 악어를 기르는 모양이더라. 이런 인간이 이런 구절을 보면 얼마나 자고할까? 악어와 소년, 절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지만 오늘날에는 텔레비전에 가끔 등장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3. 욥만 이런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부들도 하지 못한다. 상고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는 것은 나누어 팔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냥 팔지 나누긴 왜 나눌까?

악어가 거대하다는 뜻: 장사꾼들이 돈이 되는데도 덤비지 않는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4. 악어를 낚시로 잡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 즉 짐승을 사냥하는 방법으로는 잡을 수 있느냐고 물으신다. 그것도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죽이 워낙 튼튼해서.

5. 악어 한 마리도 못 잡느냐고 힐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정도의 능력도 없이 하나님께 덤비려고 하느냐(10)? 하나님께 덤비려면 우선 악어와 싸워서 이기거든 덤벼라!

6. 하나님은 악어를 훌륭하게 만드셨다고 자랑하시는 셈이다. 악어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잘 만드셨을까?

악어만의 문제가 아니다: 만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을 지으신 이의 능력이 보인다. 세밀하게 살필 능력이 부족할 때 대중 봐도 놀라운 지혜가 작용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 악어였을 뿐이다. 아무리 미미한 생물이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저절로 생긴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지혜가 숨어있다.

7. 가죽을 벗기는 거야 가죽이 쓸모가 있으니 하는 얘기지만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는 일은 왜 하는가?

생선을 잡아서 다루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줄줄이 꿰려면 아가미 사이로 노끈을 넣어야 한다.

8. 아무리 좋은 무기를 소유하고 있어도 사기가 편이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악어는 무기를 잘 갖추 군사와 같다. 거기에다 사기는 어떤가?

플같이 단단함(24): 적을 보아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을 가졌다. 어느 누구도,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28). 도무지 겁이 없다.

9. 아이들을 위한 퀴즈용 질문이다. 성경에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짐승은 무엇인가?

악어

10. 욥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은 베헤못과 리워야단(사 27:1, 시 74:14)이라는 기괴하고도 인간에 대해서 적대적인 짐승을 들어 설명하셨다. 특히 리워야단은 악의 대명사로 사용되었는데 굳이 이런 짐승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악의 세력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가르치시려는 의도: 욥이 선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번성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찬 곳이기 때문, 즉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 아니냐는 투의 항변을 한 것에 대한 간접적인 해명인 셈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도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면서 그렇다고 악을 완전하게 제하여 버리시지도 않으신다. 이 세상은 성도에게 완전한 안식의 장소가 아니라 훈련소이기 때문 아닐까? 완전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거쳐야 하는 예비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리라.

와목: 날카로운 토기 조각

옴기 42 장

1. 하나님께서 옴에게 수많은 질문을 하셨다. 이에 대한 옴의 답변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2. 주께 묻곤했던 옴(4)이 무슨 질문을 하였는가?
 질문할 것이 있어서 묻겠다는 말이 아니라 대화가 통하는 새로운 관계를 원한다는 뜻이다.
3.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귀로 듣는 것은 관점으로 아는 것이다. 종교적 전통이나 조상들의 가르침을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정도였다. 반면에 눈으로 보는 것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론적인 신앙과 체험적인 신앙의 차이라고 할까? 들어서 아는 수박의 맛과 한입 베어문 수박의 맛이 다른 만큼 다르지 않을까? 百聞이 不如一見이라?
4. 옴이나 친구들이 수없이 반복했던 인과응보, 상선벌악, 엘리후가 말했던 교육적인 목적의 고난 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대답 없음: 오로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을 뿐이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예'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모든 이론이 무슨 소용인가? 지극히 하나님다운 답변인 셈이다.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알고 싶은 아들이 있다고 치자. 아버지가 계획을 낱낱이 설명해야 되겠는가? 그래야 아들이 마음 놓고 시험공부를 할 수 있는가?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대답하는 것이 옳다, '걱정 말고 공부나 해라.' 신뢰의 문제다.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아버지 마음대로다.
5. 옴의 고난은 사탄의 질문에서 시작되었다(1:9).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라는 사탄의 이 질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는 셈인가?
 옴을 보라, 결국은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여주지 않는가? 아무 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 감복할 수 있는 신앙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6. 하나님께서 옴의 말이 옳다고 인정하신다면 옴이 회개할 것은 없는데?
 옴의 회개는 이전에 말을 잘못된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다. 이전에 피상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는 체험하고 느낀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인 셈이다.
7. 하나님께서 옴을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옴의 탄식이나 하나님을 향한 항의나 원망도 옳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의로운 옴에게 고난을 허용할 자유가 있으시다. 그러면 옴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유도 인정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자녀가 할 만한 불평을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셈이다.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대적하려는 원망이 아니라면 자신의 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인간의 자유가 어떻게 어울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8.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번제를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셨는가?
옴을 기쁘게 받으셨다: 제물도 아니요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도 아니다. 옴을 받으셨다. 우리가 죽자고 헌신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덕에 우리의 수고와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된다.
9. 한 때 옴은 자신에게 중보자가 없음을 안타까워했다(9:32-33, 33:23-24).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깊으시는가?
옴을 중보자로 세우셨다: 옴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옴이 친구들의 중보자가 된 것이다. 중보자를 기다리던 그를 중보자로 세우신 것도 기이하게 깊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자를 기다리던 소년이 자기 자신이 바로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놀란 감격보다 더한 감격이다.
10. 옴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받은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옴의 재산을 갑절로 늘려주시려고 이 고생을 시키셨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 것(귀로 들면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음): 재물의 복을 이미 누리고 있던 옴에게 또 다른 복을 주시려고 하셨다. 재산이 배로 는 것은 그냥 보너스일 뿐이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반면에 자신은 무지한 자이다. 안다고 열심히 떠들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떠들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깨달음이 진정한 복이다.
11. 옴이 받은 재물의 복은 글자 그대로 갑절이 늘었다. 그런데 왜 자식은 갑절이 아닌가?
 이미 죽은 자식도 자식의 수에 포함된다. 죽었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가 있는 자

식이기 때문이다(삼하 12:23).

12. 욥을 버렸던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했다(11). 언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후에: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돌아보지도 않던 자들이 다시 회복이 되니까 찾아와서 위로(?) 했단다. 지금은 위로가 필요 없는 때인데? 사람이 그런 존재인 모양이다.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받은 욥은 주변 사람들의 이런 위선에 가까운 위로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때로는 위선적이기도 해야 하고 알면서도 위선을 받아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가보다.

13. 아들들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데 여자들의 이름만 나타나는가?

아들들의 특출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만큼 특출한 딸을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 아닐까? 딸들에게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데 욥이 딸들에게 산업을 주었다는 것도 특별한 대우를 할 만한 딸들이었다는 뜻 아닐까?

14. 손자 사대를 보기까지 140년을 더 살았다면 욥의 수명은 대략 얼마라고 추정할 수 있을까?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손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70세 정도로 추정한다면 210세 전후 아닐까? 이 정도의 나이라면 대략 아브라함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해당한다(데라는 205세, 창 11:32, 아브라함 175세, 창 25:7).

15.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앗아가면서도 욥의 아내를 손대지 않은 이유를 욥이 받은 복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자.

아내를 배로 얻게 되는 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기에: 송길원 목사의 글에는 아내가 들이면 하나님도 감당 못한단다!

16. 욥기의 결론을 이렇게 표현해 보자. 잘못 없이 맞을 수 있나?

있다: 때릴 때 때리더라도 형편 봐가면서 때리는 것이다. 그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만 확실하면 왜 그러시는지 몰라도 된다. 문제는 신뢰다.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죄없이 맞은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 아비가! 하물며 우리가 '이럴 수는 없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으시다. 틀(인과응보, 공의)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